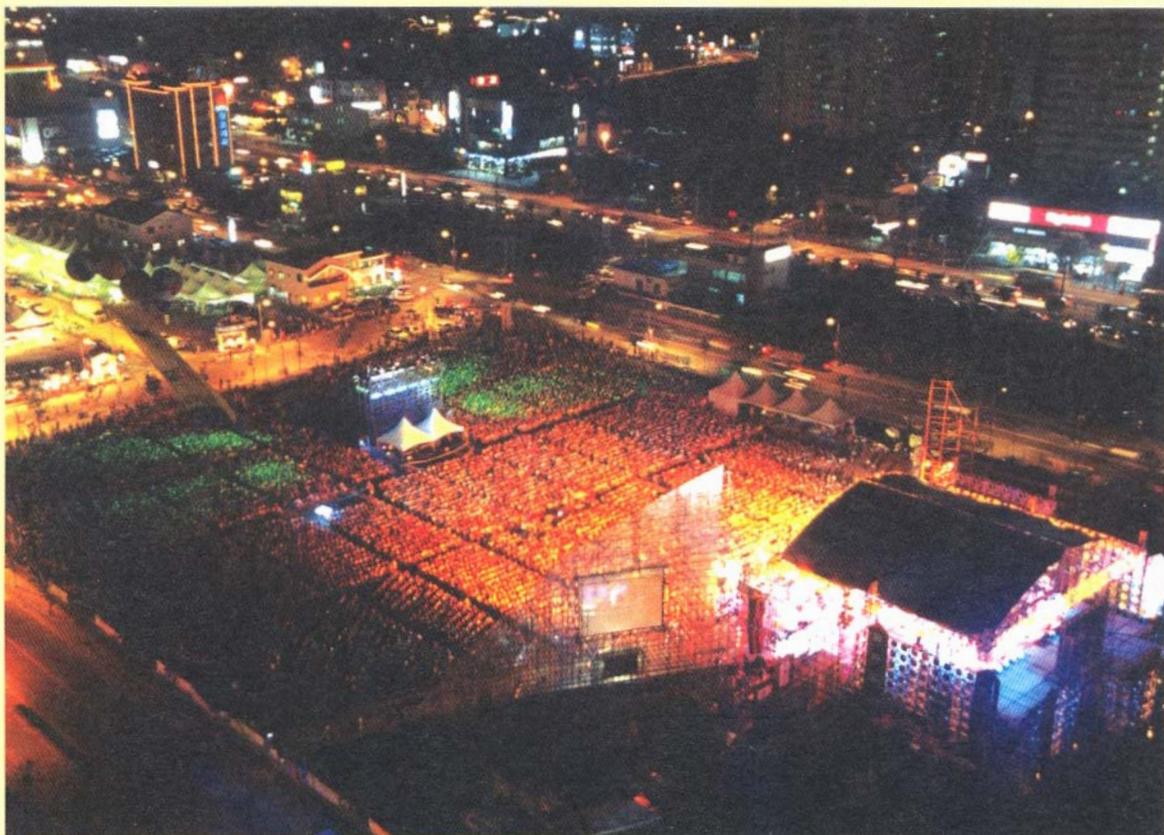


2004 · 제20호

ANNUALLY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제1회

국악이가 애국가 축전

Korea Music Festival



2004.7.31(토)
~ 8.7(토)

속초·설악 엑스포광장/ 설악종합운동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공원

<http://mfestival.imbc.com>



주최 (주)문화방송 · 속초시 후원 문화관광부 · 강원도 협찬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케이블카를 타시면 소공원 일대의 깔끔한 모습과
외설악의 저항령, 북쪽으로 웅장한 울산바위와
동해 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케이블카와 아름다운 설악의 경치를 보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설악케이블카 (주)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
Tel.(033)636-4300

속초문화

ANNUALLY · 2004 제20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217-010

전화 (033)632-1231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E-mail : sc2439@sokcho.org

■ 발행인 겸 편집인 / 최용문

CONTENTS



cover story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가 7월31일부터 8월7일 (8일)까지 속초시내와 설악산 일원에서 펼쳐졌다. 문화방송과 속초시 공동주최로 청초호 유원지, 종합운동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공원에서 조용필, 이미지, BOA, 안숙선(인간문화제), 윤도현밴드, 김덕수 사물놀이와 한울림 등이 출연하여 설악 판타지(개막공연), 오! 즐거운 인생(트로트 축제), 젊음을 달린대(젊음의 축제), 팝스콘서트-한여름 밤의 가요콘서트, 꿈·사랑·평화(폐막 공연) 등의 주제로 하는 한여름밤의 대축제를 40여만 명의 피서객이 즐겼다.

※표지 1,2 사진=속초시문화관광과 제공

■ 청구문화 장학재단	조수용 · 9
■ 권두회호	구병윤 · 10
■ 권두시 / 울산바위	이상국 · 11
■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 도시 속초	· 12
■ 발간사 / 향토문화선양에 최선을...	최용문 · 13
■ 문예중흥선언	· 14
■ 문화유선현장	· 15
■ 시민현장탐	· 16
■ 속초시민현장	· 17
■ 속초시가	· 18
■ 포토에세이	박영도 · 19
■ 백담계곡을 따라서 가면	사무국 · 21
■ 어부의 바쁜 손길	이왕선 · 25
■ 2004 속초해맞이 축제	· 26
■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 30
■ 제39회 설악문화제	· 36
■ 2004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 44
■ 2004 문화원 동정	· 48
■ 2004 문화의 날 / 최용문 원장 문화훈장 수훈	· 53
■ 제24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 55
■ 2004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 56
■ 속초주부풍물단 은상수상	· 57
■ 2004 제8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 58
■ 2004 속초 해양 페스티벌	· 60
■ 제5회 해변음악회	· 61
■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 62
■ 2004 갯마당 정기연주회	· 63
■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 64
■ 화랑도 체험	· 66
■ 2004 한국문화학교	· 70
■ <속초문화> 표지 제자(題字)에 대한 고찰	· 73
■ 속초도리원 농악	· 74

발행일 / 2004년 12월 24일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 제작비 일부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음.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임의 전재·복제를 금함.

비매품

■ 편집위원 / 이인철, 노광복,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윤의구, 최현식

■ 속초의 문화 비전	최원복 • 88
■ 속초 문화 새로운 인식	양언석 • 92
■ 지방 대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노환 • 95
■ 김종학이 그린 雪嶽의 四季	김종학 • 101
■ 도자기 미술의 의의	조무호 • 109
■ 속초가 극락이다	마 근 • 114
■ 님의 녀 백담사에서 부활	사무국 • 116
■ 속초 게를 먹다	이만식 • 119
■ 설악-금강의 共存: 문제와 과제	정문헌 • 128
■ 설악권-금강권 연계 개발 추진 방향	김희철 • 131
■ 통일로 가는 설악-금강의 뜨거운 몸짓	허춘권 • 134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박금옥 • 137
■ 홍문표 교사 박사 학위 취득	홍문표 • 141
■ 2004 국제문화탐방	최용문 • 144
■ '극단 굴렁쇠' 루마니아...	• 148
■ 2004 졸업생을 위한 특강	• 150
■ 젊은이여! 세계를 배워라	사득환 • 151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식	• 153
■ 실향민 함상합동위령제	• 154
■ 속초시 장애인 후원회 사무실 현판식	• 155
■ 전국여자중별 축구 선수권 대회	• 156
■ 제1기 영랑호 산책로 걷기 교실 발대식	• 158
■ 제3회 강원장애인 합창경연	• 160
■ 속초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161
■ '강원도의 노래' 外	• 162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 166
■ 속초문화원 묵향	• 169
■ 속초 서우회	• 173
■ 강목회	• 175
■ 2004 속초예총 주요사업	• 177
■ 2004 속초민예총 주요사업	• 188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200



척산 온천 휴양촌/산림욕장 전



온천용출 전경(53도)



온천 식당



온천탕 내부

온천 일번지 속초를 말할 때면 산과 바다와 호수 그리고 온천을 떠올립니다.

온천의 역사가 유장한 까닭에 전설로도 유명한 척산온천(尺山 溫泉)은 지하 4천 미터에서 형성된 섭씨53도의 온천수가 용출되는 국내 최상의 온천이면서 설악산 국립공원 최적의 온천 휴양지로 꼽습니다. 척산온천 이라고 하면 [척산온천 휴양촌]을 일컫습니다.

척산온천 휴양촌

The Cheoksan Spa and Hotel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972-1
 속초 033-636-4000 Fax 033-636-4007
<http://www.cheoksan.co.kr>



(株) 大洋

인정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96~07년도)

<사업계획개요>

- 구 역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의 8개리(1도 1군 2면 9개리)
- 개발면적 - 구역면적 : 451ha - 물리면적 : 397ha
- 주요사항 - 저수지 : 1개소(L=272m, H=45.4m) - 용수로 : 3조 16,028m
- 간선 : 3조 16,028m - 지선 : - m
- 이설도로 : 1조 1,816m
- 사업비 - 24,652,756천원(ha당 62,097천원)
- 사업효과
- 직접효과 - 증산, 생산비 절감
- 생활용수 확보
- 기계화 영농 기반조성
- 수자원 확보
- 작부체계 개선 및 농지이용을 재고
- 간접효과 - 고용증대
- 지구개발 및 발전여건 조성
- 관광지원확보
- 증수량 : 334.1 M/1



본 사 /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709
 대표전화 (033)252-7881~3 / 256-6000~9

속초전화 (033)632-6809 · 1 / 631-2990
 전 송 (033)631-3404 소장자택 (033)632-8883



소장 박승호



(주) 한맥씨시스템 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자동화와 관련된
제반기술 및 제어설비를 공급하고있는
자동제어 전문회사입니다.



사업분야

- 수질관리시스템
- 전력제어시스템
- 빌딩자동제어시스템
- 통합감시제어시스템

(주)한맥씨시스템
Hanmacsys.co.,Ltd

주소: 경기도 수원시 대포동 934-2번지
대포동 공단길 1A
TEL : 033-636-6195(주)
FAX : 033-636-6197

포항 및 광양제철소(POSCO : 포스코)

-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

용광로
원료설비
코크스설비
소결설비
가스 및 중유설비
제강설비
열간압연설비
냉간압연설비

(株) 三都 엔지니어링
技術士事務所

대표이사 朴 泰 浩
기술사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638-22
(元堂 BLDG 301. 302. 303號)
전화 : (02) 887-9369, 9368
전송 : (02) 887-9367
전자우편 : SAMDO@hitel.net

성황리 분양중

27평형
35평형

Dream APT

속초에서 처음 선보이는 고품격
3-BAY 아파트!

기다린 보람이 있다.

Dream

당신이 꿈꿔왔던 바로 그 아파트

대명 드림아파트 분양

속초
영랑동

GRAND OPEN

모델하우스
상시개관중

모델하우스 약도

현장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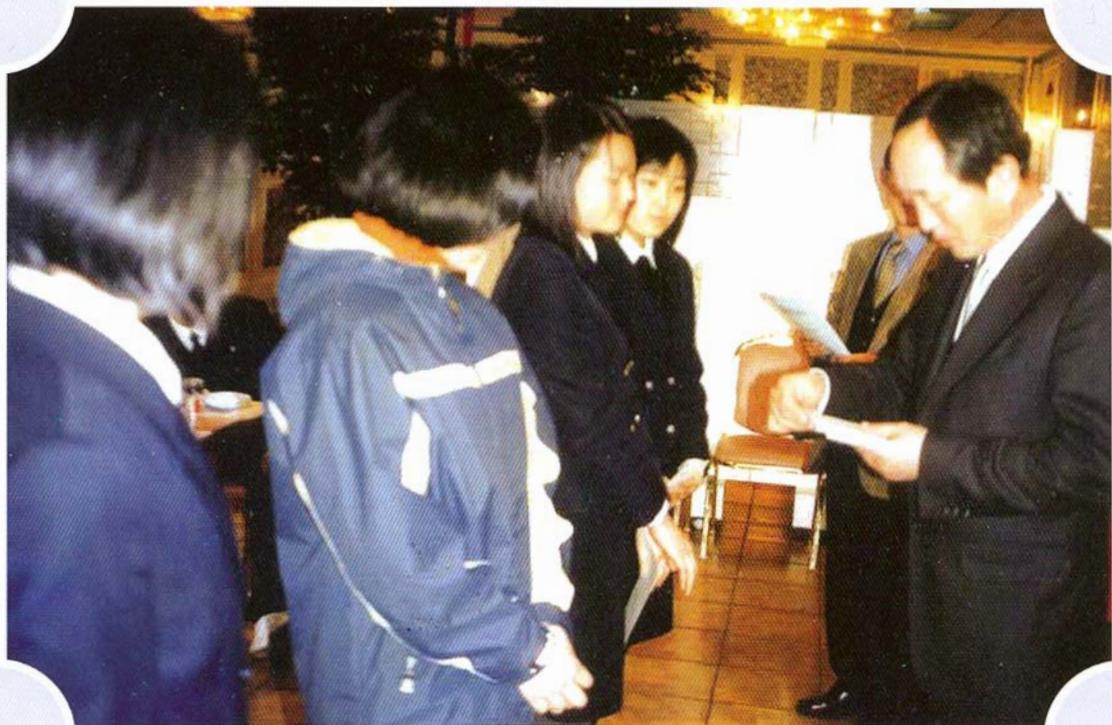


2004년 12월 입주예정

분양문의
시행사 (주)대명주택건설 033)632-8899
시공사 (주)대명종합건설 033)638-0404

대표 최 평 규

내 고장의 인재 양성을 위한 청구문화 장학재단



우리 청구문화 장학재단은 내 고장의 인재 양성에 일조(一助)한다는 사명의식으로 1967년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찾아 장학금을 전달하며 언제 어디서나 향학열과 함께 애속각초(愛束覺草)의 정신을 불어넣기 30여 년의 세월을 묵묵히 선산(先山)의 노송(老松)처럼 지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구문화 장학재단



3대 이사장 조 수 응

우)217-030 속초시 중앙동 468-20 (조수응 법무사 사무실)
☎ 033-631-9222 / 033-632-8907

권두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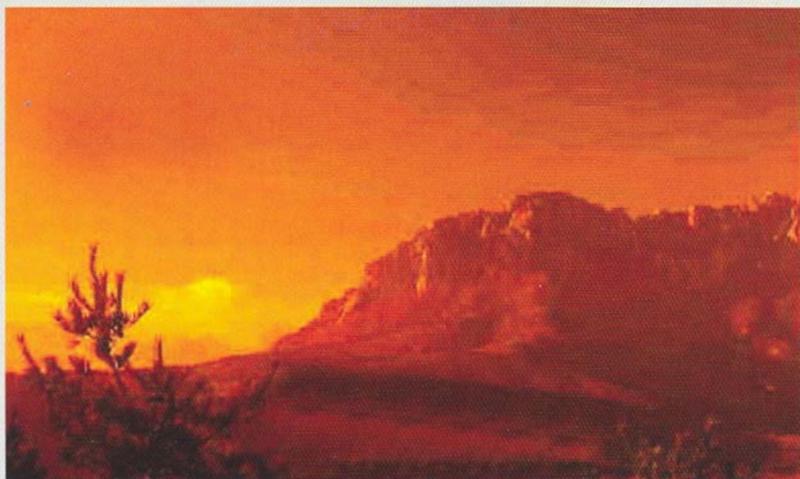
풀어 주는 이야기

어디서 살고 있더라도 속초를 사랑하는 마음과
늘 속초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내 고향 속초는 더욱 번영하는 관광 도시로
크게 부상할 것이다.



석성(石城) 구병운(具炳允)

- 2002. 11. 30 경기문화선양협회 입선(한글)
- 2003. 6. 20 현산문화제 차상(한글)



울 / 산 / 바 / 위

이 상 국

그전에
아주 그전에
울산바위가 뱃길로 금강산 가다가
느닷없이 바다가 되는 바람에
설악산 중턱에 걸터앉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몸을 두드릴 때마다
파도소리가 나는 건 다 그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모여라

꽃단풍 물단풍 곱게 들고
동해 미치도록 푸른 날
울산바위 내려 타고
가다 만 금강산 가자



李 相 國

1946년 양양 출생. 1972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1976년 <삼상> 시 전문지를 통해 동단. 제1회 강원민족예술상, 제9회 민족예술상, 제1회 유심작품상, 제1회 백석 문학상, 제3회 강원민족예술상 수상. 현재 민족문화작가회의 부이사장, 만해축전 부대회장, 만해마을 운영위원장, <설악신문> 편집국장, 논설주간, 발행인, 대표이사, 민족작가회의 강원지회장 등을 역임. 시집으로는 <동해별곡>·<내일로 가는 소>·<우리는 읊으로 간다>·<집은 아직 따뜻하다> 등이 있음.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미래 도시 속초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캐릭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퍼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시화



국화

국화는 번식력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회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향토문화 선양에 최선을 '속초문화'지 20년 역사

속초문화원장 최 용 문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로 태어나 문화의 모태에서 성장하면서 인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진다고 한다.

“문화의 시대”

문화는 국가간의 경쟁의 승부처, 나라마다 장래의 판가름으로 문화를 외친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하고 향토애에 대한 사랑과 그 자긍심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많이 알고 문화발전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문화가족의 일원이 되어 밀반침을 해야만 향토문화를 가진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되며, 관광산업의 선두자가 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 더하여 전설과 풍속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구조에 전반적인 해박함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문화원이 향토애와 속초시의 발전과 함께 다음해 40주년이라는 긴 세월의 향토문화로 꽃피우게 되었다.

문화원에 발들인지 어언 20여년, 문화의 선구자로 지역의 문화 제현상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발굴하고 계승 시키려 아낌없이 달려왔었다.

향토문화의 질적 향상이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낼 수는 없었으나 속초시의 문화발전상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리라 회고해 본다.

이제 「속초문화」가 20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 동안의 문화에 대한 지식이요, 취미요, 깨달음의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역사속의 귀중한 소산물로 전해지기를 고대해봄이다.

본 문화지가 지속적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아끼지 않은 문화지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더하여 20여년간 문화의 맥을 잇게 도움주신 지인들에게 머리숙여 인사드린다.

2005년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어 지역적 아니 세계적인 문화원으로서의 위상과 함께 펼쳐나아가길 기원드린다.●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的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的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的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문화유산헌장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유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 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 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환경이 파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의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I.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I.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I.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 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I. 문화 유산은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I.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1997년 12월 8일

시민헌장탑



시 민 헌 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쪽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업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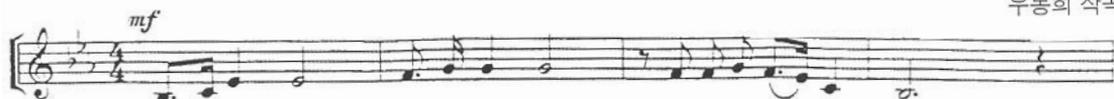
1990년 10월 11일

속 초 시 민 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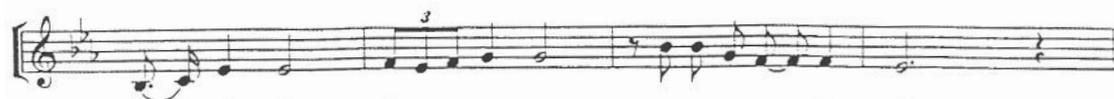
속초시가

♩ = 92 - 96

이상선 작사
우동희 작곡



1.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고
2. 해 - 안 선 굽이 굽이 아침 해 떠 오르 고
3. 신 - 흥 사 종 소리 에 새벽잠 깨 - 이 어



동해바다 푸른물결 누리에 펼 - 치 내
천불동 굴짜기에 흰구름을 물 내
이슬젖은 발길로 바닷가 거닐어 라



정성과 보 - 람으로 다져 온 이 - 터 전
청초호기 - 대 - 어 마동령 바라보 니
살매기 높 - 이 - 어 우리 꿈손짓하 니



우뚝 솟아 빛 - 나 네 하늘아래 제일 이 라
상하 다 우 리 님 이 그 - 옥히 깊어 지 네
함구 에 뭍 인 배 가 대양으로 차비 하 네



가 자 배를 젓 - 자 산으로 바다향 -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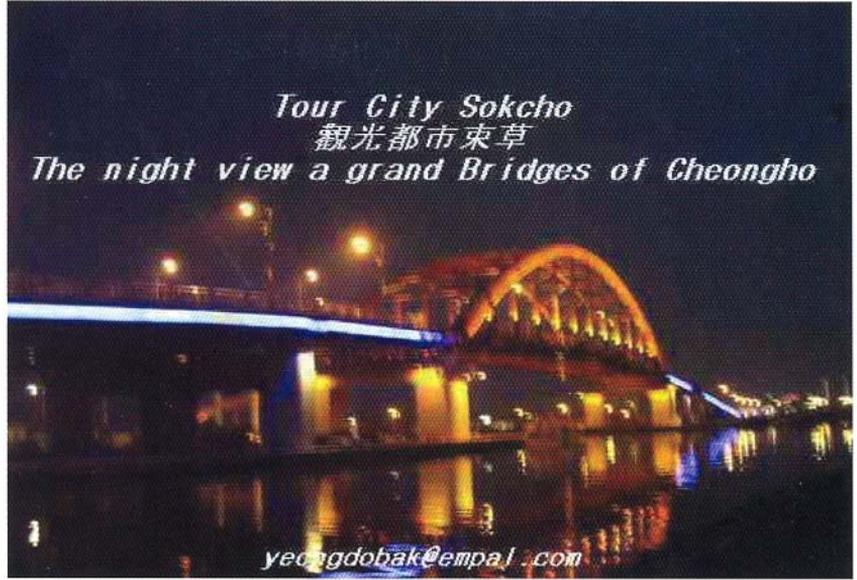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다 · 사 · 진 / 황 · 영 · 배 · 편 · 집

assuwain@hanmail.net



청호대교(靑湖大橋)의 밤은 깊어 가고

- 아치 교량 410 m에 다양한 색상의 연출

속초 최초 아치형의 다리-[청호대교] 야간 조명까지 시설된 이 다리를 사진에 담으면서 외국 영화이기는 하지만 다리를 주제로 하는 두 편의 작품이 떠올랐다. 제2의 러브 스토리'라고 하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원제/The Bridges of Madison>와 오래된 기억으로는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 주연의 <애수/The Waterloo Bridge> 이후 몇 차례 영화관에서 또는 비디오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랑이 아름다우려면(?) 하는 생각과 낭만적인 사랑이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일 까를 의문하면서 야경을 즐기는 사람들 숲을 떠났다. 이 다리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안목과 속내를 가지는 느낌의 미학적 관점(views)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제 밤의 명소로 떠오른 청호동 신수로 아치형 대교는 밤이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연출함으로써 하루에 3,4백 명이 찾을 정도로 밤의 문화 경관으로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

땅거미가 찾아들면서부터 다음날 새벽 두 시까지 다양한 색상의 연출은 젊은이들에게 매력의 데이트 코스가 아닐 수 없다. 동쪽으로는 역동적인 이미지의 빛을 연출하고 서쪽으로는 고요하고 정적인 온화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등 계절과 실시간으로 다채로운 조명을 발광하여 속초 관광의 볼거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탄생시켰다. 동반하여 밤바람을 맞으며 함께 야경을 지켜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세월이 가면 다리에 얽히는 사연도 켜켜이 쌓여 가겠지.

이미지와 영상의 시대에 아우르는 경관이랄 만하다.



그리운 정자(亭子) - 옛 문헌을 따라서 가면

-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 영랑호 정자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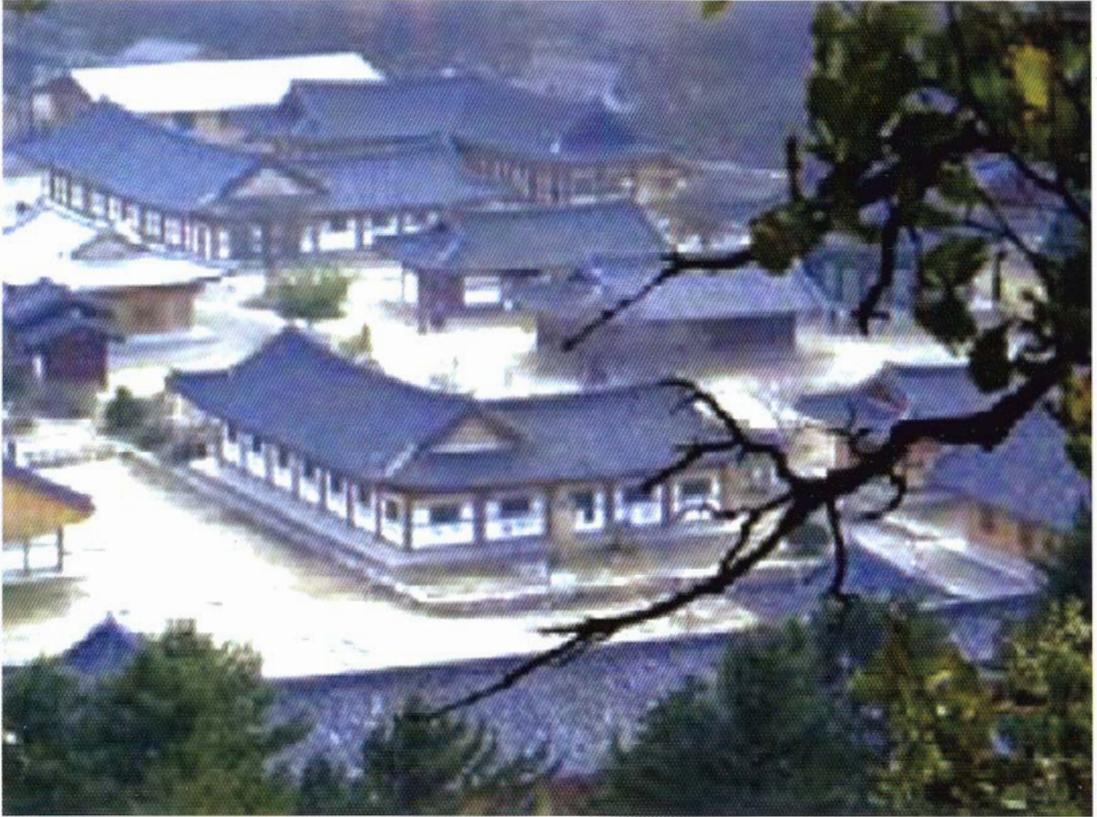
“영랑호(永郎湖)는 고을 남쪽 55리에 있다. 주위가 30여 리인데 물가가 굽이쳐 들어오고 암석이 기괴하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간 작은 봉우리에 옛 정자터가 있으니 이것이 영랑 신선(永郎神仙) 무리가 놀며 구경하던 곳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新增東國輿地勝覽》 간성군조(杆城郡條)

문헌상의 기록이나마 아련하게 그려지는 상상의 세계 - 오늘에 되살리고 싶은 정자이다. 어느 세월에 세워졌고 어느 세월에 터 만을 남겼는가. 후세 알 길 없노라지만 늦게나마 속초 시당국이 이 정자를 현양(顯揚)하리라는 소식은 여간 기쁜 게 아니다. 없었던 것도 만드는 세월에 문헌에 생생하게 기록된 정자의 흔적이 아닌가.

온고지정(溫故之情)으로 문헌상의 장구한 세월을 뛰어 넘어 우리의 유형 문화 유산으로 남겨 줄 문화적인 심상(心相)을 찾았다는 데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문화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어야 한다. 또 하나의 문화 경관을 볼 수 있으리라는 흡족한 마음으로 홀로 범바위'에 올라서 영랑호의 깊어 가는 가을 정서를 즐겼다.



백담계곡을 따라서 가면 (1~4)

1. 백담사(百潭寺)로 가는 마음

백담사는 내설악의 대표적인 사찰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백담계곡'을 따라 약 8km를 거슬러 올라간 위치에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는 사찰이다. 백담사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선생과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이지만 서기 647년 (진덕여왕 1년)에 창건주 자장율사 가 한계리에 처음 절을 짓고 한계사(寒溪寺)라 했다고 이 절 사적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후 여러 차례 화재로 소실되어 절 이름이 자주 바뀐 것으로도 유명하다. 1990년 이후 중창이 진행되어 부속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서 사역이 넓어졌다. (△=현재 백담사 사역 전경으며, '극락보전'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이 들어섰다.)



2. /백/담/계/곡/ 의가을

백여 개의 담(潭)으로 이루어 졌다고 해서 백담(百潭)이라고 불리는 이 계곡은 저항령·마등령·대청봉·대승령을 잇는 내설악의 모든 계곡물이 모여 이룬 계곡으로 설악에서 그 아름다움을 최고로 꼽는 계곡 중의 계곡이다.

외설악의 천불동 계곡과 쌍벽을 이루며, 계곡에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가람 백담사와 두태소와 청룡담, 은성도와 영산담 등 크고 작은 담이 곳곳에 있으며, 여름철이면 우렁차게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마치 장엄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방불케 하며 가을이 오면 단풍의 빼어난 절경은 환상적이기까지 하다.

지난 시월 초에 우연한 기회로 젊음들과 함께 백담사를 다시 찾아 단풍의 절경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이었다.



△ 사진=왼쪽(향좌)에 탐방객이 몰려 있는 곳이 '화엄당'이다.

3. 백담사 화엄당(華嚴堂)과 '님의 침묵'

백담사(百潭寺)를 모르는 사람 없고, 만해 모르는 사람 없으며,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로 시작되는 시 '님의 침묵'을 모르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선생의 '님의 침묵'이 어디에서 탈고 되었느냐고 물으면 선뜻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다. 1896년 동학 운동이 실패하자 설악산 '오세암'으로 피신, 1905년 승려가 된다. 1926년《님의 침묵》시집을 발표하여 저항 문학에 앞장 섰다. 바로 이 시집이 탈고된 곳이 백담사 '극락보전' 앞 '화엄당'이다. 역사는 참으로 역설적이며 풍자적이며 반어적인가, 바로 이 화엄당에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1988년부터 2년 동안 은둔하였던 탓으로 백담사를 찾는 사람들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참으로 역사는 '알 수 없어요.'.....



△ 사진=시월 초 산행에 동참한 어느 여인이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감사의 표시로 싣는다.

4. 백담사 잠수교와 가을 정취

사찰 경내로 진입할 때 다리를 건넌던 기억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깊은 산곡에 자리잡은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평지에 있는 사찰에서도 불전 구역 초입에 놓인 다리를 자주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그런 다리를 단순히 물을 건너기 위한 편의 시설쯤으로 치부하기 쉬우나 여기에는 기능적인 가치 이상의 떨리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바로 현실 세계와 피안의 경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설악 백담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화려하리 만치 수심교(修心橋)가 으스스대지만 돌다리를 거쳐 나무다리로 지금은 잠수교로 이어진 여기가 옛 백담사를 떠올리게 되고 찾는 사람들에게 더욱 정답다.



△ 사진=작가의 작품 중에서 - 명태 덕장을 배경으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상이다.

어부의 바쁜 손길

이왕선 사진 개인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려

이왕선(속초사진협회 회장) 사진 개인전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 주제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설악과 동해, 산과 바다와 호수를 주제로 한 40점의 영상을 전시하여 왕성한 작품 활동상을 과시했다.

모두 모두 부자되세요!!

2004 속초해맞이축제

시름은 파도에, 희망은 가슴속에.....

신년첫해! 푸른 파도속에 시름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2004속초해맞이축제에서 기원해 봅니다.

■ 일시 : 2004. 1. 1 (목요일) 06:00 ■ 장소 : 속초해수욕장(주행사장) 및 설악해맞이공원(보조행사장)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어둠을 뚫고 희망을...

2004

속초해수욕장 / 2004.1.1(목)06:00~08:00

새벽을 알리는 환희의 소리

홍겨운 갯마당사물놀이가 2004년 첫 새벽을 알리며 모든 사람에게 가슴벅찬 희망을 전해줍니다.

신년연주회(고구려예술단)

속초에 온 모든 이에게 축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속초시장의 신년인사와 함께 웅장한 연주회가 울려 퍼집니다.

불꽃놀이

새해를 알리는 함성과 함께 하늘 위로 쏘아올린 불꽃이 장엄한 일출과 함께 장관을 이룹니다.

어선집어등밝히기, 선상퍼레이드

어둠을 밝히는 집어등이 바다위의 별빛이 되어 속초에 온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되어 줍니다.

촛불기도(소망빌기)

어둠을 밝히는 또하나의 작은 빛!
촛불향연과 함께 지난해의 시름은 파도속에 던져버리고 새해에는 희망과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전통무용공연(양속희무용단), 가수초청공연(녹색지대,포지션)

장엄한 일출이 신비롭게 펼쳐지고 속초에 온 모든이들의 축복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전통무용단의 공연과 가수 초청공연이 해맞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합니다.



“함께하는 출발 2004!!”

2004

설악해맞이공원 / 2004.1.1(목)06:00~07:00

해오름함성(오색풍선날리기)

함성속에 지난해의 시름을 지우고 형형색색의 풍선을 날리며 새해의 희망을 기원합니다.

촛불기도(소망빌기)

경건한 마음으로 새해의 희망과 축복을 기원해 봅니다.

전통소리공연(사물놀이, 설장구)

홍겨운 사물놀이의 설장구소리가 추위에 움추린 가슴을 짝퍼고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게하며, 해맞이축제의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지역특산물 무료시식회

- 속초시새마을지회 : 떡국 + 온 음료(커피, 국산차 등)
- 학사평순두부축제운영위원회 : 순두부
- 제1회 학사평순두부축제 참가자 보은행사 및 홍보
- 설악 산들바람 김치 : 포기·맛김치 등
- 속초 양봉영농조합법인 : 따뜻한 꿀차

• 장소:속초해수욕장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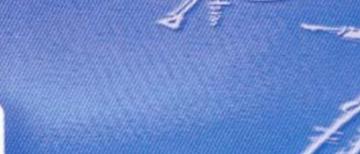


제1회

국악이 가 야 하 는 제

Korea Music Festival

야 하 는 제



2004.7.31(토)
~ 8.7(토)

속초·설악 엑스포광장/ 설악종합운동장
영랑호잔디광장/ 설악공원

<http://mfestival.imbc.com>



주최 (주)문화방송·속초시 후원 문화관광부·강원도 협찬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변나는 음악세상! 설악 판타지아 2004!

7/31(토)

개막 공연 설악 판타지아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신동호아나운서, 장서희

인순이, 태진아, 정수라, 전인권, BoA, 성시경, 빅마마, SM Town, 휘성, SE7EN, 동방신기, 김덕수패 사물놀이, 양방언 (재일 뉴에이지 아티스트), 소프라노 김원정, 이정식밴드, 원 일, 장재효, 중앙가무단
연주: 국립경찰교향악단(지휘:정철주)

8/1(일)

트로트 축제 오! 즐거운 인생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남희석

심수봉, 김수희, 송대관, 태진아, 설운도, 방실이, 현숙, F.# (일렉퓨전트리오), Booni (여성금관5중주)
MBC 무용단, MBC 합창단 등
연주: 국립경찰교향악단(지휘:엄기영)

8/2(월)

젊음의 축제 젊음을 달린다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인석, 김빈우

JTL, NRG, 드림콘타이거, 은지원, 이정현, UN, MC몽, 다이아믹 듀오, 에픽하이, 힙합댄스팀 익스프레스, 디거리 등

8/3(화)

대한민국 노래왕!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서경석

노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실력과 아마추어들 출연! 노래 실력과 무대 매너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노래왕을 가린다!
· 초대가수: 송대관, 태진아 등
· 참가자(팀): 10명(팀)

정조호
엑스포광장



설악
종합운동장



빅스타축제 나는 조용필이다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조 용 필



영랑호
잔디광장



록 페스티벌 자유!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한준호아나운서

김장훈, 부활, K2, 노바소닉, 정원영밴드, 서문탁, 불독밴드, 레이니썬, 네바다51

Rock! 여름 속으로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한준호아나운서

안치환과 자유, 도원경, 문희준, 박혜경, 나비효과, 트랜스픽션, 스키즈, 슈퍼독

착하게 놀기

공연: 오후 6시~오후 10시

MC: 이윤석

전인권, NEXT, 김경호, 크래쉬, 피아스키즈, 내 귀에 도청장치, 트랜스픽션, 클래지콰이

설악공원



퓨전콘서트 따로 또 같이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경화아나운서

인간문화재 안숙선,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함울림, 양방언(재일 뉴에이지 아티스트) 이정식 재즈밴드, 장재효, 남상일, 박종호, 원일, 정재일, 신소희(재즈가수), 소냐, 슈퍼사이즈(랩퍼)

통기타 축제 통기타 빅 4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송창식 · 윤희주
김세환 · 양희은

청소년 국악축제 평화의 노래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경화아나운서

신호범 안치환과 자유, 자전거 탄 풍류회소리, 마야, 이만, 소프라노 고예정, 인간문화재 이춘희, 경기명창 이호연, 연변예술단 김은희, 한양가문고 앙상블 연주, 퓨전밴드 한소리

The 1st Korea Music Festival

가자! 속초·설악으로 떠나는 8일간의 음악여행!

8/4(수)

**가족 사랑
가곡의 밤**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신동호아나운서, 옥주현

프라노 박정원, 테너 강우림,
너 김상근, 소프라노 유미숙,
너 최승원, 테너 임산,
프라노 김원정,
프라노 김수정, 팝페라 임태경
초시립합창단, MBC 무용단 등
주: MBC 관현악단(지휘: 엄기영)

8/5(목)

**한여름 밤의
팝스콘서트**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정지영

JK 김동욱, 김범수, 박화요비, Tim,
남경주, 최정원, 팝페라 정세훈,
대니 정, 카밀라, 린,
May tree (아카펠라 그룹)
연주: MBC 관현악단(지휘: 엄기영)

8/6(금)

**MBC
가요콘서트**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이상벽

실력으로 승부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100% 라이브 연주에 맞춰 노래를 선
사하는 시간. MC 이상벽이 이끌어 가
는 삶과 음악, 그리고 사랑의 토크 콘
서트!

8/7(토)

**폐막 공연
꿈·사랑·평화**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용만, 김제동

인순이, BoA, SE7EN, NRG, 코요태,
휘성, LEXY, 태빈, 동방신기, 조PD,
은지원, MC몽, M.C the Max, Tei

정소오
엑스포광장



**빅스타축제
동감 同感**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정지영

**이미자
윤도현밴드**



설악
종합운동장



티 벌

**모여樂!
마추어 록 콘테스트**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한준호아나운서

초대가수: NEXT, 노브레인,
레이지본, 마야, 팽청소년 록그룹
아마추어 록그룹 10팀 (경연)

캠퍼스 밴드! 7080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한준호아나운서

샌드페블스, 라이너스, 로커스트
블랙데트라, 휘버스, 건아들,
장남들

젊음·열정·자유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소유진

강산에, K2 김성연, 크래쉬,
뜨거운 감자, 러브홀릭, 이승렬



영랑오
잔디광장



**청소년 국악축제
新나는 우리 소리**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경화아나운서

박인 신영희, 국악인 장문희,
배일, 서영은, 다이내믹 듀오,
인밴드, 대니 정, 펄라트릭스,
전주(국립무용단), 백보현, 황윤정
주: 퓨전밴드 한소리

**통기타 축제
그립다 친구야!**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경화아나운서

이정선, 임지훈, 최성수, 박학기
녹색지대, 한동준, 권진원
자전거 탄 풍경, 고한우, 이범학

수요일예술무대

공연: 오후 7시~오후 9시

MC: 김광민, 이현우

김상희, 김지연(바이올리니스트),
김광민밴드, 나운선밴드, 정원영밴드,
정재일밴드, 한상원밴드, 한종원밴드



설악공원









제39회 설악문화제

2004 Seorak Cultural Festival

개최의의

다양한 전통문화축제의 가치와 고유성을 살려 한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문화관광자원화를 도모한다.

- 민족통일 분위기 조성 → 통일염원을 주제로 한 행사 개최
- 전통문화예술의 발굴 → 역사에 뿌리를 둔 축제 개최
- 향토문화의 축제화 → 고유성 확보 및 차별화된 축제
- 시민·관광객 축제 참여 유도 → 체험형 축제로 개최

행사개요

- 기 간: 2004.10.15(금)~10.17(일)
- 장 소: 청초호유원지내 상설이벤트장, 설악산 일원
- 주 최: 설악문화제위원회·속초시
- 주 관: 각 추진위원회
- 후 원: 각급 기관·단체, 기업체, 학교 등

설악문화제의 유래

설악문화제는 오랜 역사를 지닌 山嶽祭禮儀式을 변화 발전시킨 향토 축제로, 古代的 祭天行事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金富弼의 三國史記에 설악산에서 정기적으로 小祀를 지냈다는 기록에(金富弼의 三國史記 卷 32 雜誌 第 1 祭祀條 三山五岳 已下名山山川 分爲大中小祀 … 小祀 … 雪嶽 城郡 …) 그 기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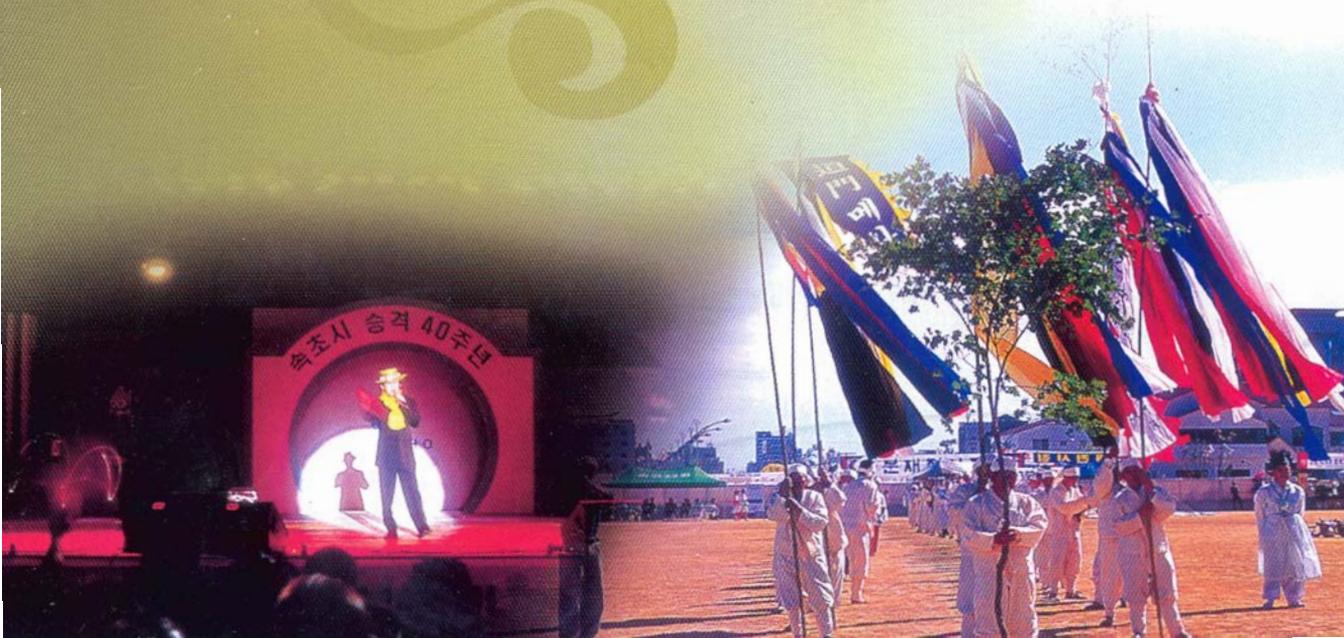
이 기록은 강원도내에서 문헌상 드러난 가장 오래된 제례행사이며, 삼국통일 기원 의지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설악문화제가 현재의 향토축제로 되살아난 것은, 1966년 속초예총이 주축이 되어 시내 각급기관, 학교, 사회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고, 전국 각지의 산악회 및 외국인 등 100여단체와 수천명이 참가하여 등산대회와 국민인과 전국 산악인,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산신제에서 비롯되었다. 그후 17회 설악제부터는 "시민의 달" 행사와 병행되었고, 24회부터 민간주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1996년도에 설악제에서 설악문화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순수 문화축제로 변화를 시도하여 8개부문 60여개의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향토문화축제로 뿌리내리게 되었다.

설악문화제에 초대하며...

설악문화제는 한국관광 제1의 도시 속초를 대표하는 향토문화축제로써 설악산과 관련된 산촌문화, 동해바다를 근원으로 하는 어촌문화 그리고 청호동 아바이마을로 대표되는 실향민문화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차별화된 문화관광축제로 승화하여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명실상부한 한마당 잔치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전통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백두산 향로와 금강산 관광 등 국제적인 관광교역도시에 부합하는 관광상품으로서의 설악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대외문화 교류와 더불어 독특한 향토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축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곳보다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실향민의 애환이 담겨있는 실향민문화를 보존·전승하고, 통일대계·통일열원 설악산 등산대회·갯배끌기 등 통일을 준비하는 중심도시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자 합니다.



행사일정

첫째날 10월 15일(金)

통일대제(권금성통화대)	11:00	설악산
제례굿	14:00~19:00	행사장
산신제(산신제단)	14:00	설악산
용왕제	15:30	해맞이공원
제등행렬	18:00	수복탑행사장
삼신합동제	18:30	행사장
갯마당판굿	19:00	주무대
대학생치어리더	19:30	주무대
개회식	20:00	주무대
CBS라디오 공개방송	20:30	주무대
불꽃놀이	21:30	유원지

◆**북거리**: 제례굿, 통일대제, 산신제, 용왕제, 갯마당판굿, 통일염원의밤, 불꽃놀이 제등행렬

둘째날 10월 16일(土)

조전제(굿당)	09:00	행사장
궁도대회	10:00	궁도장
씨름단체전	10:30	행사장
마상무예	10:30	행사장
메나리농요	11:00	행사장
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예선)	10:30~14:00	상설공연장
게이트볼대회(C구장)	11:00	유원지
어선무료승선체험	11:00	유원지
그네	11:30	행사장
갯배골기	13:00	행사장
제례굿	13:00	행사장
설악서예백일장	13:00	학생체육관
전통궁중혼례(혼례식, 어가행진)	13:00~16:00	주무대
널뛰기	14:30	행사장
청소년연성경연대회	14:00~17:00	상설공연장
든대질놀이, 범선경기	14:00~17:00	행사장
로프던지기, 오징어할복경기	14:00~17:00	행사장
디지털사진촬영	14:00~18:00	행사장
산악인추모제(산악인의 문)	15:00	설악산
각 경기 준결승, 결승	16:00	행사장
설악가요제	19:00	주무대
첼버오케스트라	20:00	주무대
연변꽃봉우리예술단 초청공연	20:30	주무대

◆**북거리**: 연변꽃봉우리예술단공연, 갯배골기, 거리시화전, 사진전(속초, 혼춘), 아동화거리축제, 범선경기, 로프던지기, 든대질놀이, 오징어할복, 분재전, 꽃꽂이전, 우리꽃, 견오징어공예, 궁중혼례, 청소년행사(풍물겨루기, 댄싱, 길거리농구), 씨름, 그네, 시민강좌발표, 게이트볼대회, 갯배골기, 투호, 널뛰기, 뼈에로장대인간, 마상무예시연, 도문메나리농요, 궁도, 제례굿

◆**곶길거리**: 산악인한마음잔치, 통일풍선나뉘주기, 시식회(이복음식, 6.25회상음식), 어선무료승선, 도자기제작, 꽃누르미, 디지털사진촬영, 갯배골기

세째날 10월 17일(日)

조전제(굿당)	09:00	행사장
통일염원전국동산대회(오색대청봉 - 희운각산장 - 천불동계곡 - 소곡원 - 아영정)	09:00~18:00	설악산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한마당	10:00	상설공연장
게이트볼대회(C구장)	10:00	유원지
어선무료승선체험	10:00	유원지
궁도대회	10:00	궁도장
씨름개인전	10:30	행사장
도리원농악시연	10:30	행사장
제례굿	11:00	행사장
시민강좌발표회(스포츠탈런트)	11:00	주무대
투호	11:30	행사장
야생화누르미	11:30	강원도 관광정보센터세미나실
자통놀이	13:00	행사장
범선경기(시민, 관광객체험)	13:00	행사장
시민강좌발표회(기체조외 4종목)	13:00	주무대
줄다리기	14:00	행사장
떡메치기	15:00	행사장
로프던지기(시민, 관광객체험)	15:00	행사장
각 경기 준결승, 결승	16:00	행사장
디지털사진촬영	13:00~17:00	행사장
송신제	18:00	행사장
함께해요! 설악즉석노래방	18:00	주무대
국악초청공연(고구려)	19:30	주무대
연변꽃봉우리예술단초청공연	20:30	주무대
폐회식	21:30	주무대
불꽃놀이	21:30	주무대

◆**북거리**: 연변꽃봉우리예술단공연, 거리시화전, 사진전(속초, 혼춘), 아동화거리축제, 궁도분재전, 꽃꽂이전, 우리꽃, 견오징어공예, 국악초청공연, 시민강좌발표, 게이트볼, 잔풍떡메치기, 청소년행사(풍물겨루기, 댄싱, 길거리농구, 씨름, 자통놀이, 투호, 널뛰기, 뼈에로장대인간, 줄다리기)

◆**곶길거리**: 통일염원동산대회, 통일풍선나뉘주기, 시식회(이복음식, 6.25회상음식), 어선무료승선, 도자기제작, 꽃누르미, 디지털사진촬영, 갯배골기





2004 설악문화제

향토민속축전



우리나라 전통마상무예단이 축제의 둘째날 우리민족의 전통무예를 시연하며, 속초의 전통민요인 도문메나리농요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행사장내에서는 씨름, 그네, 투호, 널뛰기가 지역주민 참여의 장으로 마련되며, 궁도장에서는 강원도시, 군 군사들의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견오징어와 야채·과일을 이용한 공예작품이 전시되며 시민들이 틈틈이 연마한 기량을 선보이는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사물놀이, 가야금 발표의 기회도 마련된다.

널뛰기 속초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전통 민속 경기로 애함심과 우정을 다지는 다양한 민속경기가 축제의 흥겨움을 더해 줍니다.

마상무예시연 (2004. 10. 16/10:30~11:00)

- 장 소 : 행사장
- 내 용 : 전통 마상무예단 초청
전통무예 시연

도문메나리농요시연

(2004. 10. 16/11:00~11:30)

- 내 용 :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문화관광부상 수상작
- 장 소 : 행사장

그네 (2004. 10. 16/11:30~12:30, 16:00)

- 내 용 : 동대항 개인(3명)·단체전
부문별 1~3등 시상
- 장 소 : 행사장

전통궁중혼례시연 (2004. 10. 16/13:00~16:00)

- 전통궁중혼례식, 어가행렬
- 장 소 : 행사장 주무대

널뛰기 (2004. 10. 16, 14:30~16:00, 16:00~)

- 주 관 : 속초농업협동조합장
- 동 대항 단체(여자 5명)
- 장 소 : 행사장

씨름 (2004. 10. 16~10. 17/10:30~11:30, 16:00)

- 내 용 : 1일차: 단체예선
2일차: 결승전, 개인전
- 동 대항 단체, 개인전(남·여 각 3명)
- 초등부 단체, 개인전(10개교 5명)
- 장 소 : 행사장

궁도대회 (2004. 10. 16~10. 17, 10:00~)

- 강원도 남,녀 궁도대회 및 시장기대회
- 장 소 : 설악정 궁도장(종합경기장내)

견오징어야채·과일 공예전시회

(2004. 10. 16~10. 17)

- 장 소 : 행사장전시장
- 내 용 : 견오징어 공예품 80점
야채·과일공예품 20점 전시

시민강좌발표회

- (2004. 10. 17/11:00~12:00/스포츠댄스)
- (2004. 10. 17/13:00~14:00/기체초와4)
- 3개기관 6종목 사물놀이 수상생 발표
-주민자치센터:스포츠댄스(4개동),기
-여성교육문화센터:부채춤, 가야금, 스포
-속초문화원:사물놀이(장구, 사물)
- 장 소 : 행사장

게이트볼대회

(2004. 10. 16~10. 17, 11:00~13:00)

- 방 법 : 동 대항
- 장 소 : 환동해교류센터4부지

자동놀이 (2004. 10. 17/13:00~14:00, 16:00~)

- 방 법 : 자치기와 틈틈이 합친 동
- 장 소 : 행사장
- 참여인원 : 동별 6인1조(토너먼트)

돌다리기 (2004. 10. 17, 14:00~15:00)

- 주 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
- 동 대항 토너먼트 : 남20명, 여
- 장 소 : 행사장

투호 (2004. 10. 17/11:30~12:30, 16:00)

- 주 관 : 속초양양축산업협동
- 동 대항 단체(여자 5명)
- 장 소 : 행사장

전통떡배치기

(2004. 10. 17/15: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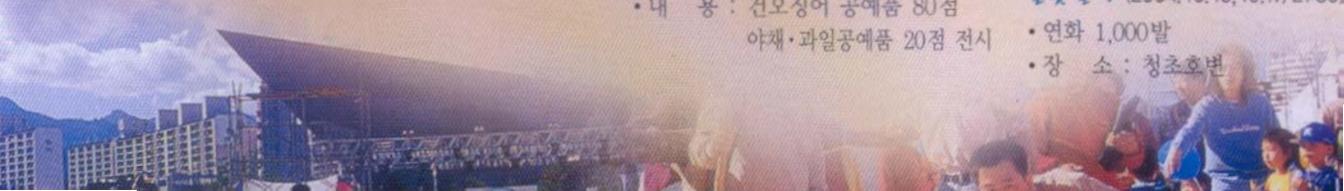
- 방 법 : 동대항 떡매치기 경연
- 장 소 : 행사장

캐릭터한배점유영 (2004. 10. 16~17)

- 방 법 : 장대인간, 나래이터모
페이스페인팅, 행사안
- 장 소 : 행사장

불꽃놀이 (2004. 10. 15, 10. 17/21:30)

- 연화 1,000발
- 장 소 : 청초호변



2004 설악동우회

통일염원제전

민족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슴에 안고 축제 첫날에는 권금성 봉화대에서 통일염원 대제가 개최되며, 둘째날에는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는 갯마당판굿과 인기가수들이 초청되는 통일염원의 밤이 개최되어 실향민의 애환을 달랜다.

실향민의 애환을 상징하는 갯배끌기대회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되며, 축제기간중에는 이북음식과 6.25전쟁 회상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시식하는 실향민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통일염원의 밤 (2004. 10. 15/19:00~21:00)

- 내 용 : 힙합댄스
제1부/갯마당판굿, 대학생치어러더
제2부/라디오공개방송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갯배끌기대회 (2004. 10. 16/13:00~14:30,16:00)

- 주 관 : 설악동우회
- 방 법 : 모형 갯배 2대제작
- 동대항 토너먼트 7명(키잡이1, 남3, 여3)
- 내 용 : 경연대회 및 체험행사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이북음식 전시·시식 (2004. 10. 16~10. 17)

- 내 용 : 시식회(이북음식, 6.25 회상음식)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통일풍선 나뉘주기 (2004. 10. 16~10. 17)

- 내 용 : 행사장을 찾는 시민·관광객에게 무료지급
통일분위기 조성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갯배끌기대회

실향민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며 축제의 흥을 돋구는 체험행사이며 KBS 인기드라마인 가을동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갯배를 누가 먼저 가장 빨리 끄는지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2004 설악문화제

설악예술축전



거리시·화전, 속초지역 작가 및 훈춘시 촬영가 협회 초청 사진전, 분재전시회 꽃꽂이전시회, 우리꽃 명품전 등 전시회와 설악서예백일장, 설악가요제, 설악아동화거리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행사로 개최되며, 야생화 꽃누르미로 열쇠고리를 직접 제작해 보는 시민참여행사의 장도 마련된다.

행사장 무대에서는 중국 훈춘연변 꽃봉우리 소년예술단의 공연과 흥겨운 국악초청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거리시·화전 거리시·화전과 사진전시회를 배경으로 훈춘예술단공연,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공연 등 다양한 예술축전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거리시·화전 (2004.10.16~10.17)

- 출품인원 및 작품 : 30명 60작품
- 장 소 : 행사장일원

2004 설악가요제 (2004.10.16/19:00~20:00)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무대
- 예심을 통해 본선 15명내의 선정 경연

설악아동화거리축제 (2004.10.16~17)

- 내 용 : 작품전시, 어린이참여작품제작
- 장 소 : 행사장일원
※ 종이접기체험

설악서예백일장 (2004.10.16/13:00~)

- 장 소 : 학생체육관
- 참가범위 : 초, 중, 고, 대학생, 일반
- 참가부문 : 한글부, 한문부, 시군자부

속초 지역사진가 합동사진전

(2004.10.16~10.17)

- 내 용 : 작품전시 80점
- 장 소 : 행사장내 전시장

훈춘 촬영가협회 초청사진전

(2004.10.16~10.17)

- 내 용 : 훈춘사진가 작품 40점 전시
- 장 소 : 행사장내 전시장

연변꽃봉우리 예술단공연

(2004.10.16/20:30~21:30)

(2004.10.17/20:30~21:30)

- 대 상 : 연변꽃봉우리소년예술단
- 장 소 : 행사장무대

도자기체험교실 (2004.10.16~10.17)

- 내 용 : 도자기제작시연 및 체험
- 장 소 : 행사장전시장

분재전시회 (2004.10.16~10.17)

- 내 용 : 분재 100여점 전시
- 장 소 : 행사장전시장

꽃꽂이전시회 (2004.10.16~10.17)

- 내 용 : 꽃꽂이작품 60여점 전시
- 장 소 : 행사장전시장

2004 전국우리꽃명품전

(2004.10.16~10.17)

- 내 용 : 우리꽃작품 161점 전시
- 우리꽃사생대회, 수상작품 전시, 전국유명작가작품전시
- 장 소 : 청초호상설이벤트장

야생꽃누르미전시회

(2004.10.16~10.17/10:00~17:00)

- 내 용 : 시민참여행사
- 장 소 : 관광정보센터 세미나실
(※ 열쇠고리 제작)

디지털사진 무료촬영

(2004.10.16~10.17/11:00~16:00)

- 대 상 : 관람객
- 장 소 : 행사장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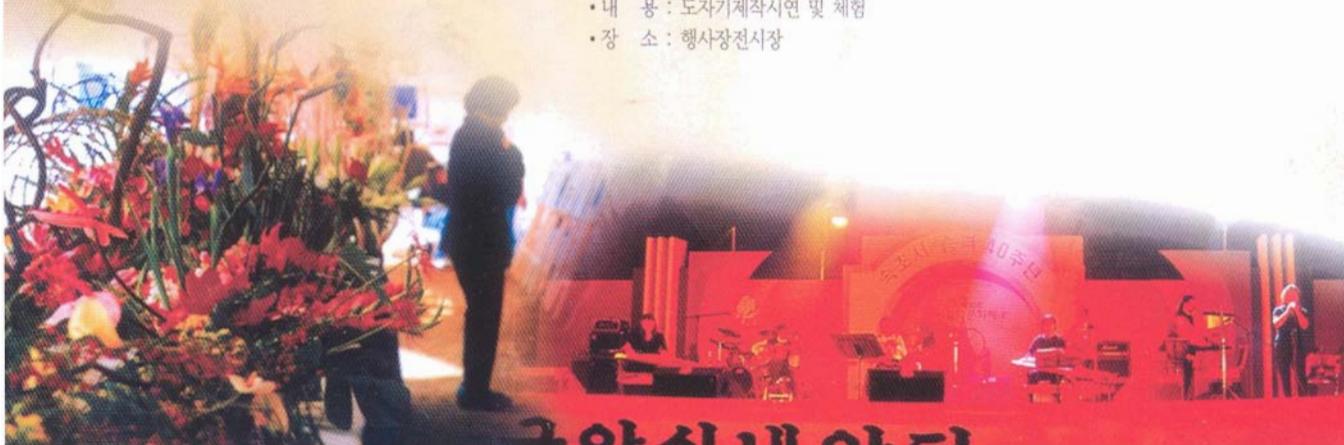
속초 청소년 챔버오케스트라공연

(2004.10.16/20:00~20:30)

- 대 상 : 관람객
- 장 소 : 행사장 주무대

국악초청공연 (2004.10.17/19:30~20:30)

- 출 연 : 고구려
- 장 소 : 행사장무대



2004 설악문화제

해양문화제전

해양문화제전은 푸른 동해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생업활동을 경기화하여 재미를 더한 행사이다.

속초수협과 어촌계에서 범선노젓기, 로프던지기, 오징어활복경기가 행사장에서 펼쳐지며 속초지역에서 나는 해산물과 건어물의 시식과 판매센타가 만들어진다. 행사 기간중에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어선에 무료승선하여 어민의 삶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되며, 시민·관광객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다.

범선경기 (2004.10.16/14:00~)

- 내 용 : 출발점에서 반환점을 돌아오는 경기 (선착순:1,2,3순위 결정)
- 장 소 : 청초호
- 선 수 : 각 어촌계별 2명씩 출전
- 범 선 : 각 어촌계별 1척 준비(범선8척)

로프던지기 (2004.10.16/14:00~)

- 내 용 : 반지름 1m의 원안에서 2회 멀리 던진거리를 합산하여 결정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 선 수 : 각 어촌계별 2명씩 출전 ※시민,관광객 체험행사

둔대질놀이 (2004.10.16/14:00~)

- 내 용 : 준비한 범선에 2명의 선수를 태우고 준비된 둔배를 이용하여 10M거리까지 빨리이동
- 장 소 : 청초호유원지상설이벤트장
- 선 수 : 각 어촌계별 6명씩 출전

어선승선 무료체험

고기잡이배를 타고 선상에서 설악산과 청초호를 유람할 수 있는 체험 행사로 속초어민들의 애환과 삶을 직접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해양문화제전중의 하나입니다.

오징어활복경기 (2004.10.16/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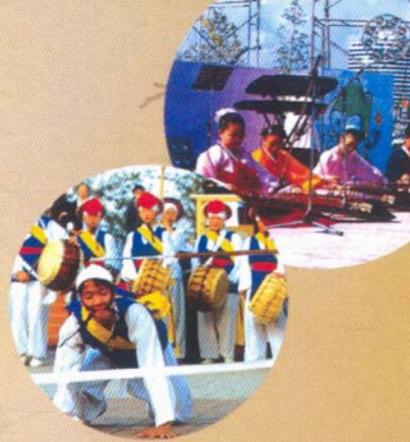
- 내 용 : 냉동오징어 6PN을 활복하여, 건조대에 건조완료 순으로 순위결정
- 장 소 : 행사장내
- 선 수 : 각 어촌계별 2명씩 출전

어선승선 무료체험 (2004.10.16~10.17/11:00~15:00)

- 내 용 : 어선5척에 4~5명씩 태우고 청초호내 선회 ※시민,관광객 무료체험 (1일 1척당 5회미만 운행)



2004 설악문화제 청소년문화축전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우리민족의 전통음악인 사물놀이와 농악 경연대회인 전국청소년풍물겨루기 한마당이 상설공연장에서 저마다의 기량을 펼쳐보이며, 강원도청소년댄싱경연대회도 개최되어 흥겨운 음악과 함께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이 신명나게 펼쳐진다.

2004 강원도 청소년 댄싱경연대회 (2004. 10. 16/14:00~17:00)

- 대 상 : 강원도내 중, 고교생
- 장 소 : 상설공연장
- 경연시간 : 10분이내
- 시 상 : -강원도지사상
-속초시장상,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제2회 전국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2004. 10. 16~10.17/11:00~)

- 대 상 : 전국초, 중, 고교생, 만19세이하 청소년
- 참가부문 : 사물놀이(얇은반, 선반), 농악
- 장 소 : 상설공연장
- 경연시간 : 사물놀이 10분, 농악 25분
- 시 상 : -문화관광부장관상, 교육인적자원부장
-강원도지사상, 도교육청교육감상(3)
-속초시장상, 속초교육청교육장상
-설악문화제위원장상

청소년 걸거리 농구대회 (2004. 10. 16~10.17)

- 방 법 : 중등부, 고등부 조별리그
- 장 소 : 청초호유원지 농구장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우리의 문화를 기르고 보존해 나갈 주역인 청소년들이 신명나는 풍물겨루기 한마당으로 우리고유의 문화를 다시한번 소중한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04

전국 청소년

풍물겨루기 한마당



일 시 2004 10. 15 ~ 17
장 소 속초시 청초호유원지 (EXPO상징탑)

주 최 설악문화제 위원회, 속초문화원
주 관 사단법인한국국악협회 속초시지부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수상내역

구 분	훈 격	사물놀이		농악부분
		초등부	중·고등부	초·중·고등부
종합대상	강원도지사상			부평여자공업고등학교
장 원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강릉)남산초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동국대학교총장상			원주농업고등학교
차 상	속초시장상	(청주)덕성초등학교	임계고등학교	
	속초교육청교육장상			(파주)교하중학교
차 하	한국국악협회이사장상	원통초등학교	속초고등학교	정선중학교
장 려 상	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용대초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춘천)송화초등학교
특 별 상	실악문화제 위원장상	청대초등학교 해안초등학교		
특 별 상	속초문화원상		주문진중학교 속초여자중학교	
지 도 상	강원도교육청교육감상			(전윤수)교하중학교
계		12개교		5개교



설악문화제



서리



2004 사진으로 / 보는

문화원 / 동경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_ 서예교실 _



강좌명	요일/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태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동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동진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병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_ 장구 · 사물놀이 교실(초 · 고) _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태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동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동진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병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_ 노래교실 _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태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동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동진
서예교실	화, 금 / 10:00~12:00	지응준
노래교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병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요리교실



강좌명	요일 / 시간	강사
장구교실(초급)	월, 목 / 10:00~12:00	김 태 희
사물놀이(초급)	월 / 13:00~15:00	주 동 진
사물놀이(중급)	목 / 13:00~15:00	주 동 진
서 예 교 실	화, 금 / 10:00~12:00	지 응 준
노 래 교 실	화, 금 / 14:00~16:00	최봉하, 이근순
전통요리교실	토 / 10:00~12:00	김 병 학

속초문화원

속초시 영랑동 570-5
문의전화 632-1231/639-2439
전자우편 sc1241@sokcho.org



2004 문화의 날

속초문화원의 경사

최용문 원장 ‘문화 훈장’ 수훈

속초문화원 최용문(崔龍文) 원장이 문화 훈장(화관)을 수훈했다.

최 원장은 향토사와 향토 민속, 문화재 현상 분석과 보존 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사회 문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10월 20일 오전 10시, '2004 문화의날' 서울 정동 극장 문화의 날 행사장에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문화 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프로필 / 속초 중·고 졸, 성균관대 법과 졸, 서울신문사 기자, 속초고교 총동창회 회장, 속초시 번영회 부회장(현), 설악문화제 부위원장(현), 속초문화원 원장(현),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속초시 문화상 수상, 강원도 도지사 표창, 평통자문회의 공로상,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 사진 =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효행청소년 명단

학 교	표창대상자	졸업일시	졸업장소
대포초등학교	빈준영	2.13(금) 10:00	급식실
청호초등학교	김하하	2.17(화) 10:30	본교강당
조양초등학교	김수진	2.18(수)	
교동초등학교	이정현	2.18(수) 9:30	속초중체육관
소야초등학교	안태준	2.19(목) 10:00	
중앙초등학교	김은비	2.19(목) 10:00	다목적실
청대초등학교	류승우	2.19(목) 10:00	체육관
설악초등학교	박현준	2.20(금) 10:30	다목적교실
영랑초등학교	정초운	2.20(금) 10:00	2층 체육관
속초초등학교	이가을	2.20(금) 10:00	운동장
온정초등학교	강민경	2.20(금) 10:00	본교교실
설악여자중학교	조아라	2.13(금) 11:00	속초여고체육관
속초여자중학교	진초의	2.13(금)	
설악중학교	장훈순	2.13(금) 10:30	본교체육관
속초중학교	이규혁	2.13(금)	속중체육관



제24회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1만여 시민들 세시풍속 즐겨

속초문화원은 우리민족 최대의 세시풍속 정월대보름맞이 잔치를 2월 5일 엑스포장에서 성대히 베풀었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날의 민속놀이 한마당잔치는 속초문화원, 속초시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속초 새마을금고 연합회, 속초시 수협, 속초신협, 속초·양양 축협, 설악한화리조트, 갯마당의 주관으로 열려 1만여명 시민이 참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내용은

행 사 명	주관단체
널 뒤 기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떡메치기	속초 새마을금고 연합회
연날리기	속초시 수협
웃 놀 이	속초신협
투 호	속초·양양축협
제기차기	설악한화리조트
액집태우기	속초문화원
지신밟기	갯마당



2004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 공연일 : 2004. 7. 10 ~ 8. 28 · 장 소 : 설악해맞이공원 야외무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후원 : 강원도, 속초예총, 속초민예총, 갯마당

Summer Night Cultural Festival



공연안내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출 연
7/17(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7/18(일)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전통무용	양속희무용단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N.O.M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7/24(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1:20	군악대와 함께	22사단 군악대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7/25(일)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N.O.M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7/30(금)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1:30	국악과 함께하는 海夜	고구려 예술단
	21:3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8(일)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전통무용	양속희무용단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N.O.M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11(수)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1:20	군악대와 함께	22사단 군악대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일 자	시 간	행 사 내 용	출 연
8/13(금)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14(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15(일)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전통무용(부채춤)	양속희무용단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N.O.M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18(수)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1:20	군악대와 함께	22사단 군악대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20(금)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전통무용	양속희무용단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21(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22(일)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N.O.M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8/28(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갯마당
	20:30~20:35	힙합댄스	달짝지근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최경복
	20:55~21:20	통기타와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21:20~	품바공연	김귀선 외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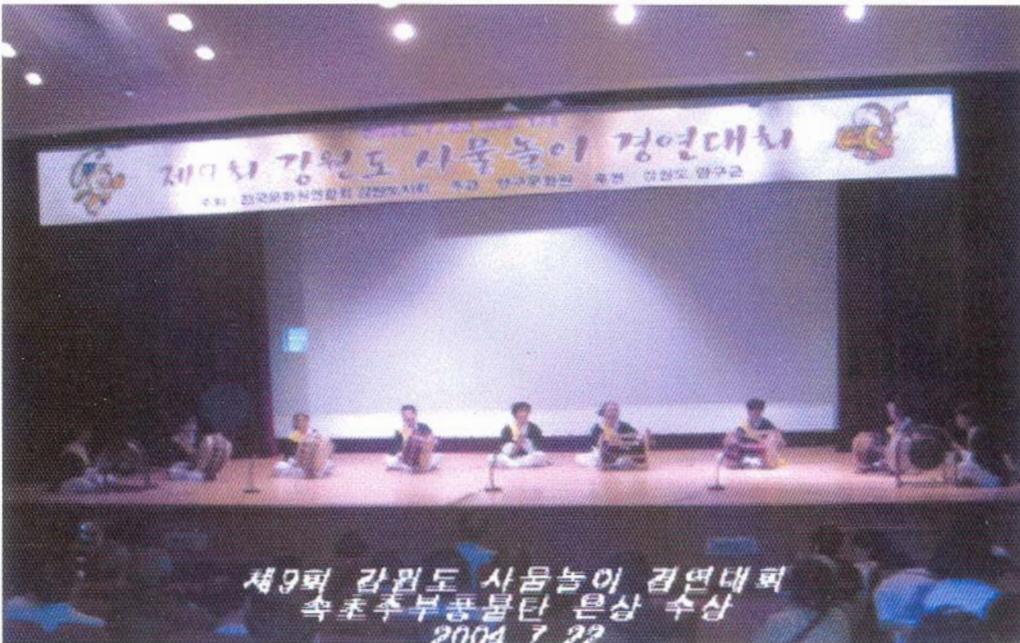


제10회 강원도민의 날 7/10(토)
 19:30~20:30 전통국악공연
 20:30~20:35 전통무용(부채춤)
 20:35~20:55 색소폰과 함께
 20:55~21:20 락그룹과 함께
 21:20~ 품바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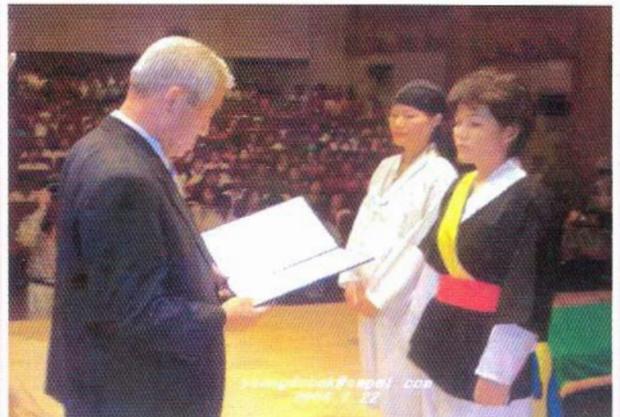
속초주부풍물단 은상수상

- 7월 22일 양구 / 사물 경연 -

양구문화복지센터에서 펼친 제9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 '속초주부풍물단(대표 주동진)'이 출연하여 은상을 차지했다. 폭염이 기염을 뿜는 열기 속에서 15개 풍물단이 겨룬 이번 경연에서 '속초주부풍물단'은 잡스러움이나 번거로운 기교가 배제된 정통 풍물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주부들 모습이 자랑스롭다.



제천(祭天) 의식에서는 반드시 놀이와 음악이 빠질 수 없었다. 이것이 굿의 전통으로 대동(大同)의 굿판에서 음악의 모습은 당연히 '두들소리', 즉 타악이 그 시초이며 기본이었다. 무언가를 두드려서 무리를 하나되게 하고 그 하나된 무리의 힘을 모아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서 짝튼 것이며 이것이 곧 '사물놀이' 시원(始原)이다.



2004 제8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2004

- 주최 : 속초문화원
- 주관 :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
- 기간 : 2004년 7월 25일~7월 29일
- 장소 :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
- 후원 :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청소년 여름 풍물학교

♣ 행사내용 및 강좌

구 분		강 사	강의내용	비 고
일 반 강 좌	풍물기초반	김소희 (갯마당 기획단원)	· 풍물놀이란 무엇인가 · 악기의 기본타법과 연주법 · 가락의 구성과 종합실기	
	사물놀이반	주동진 (갯마당 기획단장)	· 사물놀이란 무엇인가 · 사물놀이의 구성원리 · 장단운용의 실제	
	설장구반	전성호 (갯마당 기획단원)	· 설장구가락 익히기 · 장단의 변형과 운용 · 설장구가락의 흐름 이해	
	판굿반	김동연 (갯마당 기획단원)	· 판굿의 흐름 · 기본 너름새 익히기 · 판굿 구성의 기본원리	
	상모반	김태희 (갯마당 기획단원)	· 상모의 기본 · 기본 너름새와 발마치 · 소고 놀이 기본	
	상모판굿반	박치영 (갯마당 공연팀장)	· 상모의 기본 · 기본너름새와 발마치 · 진풀이와 개인놀이 · 상모판굿	
공 통 강 좌	단소/민요	고광민 (국악협회 속초지부대금강사)	· 단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 태평소 운지법과 소리내기 · 연주의 실제	
	탈춤 및 택견	박현기 (민족무예24반 동해지부장)	· 기본 몸풀기 · 탈춤 기본무 · 택견 기본 폼새	



2004년은 강원방문의해

산, 바다, 호수, 온천. 매력의 도시 속초
강원 속초에서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느껴보세요

Peace City Sokcho

서비스 인터넷인증제 실시 안내

- 숙박 음식점소 요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숙박업소 : 인터넷에 공개된 숙박 요금만 받습니다.
- 음식점소 : 서비스 실명제로 친절과 정으로 서비스합니다.

행사안내 : (033)639-2541~2
 교통안내 : (033)639-2366
 관광안내 : (033)639-2568
 국번없이 1330

<http://www.sokchotour.com>

여유로운 삶의 휴식

제 5회 이야기가있는

해변음악회

동해안에서 ~ 서해안까지

2004. 7. 23 (금) 오후 7시 / 충남 부여 공남지 야외무대

7. 28 (수) 오후 7시 / 강원 철원 고석정 야외무대

7. 29 (목) 오후 7시 / 강원 속초 속초 해수욕장

7. 30 (금) 오후 8시 / 강원 삼척 삼척 해수욕장

7. 31 (토) 오후 7시 / 충남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

주최 :  문화뱅크 후원 : 문화관광부, 충청남도, 강원도

주관 : 부여군, 철원군, 속초시, 삼척시, 보령시(웅천JC)

협찬 : SHARP

공연문의 : (02)2232-1148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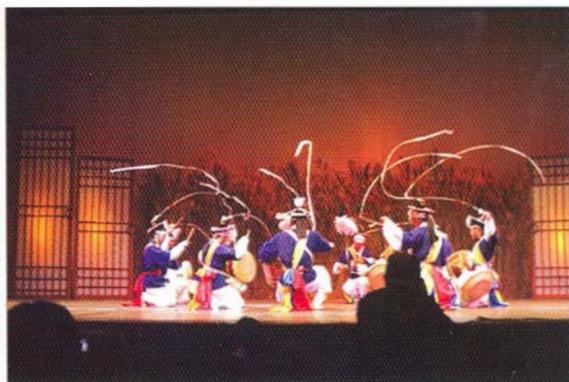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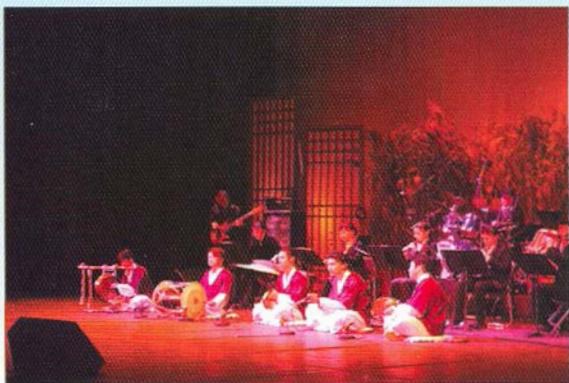
- 속초 '도리원농악' 공로상 수상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가 9월 17일~18일 이틀간 동해시 망상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 강원도와 KBS춘천방송총국이 주최하고 동해문화원이 주관한 금년 강원민속예술축제는 18개시·군 민속단 총902명이 참가해 열연했다. 농악 8, 민속 8, 민속극 1 작품이 선보이는 가운데 화천의 「거북둔지농목장치기」가 최우수상, 평창의 「서낭굿농악」이 우수상, 그리고 속초의 「도리원농악」등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도상에는 오일주(화천 거북둔지농목장치기), 연기상은 엄상원(속초 도리원농악)이 수상했다.

강원민속예술제는 지금까지 270개종목(민속놀이 196, 농악 35, 민요 26, 기타 13종)을 발굴하여 대통령상 2회(횡성 회다지소리, 철원 상노지경다지기)와 국무총리상 5회 수상하였으며, 7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실적을 낳았다. 도민속예술축제는 그간 지역전통민속의 발굴과 재현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출연단 구성이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는 개최 주기를 격년제로 변경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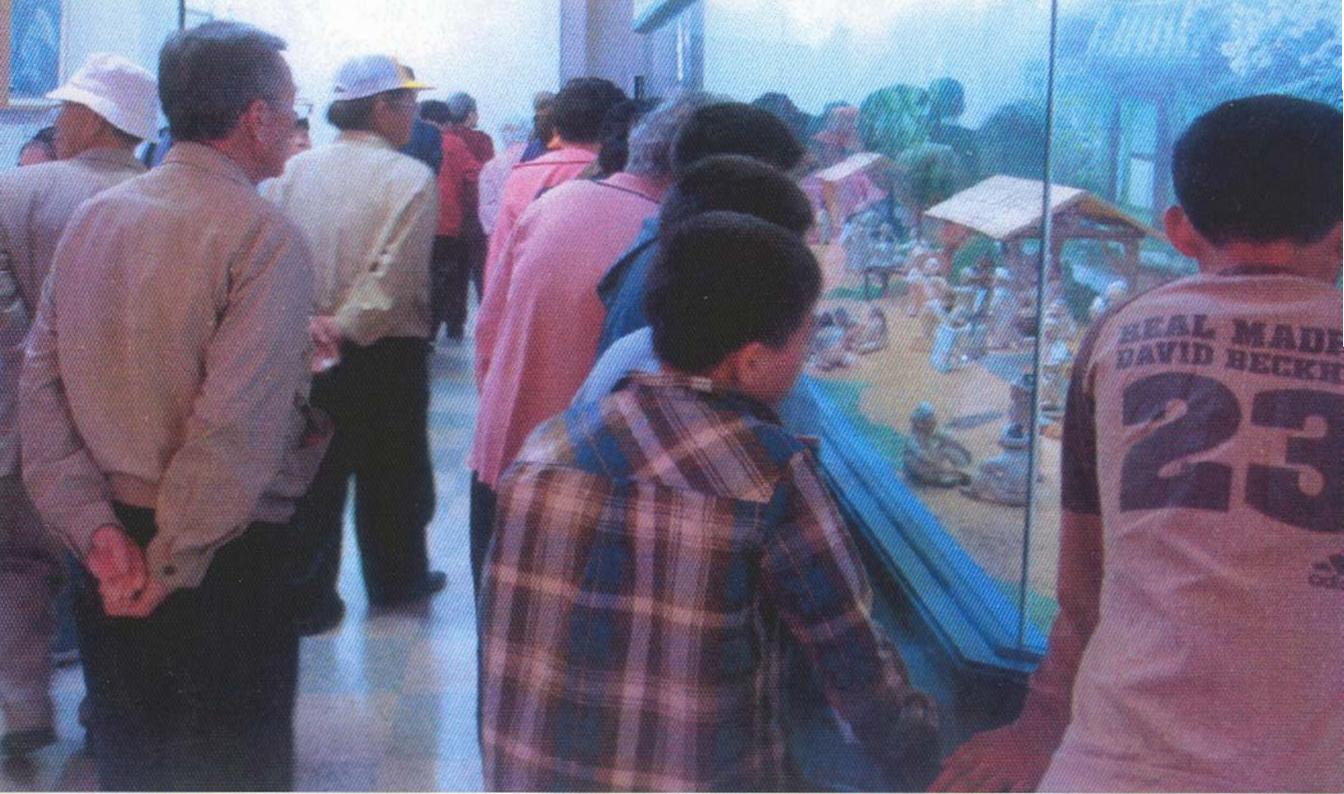


2004 갯마당 정기연주회

굿+타악 소리굿 '四季' 선사

영북민속문화연구회 갯마당(대표 지태수)이 11월 20일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굿+타악 소리굿 '四季' 를 공연, 1천여 관객을 매료시켰다.

우리소리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전하는 모듬북을 시작으로, 밴드의 격정적인 음색과 가야금의 서정적인 선율이 하나되는 경기 도당굿 공연이 화려하면서도 절제된 음색을 들려주었다. 이어 동해안 무속타악 연주 '청배무', 이화자의 '한량무춤' 이 생동감을 더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갯마당의 '소리날려 흩어지고' 판굿공연은 가락과 너름새, 윷놀이, 밀놀이, 재주 등 풍물이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자랑하였다. 특히 독특한 개인놀이와 경쾌한 장단의 무등놀이는 이날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풍물패 갯마당은 속초시가 계획하는 시립예술단 창단의 주역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 속초문화원이 1, 2차로 시행



속초문화원은 관내 국민기초수급대상 및 소년소녀가장 160명에 2004 통합복권기금 문화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했다.

1차로 10월 26일, 2차로 10월 28일 속초향토사료전시관,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 석봉 도자기 미술관, 정동진 통일안보공원, 오죽헌 등을 찾아봄으로써 지방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장이 되었다.





화랑의 발자취를 따라서!

화랑도 체험



신라 화랑의 정신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속초시 영랑호 화랑체험장이 완공, 6월 30일 개관되어 각광을 받고 있다.

속초시가 영랑호변(장사동 415) 15,576㎡의 부지에 공연장, 보조승마장, 체험장과 관람장 등을 갖추어 사)한민족 전통 마상무예·격구협회(회장 김영섭)에 맡겨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영랑호 화랑체험장은 신라화랑·영랑의 정기를 재현한 화랑체험장의 전통문화를 통해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전통마상무예 및 승마체험을 활용, 청소년과 시민들의 심신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내·외국 관광객들에게 우리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등 현장체험을 통한 문화관광 상품화를 꾀하는 뜻을 가진 것이다.

- **상설공연 관람** - 마상무예 : 말을 타고 산천을 주유하며 호승심과 호국정신을 길렀던 옛 화랑들의 모습을 느낌
 - 마 상 재 : 말을 달리며 말등을 넘나들고, 말위에 서기, 옆에 매달리는 등 자유자재로 말을 다루는 기술
 - 격 구 : 마상무예와 마상재를 능수능란하게 하기 위한 기마 훈련의 하나로 세계에 유일한 스포츠
- **화랑도 체험** - 기초승마체험 : 말을 타 봄으로써 느끼지 못했던 자긍심과 호승심, 진취적 기상을 키워 나감
 - 활쏘기 체험 : 적을 근접 및 장거리에서 살상할 수 있으며, 특히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면 화살의 속도가 배가되어 적에게 더한 위협을 가함
 - 지상격구 및 보격구 : 말을 타고 하기 위한 연습으로 지상에서 자유자재로 장시와 구를 다룰줄 알아야 한다. 또한 단체경기로서 팀간의 협동심을 기름
 - 공성무기(투석기)체험 : 고대 공성무기의 하나로 전투에서 상대의 성을 공격하던 무기이며, 체험을 통하여 제작 및 사용원리를 익힐 수 있고, 고대의 전투에 대하여 이해력을 높임.
- **기타체험 및 일반수련** - 기타체험 : 당일체험, 1박2일 체험, 2박3일체험, 도인법 무료 수련

사)한민족 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는 앞으로 계속하여

- 속초를 찾는 수학여행단체의 코스화 :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의 기회마련

- 거북선 및 판옥선 운행 : 범바위까지 오는 관광객들의 체험지로의 유도 및 세계유일의 거북선 및 전통한선을 타고 직접 노를 저어 운항하는 체험 시설 마련으로 관광객의 유치 및 영랑호의 자원화

- 편자던지기, 재죽구, 투호, 단체줄넘기 등 전통놀이 체험종류의 추가계획 및 시설확충

- 실내공연장 및 교육장을 갖추어 전천후 체험장 체계 확립

- 성벽 등의 시설 확충으로 공성무기 등 추가 제작설치 (예:운제등)

- 합숙체험과 생활관 시설확충

※ 안내 및 문의

□ 한민족 전통 마상무예·격구협회

- 대표전화 : (033)637-3400~3500

- FAX : (033)637-3401

□ 관련 Home Page

- 속초시청 <http://sokchotour.com>

- 마상무예협회 <http://www.chunghonda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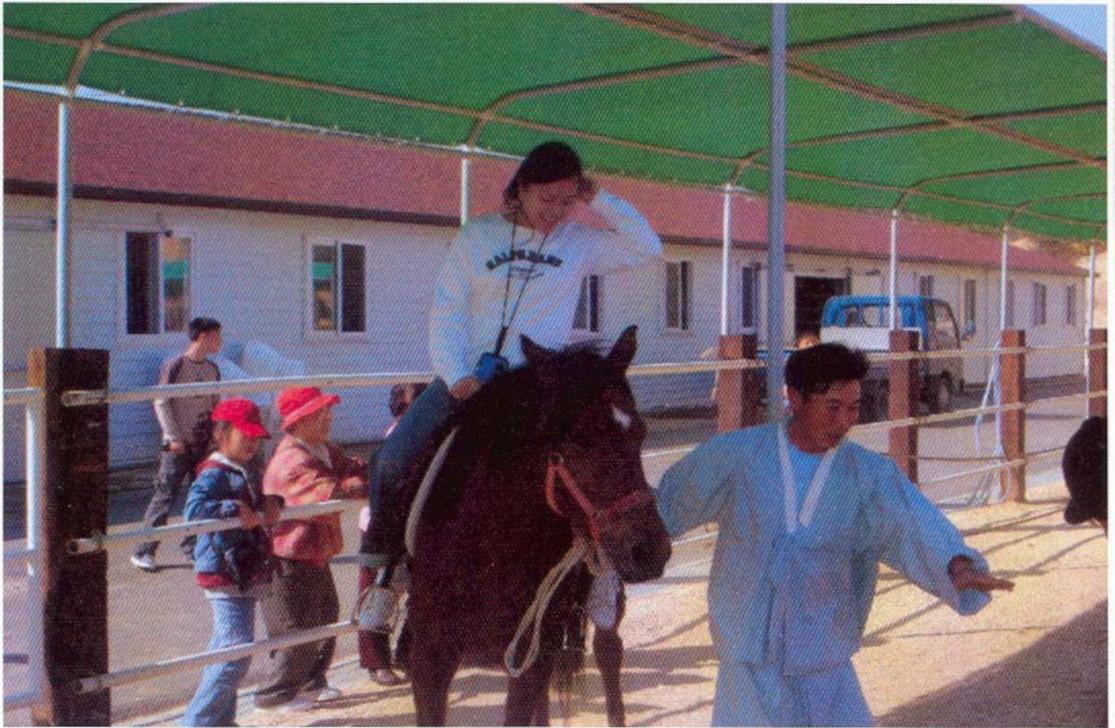
- 화랑도 체험 관광단지 <http://www.hwarangdoexperience.com>

기타 체험 당일 체험/ 1박2일 체험/ 2박3일 체험/ 도인법 무료 수련

무기술 수련(일반,합숙) 도, 검, 봉술, 창술









2004

문화학교 수료식 포토 갤러리





한국문화학교 12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 속초문화원 2004 총결산 -

2004년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제12기생 수료식이 12월 4일 속초문화회관 소강당에서 동문성 속초시장과 김정한 속초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수료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날 서예교실 수강생들의 작품 50여점이 전시된 전시실에서 개전식을 시작으로 이어 치러진 수료식은 문화관광부장관 명의 수료증이 장구와 사물놀이, 서예, 노래, 전통요리교실 5개 강좌 200명 수강생들에게 수여됐다.

한국문화학교는 지난 1993년 향토문화학교로 열어 장구와 사물놀이 등 다양한 문화교실을 개설,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으며 그동안 2,7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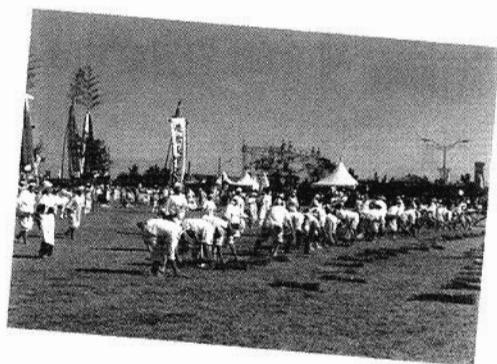
더하여 서예와 가요, 전통요리교실, 사물놀이, 노래교실 등의 문화교육을 매주 운영하며 강원도단위 및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여러 차례 우수한 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얻고 있다.



84 / 創刊號



東草文化院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

▲ 사진 1

▲ 사진 2

사 무 국

《속초문화》표지 제자(題字)에 대한 고찰

— 창간호(1984)에서 제20호(2004)까지

《속초문화》지가 1984년 창간되어 2004년까지 제20호를 내놓는다.

창간의 역사가 20년에 이르러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하였다. 알게 모르게 속초 지역은 물론 영북 지역에 문화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분담에 기여한 바 작지만은 않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 고장 문화의 전달자로서 문화의 향수(享受) 기반 인프라를 다지기 위해 자유롭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발간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실 만으로도 얼마나 문화원이 문화의 전달 매체로서의 비중을 싣고 있느냐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제자를 고찰하면 1984년 창간호(사진1))의 제자는 김철홍(속초 고교 전 학교장) 선생이 당시 속초 여고 교감으로 재직시에 한자로 제자를 받아 1997년(제13호)까지 사용하였다.

그후 한글 전용화가 본격적으로 일반화되는 시류에 따라 제자 한글화의 요구가 원내에서 여론화되어 이를 한글화하기로 방침을 굳혀 1988년(제14호)부터 한글 제자를 사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른다(사진2)이 제자는 박영도(속초문화원 전 사무국장) 현재 편집인이 우리 글꼴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훈민 정음(訓民正音) 목판본에서 합성화하여 완성시켰다.



제 21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품



속초 도리원 농악

기 간 · 2004. 9. 17~18

장 소 · 동해시 평상 오토 캠핑 리조트 행사장

출연단체 · 속초 도리원 농악 보존회

고증 - 농사풀이 대신 개인놀이 · 동고리놀이 더하여 재연





△ 1950년대 말 속초 도리원 농악대 공연모습

'속초도리원 농악' 이 고증(考證)을 더 찾아 농사풀이를 빼고 개인놀이와 동고리놀이 등을 보강하여 재연하고 있다.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은 속초도리원 농악을 제15회, 제19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출품에 이어 올해 제21회 축제(9.17~18, 동해망상 오토 캠프장)에 출전, 공로상과 함께 임상원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작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도문메나리 농요'를 출품하여 금상(문화관광

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 '속초 도리원 농악'을 타지역의 농악과 거의 닮은 씨뿌리기와 모심기 등을 배제하고 개인놀이, 가마짜기등을 더하였으며, 출연진도 전문 농사꾼과 놀이꾼들이 대거 출연하여 '농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속초시와 문화원은 '속초 도리원 농악'을 '속초 도문메나리 농요'와 함께 문화재로 지정, 보존하는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엄상원(남·85세, 전 속초도리원 농악 상쇠)의 고증

“우리 아버지도 농악대에서 상벽구를 했거든, 아버지가 하두 따라오라구 해서 따라 갔는데 무동을 하라는 거야. 그 때부터 무동을 했지. 그 때 농악은 영동 농악두 짝금, 저기 농악도 짝금 해서 농악대를 꾸려가지구 설라무네 그걸 농악대라고 해서 다녔지. 그래도 가락은 빨라 가지구 경중경중 뛰어들어서 힘들어서 숨이 목까지 달렸어. 1910년에 그 때 경기도에 이설기란 양반이 도리원에 살라구 왔는데 쇠를 잘 쳤지. 그 양반이 경기농악을 가르쳤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구 마을농악대가 그 양반한테 도리원 농악을 맡겨가지고 도리원 농악이 맹글어 지게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와서 놀아달라구 하는거야. 그 때 생각하든 지금도 어깨가 들썩이지. 놀이두 많이 해가지구 오른 돈두 벌구 쌀두 많이 벌구했거든. 그래가지구 동네 앞 콩크리트 다리를 맨들었던거지. 나두 상무동을 하다가 품새가 낫거든 그래서 이설기 양반이 나한테 쇠를 해보지 않겠냐구 해서 배우구 싶다구 했더니 갈켜 주더라구. 그러다가 도리원 상쇠가 된거 아니우.”

고증자의 언급처럼 속초도리원 농악은 이설기 씨에 의해 경기농악이 가미된 색다른 농악을 전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30년대와 40년대 말까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성대하게 공연되었으나 50년대에는 전쟁과 경제환경에 의하여 잠시 중단되다가 5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또다시 새로운 속초 도리원 농악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여 남부지역(삼척), 서부지역(경기도 수원 등지)까지 연회를 하고 초청공연까지 다니면서 농악의 진수를 보였다.

그 당시 농사철이 끝난 후 연회를 하는데는 도리원 가장들은 집안을 장기간 비워야 했기 때문에 무동(아녀자 구성부문)을 15~18세 소년들로 편성하여 여성으로 분장시켜 무동 몫을 담당하여 연회를 하게 된 것이다.

김동섭(남·71세, 속초도리원 농악 양반 역)의 고증

“우리 조상이 전부 농악을 했어. 할아버지두 아버지(고, 김정대, 부쇠), 작은아버지(고, 벽구<법고>), 동생(김동수, 벽구)다 했는데 나는 따라만 다녔지. 그래서 도리원 농악을 다 알지.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갔구 따라 댕겼는데 그 때는 마을 회관앞에서 매일 하다시피 했어. 그 때 상쇠에 이설기, 부쇠에 우리 아버지, 부쇠에 이호영, 쇠납에 최중수, 무동 엄상원, 법구에 양춘석, 김동수 수도 없었는데, 가락이 빨라 가지구 보면 전부 숨이 목까지 차는데도 엄청 놀았지. 무척 보기 좋았어. 설날하구 대보름에는 크게 놀았구. 이리 저리 댕기는데 아녀자들이 바깥을 못 나가자누 그래서 무동을 15세



되는 애들루 여자루 맹글어 가지구 놀아주러 갔다오면 돈두 벌구 많이 벌구 올꺼 아니우. 그래서 다리두 났지. 6·25가 나서 잠깐 중단됐는데 그 후에 다시 농악대를 맹글어서 다니는데 아래와 저 경기도두 다니구 그랬어. 농악이 이설기가 경기도에서 선생을 했다구 그래. 도리원에 와서 갈켜가지구 양양이나 그 아래 지역에서 배우러 오구 그랬었지.”

이후 이농현상과 농촌인의 고령화로 도리원 농악의 전승 및 발전이 점점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전수가 되지 않아 도리원 농악이라는 이름만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다.

1990년 속초문화원에서는 도리원 농악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미 많은 분들이 작고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며, 1992년부터 농악의 부흥을 위하여 설악문화제에서 동대항 농악대 경연을 시작하면서 그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노학동을 찾아서 도리원 농악의 맥을 찾기 시작한 것은 1995년 12월로 속초 도리원 농악대의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등을 중심으로 재창단하게 되었다.

속초 도리원 농악대는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과 39번째 이어오는 설악문화제 개막식 후 공연을 하게 되었으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여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렇게 하여 지역의 몇몇 연희자들에 의해 공연된 1950년대 이전의 기록들을 재정리하고 고증에 따라 전승함으로써 전통민속문화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속초 도리원 농악의 전통을 있게 되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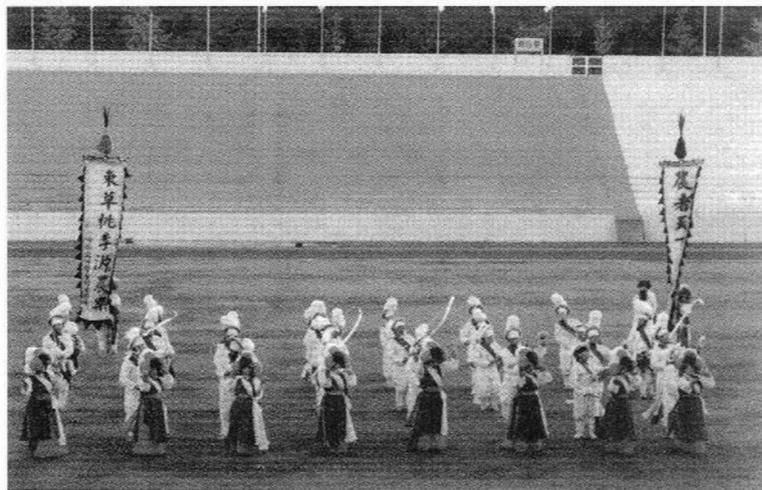
속초 도리원 농악의 판놀음

도리원 농악의 놀음은 인사굿, 달팽이진(황덕굿),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입구굿, 가마니짜기, 밭田字진(밭전자진과 건풍놀이), 글자놀이(도리원), 개인놀이(무동-소고-벽구-열두발 상모놀이),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진행된다.

속초도리원농악의 판놀음은 고층자들의 구술과 시연에 의해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도리원 농악의 놀음은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으나 농사풀이 부분이 가미되지 않았다. 예전에는 농사풀이로 씨뿌리기와 모심기 등을 했다고 하였으나 1960년대 말부터 타 지역에서 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므로 도리원 농악 출연단에서는 속초 고유의 농악을 재연하기 위해 1950년대 이전의 고층에 따라 개인놀이와 동고놀이를 보강하여 출연하게 되었다.

1. 인사굿

한일자로 된 대형으로 입장해서 정면에 정렬하여 인사를 한다. 인사굿을 마치면 삼채가락에 맞춰 원진을 만들고, 밭맞추기를 한다. 입장 12채(굿거리), 원진삼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입장 및 인사굿 첫째줄 무동, 둘째 벽구, 셋째 소고, 넷째 쇠·징 다섯째 장구, 여섯째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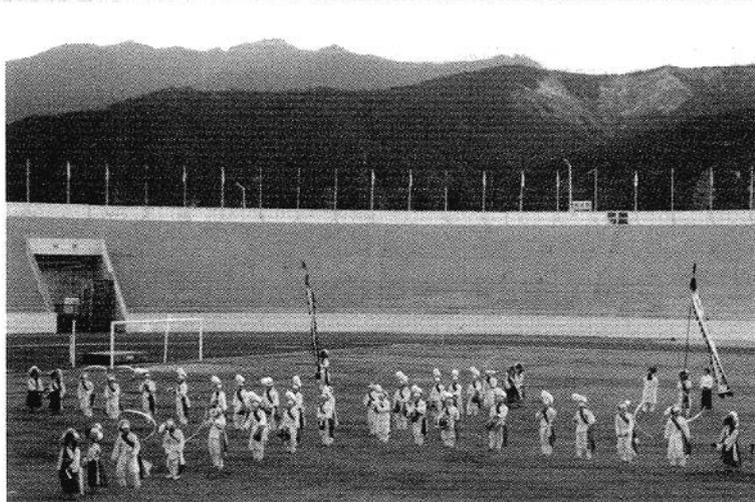


“농악이 들어가면 몸을 숙이구 엉거주춤하게 왼발, 오른발을 들었다 놔다 하면서 입장을 해, 인사굿은 한일자로 서서 인사하는데 무동이 앞줄, 벽구, 소고, 쇠, 징, 장구, 북 이리케 줄을 맵글어서 셋지. 인사하구 원진을 맵글어서 밭 맞추기를 오른쪽으로 여덟번 왼쪽두 여덟번가구 가라게 팽그르 돌았지.” 엄상원



2. 달팽이진

원진에서 삼채로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면서 다음 동작선으로 이동 준비한다. 삼채-사채-오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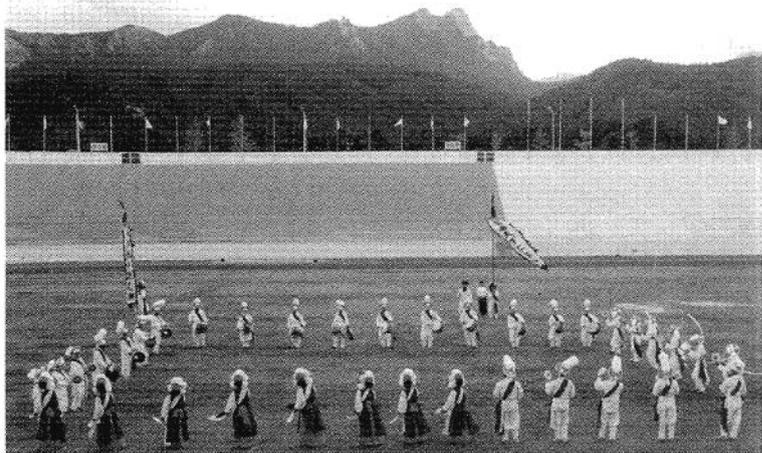
3. 십자진

상쇠가 이끌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일자로 만난다. 제자리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 한다. 건풍가락에 홀수는 제자리에서 가락에 맞추고 짝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십자진 대형을 갖춘다.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는데 상쇠가 재빠르게 나가서 쇠와 징이 번갈아서 빠져 나가게 해가지구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면서 만나게 되니까 한일자를 맨들게 아니우. 그때 건풍가락으로 해서 건풍놀이를 하면서 짝수쪽이 사이사이 빠져 가지구 오른쪽으로 돌면서 십자진을 맨들었지 뭐. 그래서 건풍놀이 박자에 발맞추기를 해서 열십자를 땡글머는 큰박수를 받았지.” 업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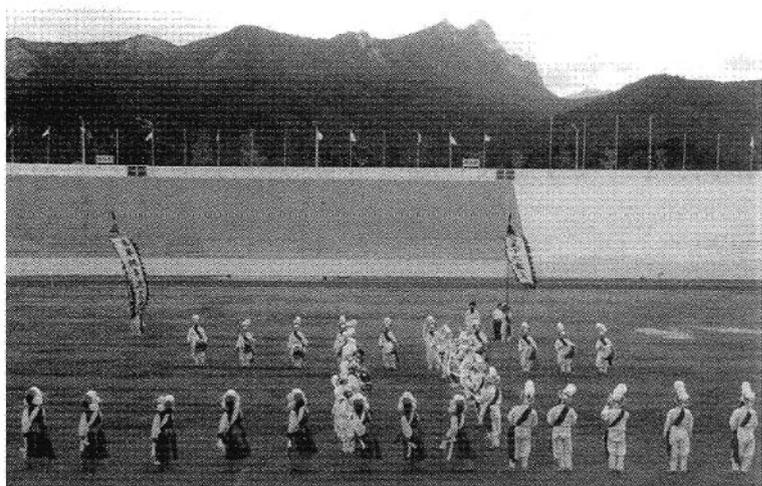
4. 입구자진(口)

십자진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 다음 가운데 상쇠로부터 원을 돌며 풀어나오게 된다. 쇠와 징이 세로의 한일자를 구성하고, 장구와 북이 가로의 한일자, 소고가 세로의 한일자, 박구와 무동이 아래의 한일자 대형으로 구성하여 사각의 입구자진이 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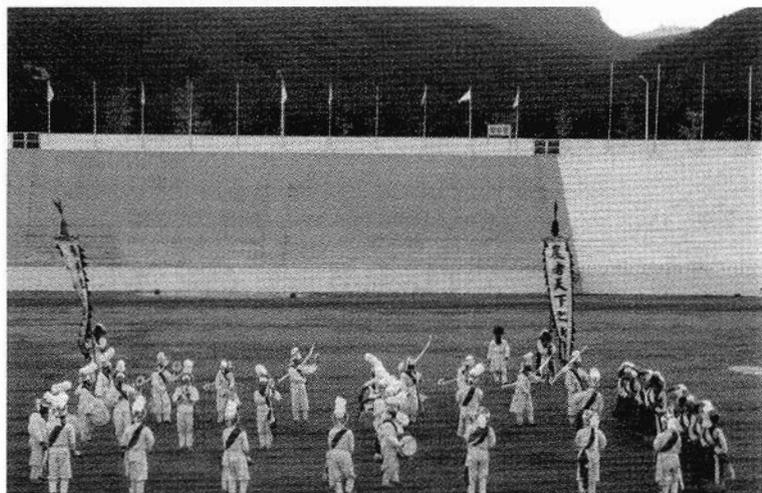


5. 가마니짜기

입구자를 만든 다음 쇠와 징의 줄과 소고가 자리를 서로 바꾼다. 지나갈 때는 서로 왼쪽어깨를 스치듯이 이동하고 그 다음 장구와 북, 무동과 박구줄이 자리를 바꾼다 다시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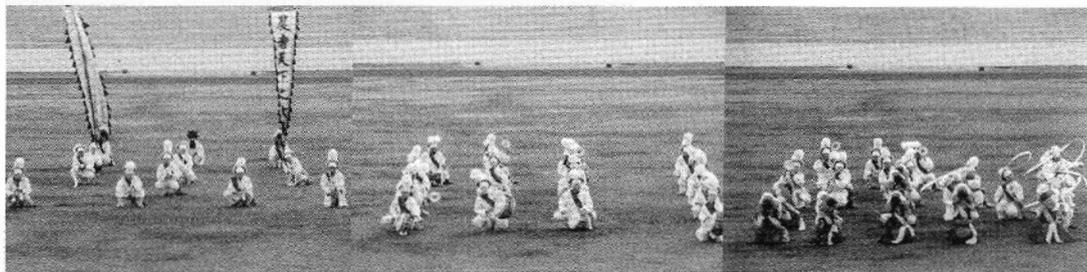


“진을 풀어서 입구자진으로 가는데 쇠하구 징이 하나, 장구 북이 하나, 소고가 하나, 박구하구 무동이 하나해서 각줄로 해서 입구자진을 맵글었어. 입구자진을 맵근다음에 가마니짜기를 했지. 가마니짜기가 뭐냐면 맨 먼저 쇠하구 징 줄이 소고하구 자리를 바꾸는거여. 끝난 장구하구 북줄이 박구하구 무동줄이 바꾸구해서 교대해서 원자리로 돌아오는거여 들여다 보면 가마니 짜기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마니짜기여.” 엄상원



6. 밭전자진(田)

가마니짜기가 끝난 입구자진에서 진을 풀어 田자(밭전자)를 만든다. 쇠와 징이 한일, 장구, 소고, 무동이 각각 한일로 바깥쪽에 사각을 만들고 북과 벽구가 안에서 열십자를 만들어 밭전자를 만든다. 진을 만들면서는 삼채-사채-오채가락, 대형을 갖추게 되면 건풍가락을 치고 논다.



7. 글자놀이 (도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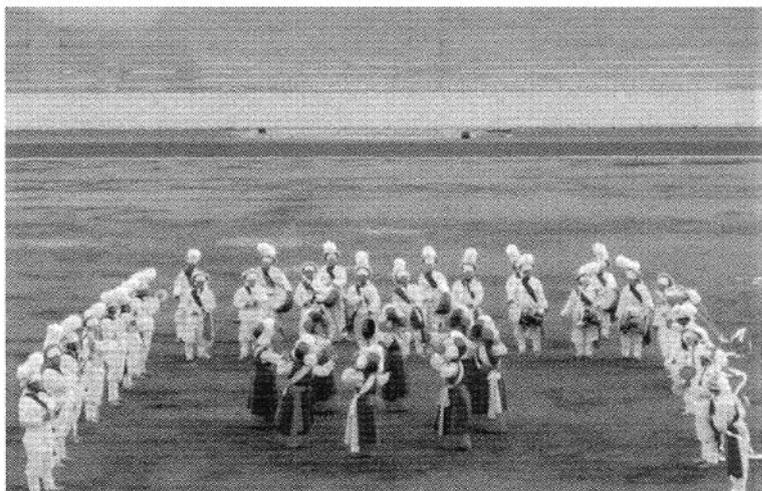
田자에서 풀어 나오면서 원진을 구성하게 되면 도리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논다.

“그 때 자기마을 이름 써주니까 술을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술들을 많이 먹으니 그저 취해가지구 자기 자리도 못찾아 가지고 이리저리 뛰멍기구 그럴거 아니오. 그 담부터 한지에 먹으로 써서 높이 착하구 걸어놓으면 다음에 이거구나 하구 놀이를 잘 하게 된거지 뭐.” 김동섭

8. 개인놀이 | 도리원글자놀이에서 풀어 나오면서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로, 북과 벽구가 그뒤로 한일자, 소고가 세로로 한일자, 무동이 반대편 세로로 한일자로하여 ㄷ자 대형을 갖춘다.

8-1. 무동놀이

무동이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무동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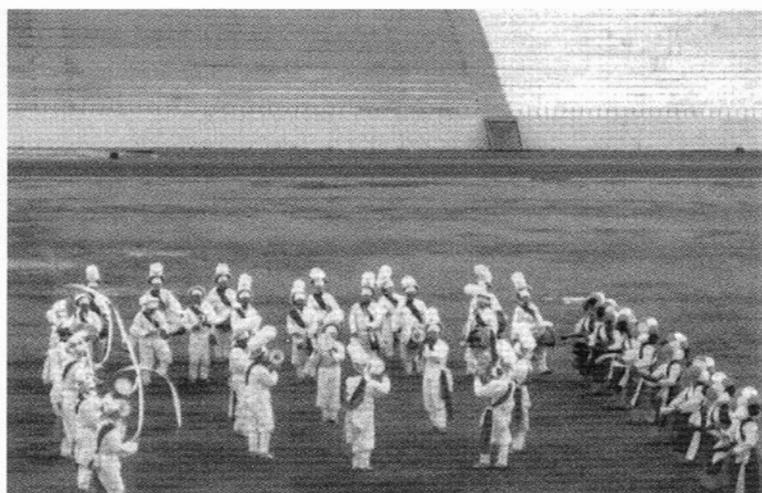


8-2. 소고놀이

소고가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소고놀이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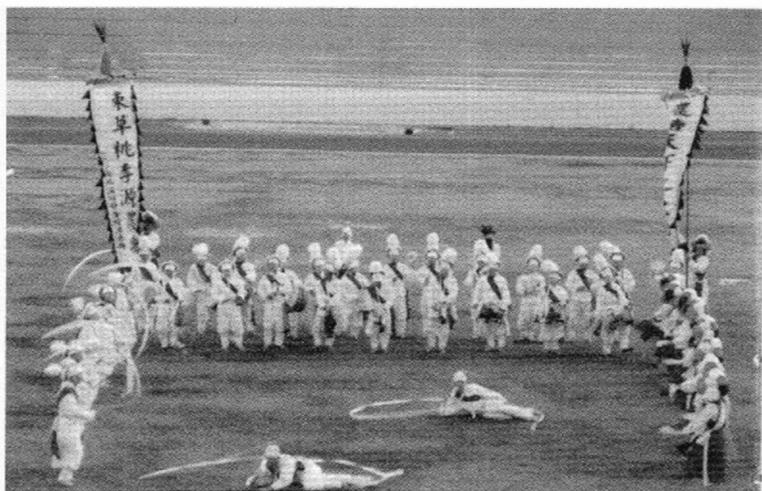


“진을 풀어서 입구자진으로 가는데 쇠하구 징이 하나, 장구 북이 하나, 소고가 하나, 벽구하구 무동이 하나해서 각줄로 해서 입구자진을 맵글었어. 입구자진을 맵근다음에 가마니짜기를 했지. 가마니짜기가 뭐냐면 맨 먼저 쇠하구 징 줄이 소고하구 자리를 바꾸는거여. 끝나는 장구하구 북줄이 벽구하구 무동줄이 바꾸구해서 교대해서 원자리로 돌아오는거여 들여다 보면 가마니 짜기처럼 보인다 해서 가마니짜기여.” 엄상원



8-3. 벽구놀이

벽구가 가운데에서 원을 만들어 상쇠와 함께 벽구놀이를 한다.



8-4. 열두발 상모놀이

열두발상모 두명이 가운데에서 열두발놀이를 한다.

“개인놀이를 들어가는데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 북하구 벽구가 한일자, 무동이 세로루 한일, 소고가 세로루 한일자루 해서 서가꾸 맨먼저 무동이 나오는데 무동이 나오니까 그 세로루 한일자가 없으니까 벽구가 나와서 그 줄을 끼워서 ㄷ자 맞추면 무동은 발맞추구 팔무동이니까 홀수 짝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대루두 하구. 안쪽 바깥쪽 번갈아서 이쁘게 놀았지. 끝나면은 소고쟁이 자리루 가요 그러면 소구쟁이들이 나오지 소구들이 나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상모돌리기 기술을 보이면서 갈라져서 돌리구 일자루 서서 개갱 적적 개갱 적에 맞춰서 기술을 보였지. 그담에 벽구가 나와서 놀구 또 그 담엔 열두발들이 나와가지구 놀구 아주 볼만했어. 그렇게 놀았다우.” 엄상원

9. 동고리놀이

(동고리와단오그네놀이)

ㄷ자 대형에서 박구와 소고, 무동이 나와 동고리와 그네 놀이를 한다. 박구가 단동고리를 만들어 그네를 만들고, 무동 1인은 그네에 타고 1인은 그네를 밀어주며, 소고쟁이도 무동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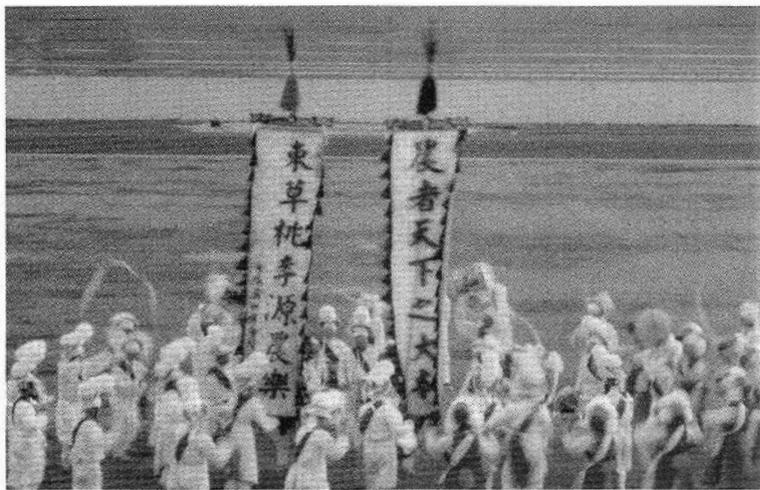


장기순(남, 57세, 전 속초 도리원 농악 상무동)의 고증

“삼동고리를 두개 만들어서 그네놀이를 했는데 사람이 빠지구 해서 단동고리 그네 단오놀이루 했어요. 소구쟁이들도 무동두 타고 나머지는 신이 나서 막잡아들리구, 하여튼 숨이 뚫까지 차서 힘들었어요.” 양춘석(남, 60세, 전 속초도리원 농악 상소구)

10. 황덕굿(인사굿)

ㄷ자 대형에서 진을 풀어 달팽이진을 만들고 한바탕 놀이를 한다. 인사를 한 후 퇴장한다.





속초 도리원 농악의 특징

금년 출연하는 속초 도리원 농악대는 1950년대 이전의 고증과 새로 발견한 사진자료에 따라 옛 모습으로 재현하여 속초 고유의 가락과 판놀음을 되살렸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 기(氣) 도리원 농악의 기는 농기와 마을기가 있다.
 1. 농기(農旗) 농기는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쓰고 깃대 꼭대기에 꿩작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지네발은 검정색이다.
 2. 마을 기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束草桃李源農樂”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꿩작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글씨, 지네발은 검정색
- 악기(樂器) 팽과리(4), 징(4), 장구(8), 북(8), 소고(8), 벽구(8), 호적(1)
- 복색(服色)
 1. 상 모 짚으로 꼬아리를 틀어 만든 다음 진자를 맞추어 엮고 락을 메달아 만들었다. 굵은 무명실로 적자(구슬)를 여러개 끼워 달고 길이는 2척에 끝 부분에 4척의 얇은 한지를 매단다. 상모를 쓸 때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등이고 짚상모의 끈을 얹어 머리에 맨다. 50년대 말부터 한지를 이용해서 상모를 만들기 시작했다.
 2. 고 깔 흰 색의 천과 종이에 상, 좌우 측에 큰 종이꽃을 장식한다.
 3. 상 쇠 흰 바지 저고리에 청색 덧저고리를 입고 짚상모를 쓴다. 삼색띠를 어깨와 허리에 맨다.(상벽구, 상소고 - 청색 덧저고리)
 4. 농기수, 단기수 흰 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고깔을 쓴다.
 5. 징, 장구 흰 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락이 달린 짚상모를 쓴다.
 6. 무 동 흰 속바지에 붉은 치마, 노란저고리를 입고 남색괘자를 걸친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7. 삼 색 락 청색과 적색의 락을 한번에 겹쳐 청색이 위로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허리로 묶어 묶고 노란색띠를 허리에 두른다. 무동은 어깨에 엑스자로 하고 적색을 허리에 감아 묶는다.



엄 상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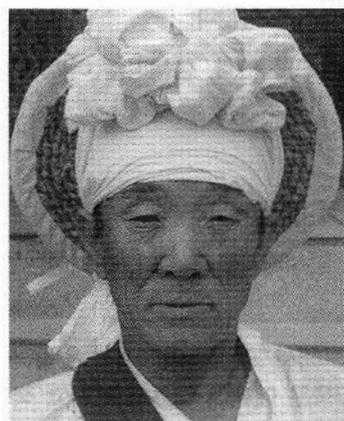
“상쇠하구 상소구 그리고 상벽구는 청색으로된 덧저고리를 입구 짚상모를 썼거든. 짚상모를 뒤로 한 채루 매달구 앞 머리에 꽃을 달으니 이쁘지 않겠수. 악기들하구 소구하구 벽구두 다 그렇게 매달았지. 그리고 상모를 돌리니 이쁠 수 밖에. 내가 볼때두 이쁘데 남들은 더 이뻐보이지. 삼색은 청색하구 빨간 띠를 한테루 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허리 춤에 내려다가 묶구 황색이 중심색이자나 그길루 고정시켰지. 왜냐면 악기들을 왼쪽에 매달구 들구 하니 오른쪽에 있으믄 불편했거든. 짚으로 만든 상모두 검정색으로 한지가지구 몇 개를 붙여서 맨들어 썼는데 몇 개씩 더 가지구 다니구 그랬지. 놀이하러 나간다하든 매칠을 상모땀에 싹뭍하구 그랬어.”

“삼색을 한테 묶어서두 묶구 그랬는데 자꾸 뺨그르 돌아가구 그랬지. 다른데는 가위표루 묶었는데 아버지 때두 그렇게 묶어서 그대루 따라가는거지 뭐.”



김 동 섭

“대보름 전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무동들은 고깔에 흰 수건을 쓰구 놀이를 해러 다니구 그랬어. 근데 다들 삼색띠를 묶는데 무동들만 가위표를 해가꾸 묶었어. 15세 되는 애들 두 점점 도외지루 나가구 그러니까 하나들 아녀자들루 구성해가지구서 가까운 쪽두 나가구 그랬지.”



양 춘 석

“원래 농약할때면 막걸리 먹어야 신이 나는데. 무동을 하다가 소구쟁이를 하니 매일 힘이들어가지구 내일은 하지 말아야지 하믄서두 가락이 나오믄 그저 몸을 어떻게 하지 못하구 뒤집어 쓰구 놀구 그랬어요.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잘은 하지 못해두 애기들 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요. 상모에 구슬을 달구 한지를 두세개 가닥을 부쳐서 땅에서 가슴까지 길이루 맨들어 잡아 돌리믄 그게 꽃이지 않겠수. 그때 우리 노악대가 악을 치구 나가믄 자다가두 사람들이 몰려들구 잠깐 놀이를 선 뵈믄 그저 구름땀 같았지 뭐.”

속초 도리원 농악 보존회 회원

- 단장 최용문(속초문화원장)
- 고증 엄상원(남, 84세) 김동섭(남, 71세) 양춘석(남, 60세)
- 지도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박치영(영북민속문화연구회)
- 학술자문 양언석(강원도립대 교수)
- 쇠 엄상원(상쇠) 박치영(부쇠) 이주복, 주동진, 이호성
- 징 장기순 함종천 윤기준 최형복
- 장구 최종학 신승태 정정자 유영순 김석산 최수미 정한섭 최혜윤
- 북 최윤집 김소희 김덕수 정현애 이옥순 주미애 양승남 김지원
- 법고 원경만 김귀선 정호열 임효건 함기식 조성현 전형준 김태희
- 무동 정원봉 김옥자 이인자 이명자 반영숙 박희자 박보금 이영자
- 단기 이세환
- 농기 김동복
- 할미 장금자
- 양반 김동섭
- 쇄납 김인중
- 행사지원 정종천 최택수 외



속초의 문화비전

- 새 천년의 과제



속초시 문화정보과장
최원복

속초는 한국전쟁이후 수복되면서 북한 피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어업이 활성화되면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산업의 발달과 소득증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속초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도외시 되었으며, 경제가 발전하고 시민생활이 안정을 찾으면서 점차 속초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속초를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들도 하나 둘씩 설립되었다.

하지만 초창기 문화예술단체는 인적·물적인 기반이 미약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수준도 성숙되지 못하였고, 이들의 창작활동과 공연활동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도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열악한 문화환경속에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향토문화진흥 시책의 꾸준한 추진으로 속초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향토색 짙고 특색이 있는 문화와 민속이 속속 발굴되었으며, 1999년 강원국제관광박람회를 계기로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적응하고 향토문화와 민속을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복원 그리고 전승하여 속초의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속속 진행 중에 있다.¹⁾

1.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 집, 조각공원등이 있으며, 문화기반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그 지역의 문화

1) 속초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연구된 보고서는 아래와 같다.

- 속초시·강릉대학교,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 2000. 5
- 속초시·강릉대학교, 「속초 영랑호설화의 형상화 계획」, 2000. 9
- 속초시·강릉대학교, 「속초시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 기본계획」, 2003

수준을 말해주기도 한다.

현재 속초에서는 그동안 속초문화예술인들의 주된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문화회관이 있다.

1990년에 건립된 속초문화회관은 비록 시설이 노후 되었지만 속초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문화회관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극·영화공연 29회 관람인원 18,760명, 음악회 39회 관람인원 16,600명, 미술·사진 등 전시회 16회 관람인원 7,300명 등 총 84회의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었으며 42,600명이 관람하였다.

이러한 실적을 토대로 매년 연극은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공연 예술단체인 갯마당이 탄생하여 왕성한 공연활동을 펼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속초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한 문화회관도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과 장비가 노후 되었고 전시실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연습장이 없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어 문화회관의 개보수는 물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토민속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이를 통해 문화체험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이하 박물관)을²⁾ 2005년 8월 개관할 예정이며, 박물관이 완공되면 속초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속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는 물론이고 소규모 공연과 전시회도 가능한 공간도 조

성되어 문화예술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난 여름 속초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1회 대한민국음악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몇해 전부터 이야기되던 야외음악당 건립의 필요성이 다시 논의되고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발표의 장이 될 문학관 건립과 예술인촌 조성사업 등이 중·장기적으로 계획 검토되고 있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향토문화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속초의 민속문화와 예술은 발굴되고 복원되는 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발굴되어진 문화와 예술은 후손에 전승되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체험상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속속 건립되어지는 문화기반시설에서는 그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관광의 패턴은 자연경관을 관람하고 유희를 즐기며, 먹고 마시는 관광에서 향토의 특색있는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각

2) 속초시립박물관과 실향민관광문화촌은 속초시 노학동 산161-1번지의 2필지상에 건립중에 있다. 박물관과 문화촌 조성사업은 두 사업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를 통합하여 추진하였으며, 건립공사 완료후 운영 또한 박물관과 문화촌을 통합하여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은 내실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며, 속초의 역사와 민속문화를 전시하고 보존하게 될 시립박물관은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박제된 전시물을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속초의 대표적인 문화형태인 실향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다각도로 만들어 질 것이다.

실향민 고유의 음식을 가종단위로 만들어 보고 갖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고달픈 피난생활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짬치기, 도문메나리 농요, 도리원농악, 북청사자놀음과 같은 전통민속음악과 놀이가 재현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함께 즐기고 배워보는 체험의 기회도 제공될 것이다.

그리고 대보름, 단오, 추석과 같은 세시풍속에 맞는 민속문화도 재현되며 체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박물관 문화학교(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시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기대가 된다. 박물관 외에도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에서는 옛 화랑들이 심신수련을 하던 마상무예, 활쏘기, 검술 등도 연마하는 문화체험관광자원은 물론 미래 우리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수련의 장으로도 각광을 받을 것이며, 속초시립박물관·영랑호화랑도 체험관광지·석봉도자기미술관·속초문화회관·학무정·신흥사 등 문화기반시설이 연계된 문화체험관광코스도 마련될 예정이다.

3.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2003년 속초도문메나리농요가 10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강원도 대표로 참가하여 금상(문화관광부장관)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잊혀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에 힘써온 문화예술단체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소중히 여기고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은 물론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문화재의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계승·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문화의 발굴과 복원을 통한 발전은 그 지역의 역사성과 정통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옛날 속초가 양양과 고성 일부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속초시에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겠는가' 하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아왔다.

하지만 옛날 양양과 고성에 속했다고 해서 역사와 전통이 없는 것이 아니다. 속초지역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민속과 전통은 살아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잘 보존·계승하고 발전하는가 여부에 따라 속초의 역사성은 물론 정통성이 확립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다른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동안 속초라는 지명은 옛 양양에 속한 마을로 여지도서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꾸준한 사료조사와 연구를 통해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속초라는 지명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³⁾ 속초라는 지명의 역사를

3)속초문화원, 「옛 문헌속의 속초」, 2001. 12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속초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매곡쳐사 오윤환 선생의 선양사업을 통해서 학무정이 품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생동안 쓰신 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시문(詩文)등에서 그분의 성리학적 사상과 역사의식, 시대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오윤환 선생의 선양사업은 우리시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고

취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설악산과 도문 메나리농요와 연계된 훌륭한 문화상품으로도 개발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의 재현과 체험, 속초문화원을 중심으로 갯마당과 함께하는 전통 민속문화와 예술의 발굴과 보존활동은 속초를 보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향토색 짙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

“지역갈등 해소방안”을 책으로 발간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겪은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러한 갈등에 대하여 특별한 대안도 없이 당장 추진이 시급한 각종 사업이 마냥 지연되고, 갈등의 당사자간에는 감정만 점점 격화되어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이러한 분야에서 예전에 겪었던 행정경험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비슷한 상황에 그대로 전개되면서 조금도 달라진 것 없이 똑 같은 과오를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과거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냈다.

책의 주요 내용은 ‘제1장 속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기까지는’을 시작으로 ‘제2장 속초시의 현안문제’, ‘제3장 다른 지역의 갈등사례’, ‘제4장 지방자치시대의 갈등·해

소를 위해’, ‘제5장 이 문제를 이렇게 했거나, 이렇게 한다면’ 등 총 5장으로 분류해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지역갈등에 대한 대처 사례를 엮어 실무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2월 이렇게 발간한 책에 대하여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고 지난 2004년 4월 행정자치부와 한국문인협회에서 주관한 제7회 공무원문예대전에 본 책으로 응모하게 되었으며 8월 저술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약 력

최 원 복(崔元福)

1947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에서 출생하였고, 동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4년부터 속초시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기획계장, 시정계장을 거쳐 조양동장, 장사동장, 교동장 그리고 시의회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복지여성과장, 시민봉사과장, 의회사무과장, 세무과장을 거쳐 현재는 속초시청 문화공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속초문화 새로운 인식



강원도립대
양 언 석 교수

속초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다.

대 포항에서 등대의 멋스러움과 어선들의 정겨움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고 술잔 속에 담긴 달을 마시며 이곳에 태어남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였다. 오늘도 그곳이 좋아 벚들과 잔속에 담긴 술을 마시고 싶다.

우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문화라고 말한다.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족이나 사회는 삶의 희망과 미래세계를 향유할 수 있지만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사회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단순한 삶의 모습, 그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통문화는 물려받는 것이다. 하지만 물려받으면서 동시에 창조하는 것이기에 전통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전통문화에 우리의 의식을 부여하여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다.

과거의 전통 유물이 우리의 전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에 관심을 갖고 전통을 부여하는 것이다. 과거의 우수한 문화를 가졌기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

라 우리가 우리 것에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천연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이 아름다움에 우리의 우수한 무형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다면 속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아름다운 속초가 우리의 자랑인 동시에 우리 모두 보존하고 가꾸어야 하는 무한책임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속초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주인과 어른이 없는 도시, 중심이 없는 사회, 난개발로 파괴되고 있는 모습, 우리 것과 우리를 존중하기 보다는 남의 것과 남을 동경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이것은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현실이 아닐까 하고 두렵기도 하다.

환경론자는 아니지만 지금의 속초는 속초를 위한 개발이 아니라, 개발을 위한 속초로 무차별로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문해 본다. 먼 훗날 후손들에게 어떤 속초의 모습을 돌려 줄 수 있을까? 누더기가 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지 않은가? 이 아름다운 도시가 왜 파괴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우

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조상들과 후손, 그리고 우리 지역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죄인은 아닐까?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혹 지금 같은 파괴와 자연훼손을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영원히 속초의 죄인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속초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향이 될 것이다. 미래는 문화가 고부가가치의 시대이다. 우리는 지금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미래사회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것과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사랑해야만 한다.

속초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아름다운 풍경과 천연적인 바다와 호수, 그리고 산과 평야가 함께 공존하는 연유로 풍부하고 다양하고 독자적인 전통문화가 생성, 발전하여 정겨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서 독자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배타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지역의 수준 높은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전통과 그 세계를 알아야만 한다. 이 지역은 동예(東濊)의 후손으로 중국의 진수가 쓴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의하면, 동예(東濊)는 10월에 무천(舞天)이라는 종교행사가 있었다.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었는데 이것을 무천이라고 하였다(常十月祭天晝夜飲酒歌舞名之爲舞天)는 기록은 선인들의 예술성과 문화를 알 수 있다. 고대사회의 이러한 문화가 면면히 이어지면서 우리의 정신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그 전통이 10월에 열리는 설악문화제라는 이 지역의 축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때로 우리 지역문화의 부재와 부정적인 담론을 들으며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문화 부재가 아니라 우리 것의 소중함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 반성해야만 한다. 고대사회부터 수확기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연희의 행위도 흥미롭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인한 다양한 신앙과 놀이가 전해지고, 자연의 풍요와 거칠고 위협적인 체험을 통해 고유한 삶의 방식과 전통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설화, 민요, 연희, 농악 등의 놀이와 삶 속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호수와 관련된 문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호수인 영랑호와 청초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준다. 청초호는 <<택리지>>에 의하면 관동 팔경의 하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 왔다.

옛날 부사가 부임해 오면 청초호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기록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풍류를 즐겼는지 알 수 있다. 특히, 만천동 나룻배 싸움놀이 이다. 전설에 의하면 청초호에는 수룡이 살았고, 영랑호에는 암룡이 살았는데 서로 땅 속으로 통하는 물길을 따라 오가면 살았는데 어느 날 한 어부가 실수로 큰 불이나 청초호 주변의 술밭을 태우게 되어 그 연기와 불길로 수룡이 죽고 말았다. 이때, 영랑호에 살던 암룡이 크게 노하여 이 지역에 가뭄과 흉어로 벌을 내렸다. 이로 인해 어민들이 용을 달라고 흥사를 없애기 위해 정월 대보름이면 무당을 청하여 용신제를 지내고 암룡을 달라고 수룡의 죽음을 위로하는 민속놀이가 거행되면서 놀이로 정착되었다.

고대사회부터 수확기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연희의 행위도 흥미롭고 그리고 바다를 통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그로 인한 다양한 신앙과 놀이가 전해지고, 자연의 풍요와 거칠고 위협적인 체험을 통해 고유한 삶의 방식과 전통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

나룻배 싸움은 결국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화합이며 두 마을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풍요로움을 잉태하는 놀이 구성은 이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무형문화의 특징이다.

다음은 농경과 관련된 문화이다. 봄에 파종하고 가을까지 기다리며 많은 자연 재해를 접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 앞에서 신을 생각하며 조상신을 숭배하기도 하고 천신이나 지신을 섬기기도 하면서 신앙적 상상과 함께 연희가 전해오고 있다. 특히, 노동과 관련된 노동요는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해오고 있다.

노동요는 노동의 고됨과 지루함을 덜어주고 정신적인 즐거움으로 유대감을 주면서 발전 하였다. 도문 메나리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금상을 받을 정도로 예술성과 뛰어난 무형문화로 문화재 지정을 준비 중이다. 이 메나리(김매는 소리) 속에는 농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다. 노동의 힘듦과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담겨있다.

그리고 도리원 농악은 그 특색이 다른 지역보다 독특하게 표현된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대보름을 기점으로 농악놀이가 연희되면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동네의 축제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와 40년대는 대포 별신제 등에서 크게 연희되었으며 50~60년대에는 도리원 농악이 삼척, 경기도 일대까지 초청공연을 다닐 정도로 뛰어난

우리 지역의 문화이다.

이 도리원 농악도 앞으로 속초의 무형문화로 지정되어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다와 관련된 우리의 문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바다는 우리에게 풍요와 안식을 주지만 바다만큼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상황제와 용신제 같은 다양한 문화가 전해오고 있다.

해양문화에서 성황제에 용왕을 모시는 것은 바다를 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 신앙의 특징이다. 장사동(사진리)의 든대질 놀이와 대포동 뱃소리, 그리고 물치 용왕굿 용떡놀이 등 다양하고 예술성 있는 우리지역에 많은 유형문화가 전해오고 있지만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을 위한 속초가 아니라 속초를 위한 개발로, 그리고 무능하고 생각 없는 선배의 모습이 아니라 부끄럽지 않은 성숙한 선배로서의 모습을 후배들에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문화인식이 요구된다.

왜, 미래사회는 개발이 아니라 문화와 자연의 보존이 개발이고, 고부가가치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까? 영원히 우리 후손들도 대포항에서 정겨운 등대와 어선, 그리고 떠오르는 달의 멋을 즐길 수 있을까? ●

지방대학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동주대학 학사처장
김 노 환 교수

동주대학은 1981년 속초경상전문대학으로 개교한 이래 19개 학과 4,000여명의 재학생이 호홉하며, 해마다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속초 유일의 대학이다. 초창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동안 3만명의 졸업생들이 교육, 경제,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속초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학생충원에 어려움없이 도내에서 지방대학으로서 위상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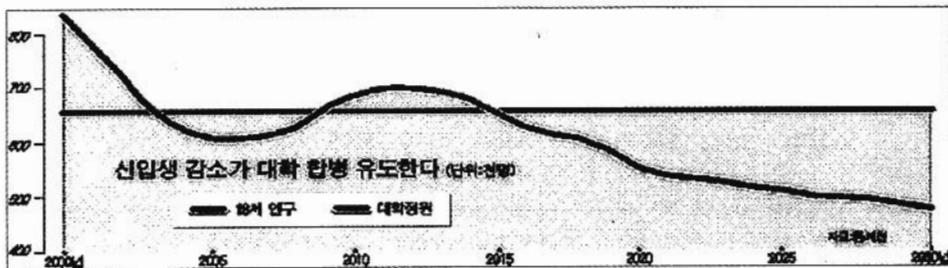
그러나 도내 타 대학에 비해서는 나은편이지만 최근 들어 수험생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 대학 위기의 핵심은 학령인구 절대감소가 주원인이며, 그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 및

서로 선호 풍조 만연, 정원 자율화와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에 따른 대학 및 대학입학정원의 팽창 등을 들 수 있다.

본 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간으로 지방대학의 문제점들을 정리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1.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전국)

[그림 1]의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2003학년도부터 2010학년도 까지 8년간은 대학



[그림 1] 청년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자원 감소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입학정원이 고졸졸업생 수보다 많은 “대입역 전환상”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대량 미달사태가 예견되는 지방 대학 위기의 U 터널 기간이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는 2002년도 수준을 회복하였다가 2016년부터 절대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는 대학 모집정원(730,000명)의 65%선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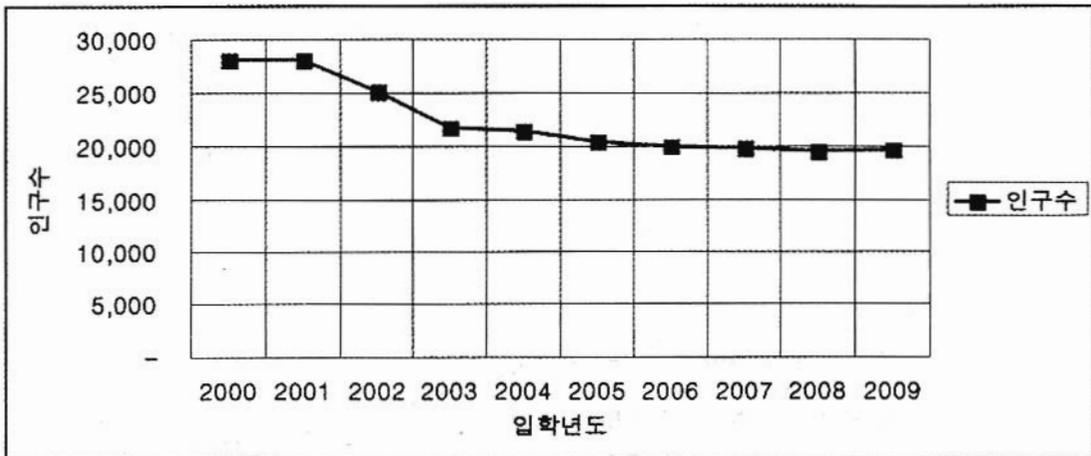
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강원권)

(1) 고졸자수 대비 대입정원과 학령인구

강원도의 경우 <표 1> 과 [그림 2] 처럼, 대학정원이 30,752명으로 2000년부터 이미 학령인구를 초과하였고, 2006학년도부터 학령인구는 전문대 입학정원을 제외한 4년제 입학정원에도 못미치게 되어 심각한 수험생 자원 부족이 예상된다.

<표 1> 강원도 2005학년도 고졸자수 대비 대입정원

고졸자수	모집정원			부족인원
	전문대학	4년제대학	계	
18,704명	11,324명	19,428명	30,752명	-12,048



[그림 2] 강원도 학령인구 추이

(2) 강원권 주요도시 인구현황

〈표 2〉는 강원권 주요도시의 인구현황으로, 영동지역은 인구가 해마다 소폭 감소하고 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동우대학의 경우, 도내 주요 4개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속초시를 배후로 하는 어려운 여건 하에 지역자원은 한계가 있어 개교 이래 수도권 학생을 위한 과감한 홍보전략으로 입시에 대비해 왔다.

〈표 2〉 강원권 주요도시 인구현황

항 목	영동		영서	
	속초시	강릉시	춘천시	원주시
시 인구	89,458	230,080	254,366	282,025
통합인구	152,070	408,053	423,326	373,155
통합시군명	속초/고성/양양	강릉/삼척/동해	춘천/화천/양구 /홍천/철원	원주/횡성/평창

※자료 : 강원도청 홈페이지, 2003기준

(3) 강원권 전문대학 등록현황

〈표 3〉에 보인 바와 같이, 강원권 전문대학의 2002학년도 등록률은 90.8%이었으나 2004학년도 등록률은 62.5%로 2년만에 28.3%나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진출이 감소하고, 강원권 학령인구가 5,000여명 준데다가 수도권 진학이 용이해지면서 지역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대거 이탈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측된다.

〈표 3〉 강원권 전문대학 등록현황

2004학년도				2002학년도				증감			
모집	등록	등록률	미충원	모집	등록	등록률	미충원	모집	등록	등록률	미충원
11,160	6,971	62.5	4,189	11,245	10,207	90.8	1,038	-85	-3,236	-28.3	3,151

※자료 : 전문대학교무처장협의회, 하계학술대회, 2004. 5. 31

(4) 동우대학 등록자 지역별 분포

〈표 4〉에 보인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등록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영동권지역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40%대를 유지함으로써, 영동지역에 기반을 둔 거점대학으로서 일정 수준

지역학생을 확보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보건계열 학과에 지원하는 영동권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표 4〉 동우대학, 최근 5년간 등록자 지역별 분포

년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영동권	기타	영동권	기타	영동권	기타	영동권	기타	영동권	기타
분포율(%)	48.0	52.0	42.2	57.8	40.4	59.6	44.6	55.4	43.6	56.4

3.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문제점

(1) 서울 소재 대학 입학자 중 지방 고교 출신 비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어 서울소재 대학입학자 중 지방고교 출신자가 48.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 우수 인재의 유출과 지방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충원 인원의 90% 이상을 지방대학이 차지하고 있다.

〈표 5〉 서울 소재 대학 입학자 중 지방 고교 출신 비율

구분	합격자 수	지방 고교 출신자 수	비율
1999학년도	100,886명	49,253명	48.8%

※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9

(2) 진학희망 대학의 소재지

“고등교육 학생 수 추정(2000~2009)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고교생 응답자 684명(73.2%)이 서울(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학부모 응답자 716명

(80.8%)이 자녀가 서울(수도권)의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진학이 용이해지면서 지방 고교출신자의 수도권 진출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표 6〉 진학희망 대학의 소재지

구 분	빈 도			
	고등학생		학부모	
서울(수도권)	684명	73.2%	716명	80.8%
지 방	226명	24.2%	161명	18.2%
무 응 답	25명	2.7%	9명	1.0%
계	935명	100.0%	886명	100.0%

※자료 : 정택희외 2인(1999)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4. 지방대학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들

지방대학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대학 교육의 공급초과, 대학진학 수요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차이, 지방우수인재의 서울 집중화 그리고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에 대한 차별, 전통적 교육의 쇠퇴,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실업난으로 대학진학 포기자 다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지금 지방대학은 지방대 소외현상과 지방대 콤플렉스에 기저하여, 학생수도 줄고, 인재도 부족하고, 재정도 넉넉지 못하며, 산업체도 부족한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 발전방향

21세기는 지식기반 정보화사회로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없이는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방대학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본고는 지방대학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제언하면서 일부 동우대학의 예를 들고자 한다.

첫째, 지방대학 자체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백화점식 학과운영을 탈피하고 특성화에 근거한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통·폐합함으로써 규모를 감축하거나 이전하는 등 자구노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대학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은 대학교육의 공급초과, 대학진학 수요의 급격한 감소,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문화적 인프라 차이, 지방우수인재의 서울 집중화 그리고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에 대한 차별, 전통적 교육의 쇠퇴, 장기적인 경제불황과 실업난으로 대학진학 포기자 다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예로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폐과직전의 위기에 몰린 일부학과들을 원주시 문막으로 이전하여 대학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동우대학의 자구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대학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교육 수요를 다변화 해야 한다.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직간접 홍보와 경시대회 및 지역행사 참여 또는 유치, 대학 시설 개방 등 대학의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여 수험생이 찾아오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갈된 학생자원을 인정하고 학사운영을 유연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수요를 다변화해야 한다.

셋째, 지방대학은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밀착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실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인재가 지역 대학에 입학하고, 그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그 지방 발전을 위한 “인재풀”을 형성하고 다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동우대학은 30,000여명의 졸업생 중 50%이상이 지역출신 학생들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 동우대학 졸업생이 후배의 취업을 알선하고

졸업생의 자녀가 입학하는 순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넷째, 지방대학은 산학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높은 취업률에 있으므로, 대학교육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산업체 주문에 의한 학과 설치 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수익사업 창출 및 실무연수 기회제공을 위한 학교기업 운영 등 더욱 적극적인 산학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지방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학생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재정이 열악한 지방대학은 재투자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학습의 질이 떨어지면서 학생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지방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만 지방대학 발전이 가능하다. ●

□ 김노환 교수 약력

-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 [공학박사]
- 금성전기·현대전자산업(주) 기술연구소 연구원·과장
- 현, 동우대학 학사지원처장 [부교수]



김종학이 그린 雪嶽의 四季

김 종 학 화백



설산(雪山) 설악산에 칩거한 지 25년, 「설악의 사계」를 펼친 김종학 화백은 오늘도 꽃, 나비, 벌레, 개구리, 잡초를 화폭에 담느라고 밤을 지낸다.

추상한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다 영향받은 추상이지 자연과 별도의 추상이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확인, 그래서 자연을 열심히 보고 자연을 마음대로 그린다.

자연 그대로의 그림이 아닌 이쪽에 그리

고, 이쪽에 떼어다 붙이기도 하고, 빨간꽃 옆에는 벌이 있어야 색깔이 어울리고, 빨간색에는 보라, 옆에 노랑, 검정나비가 어울려 전체가 조화가 되어 마치 '허버트 리드'가 말했듯이, 그림도 건축도 최고의 경지는 음악상태로 도달하는 것이다.

과학문명의 오늘의 것보다 더 훌륭한 그림인 원시인들의 벽화의 추상화를 닮으려고 노력함이 그의 생활이라고 힘을 준다.

설악을 닮으려는 사람이 있다. 풀벌레 울고, 풀꽃으로 웃는 그의 방식은 화폭을 통해서이다. 그의 화폭에는 울산바위, 천불동 같은 설악의 커다란 매스가 떡하니 자리잡는가 하면, 그 산야에 깃든 꽃과 풀 등 그리고 산세가 아름답게 수 놓여있다. 이십년이 넘게 국립공원 설악산 자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업이다. '설악의 화가', '별악산인(別嶽山人)', '또다른 설악산', '설악의 분신' 등 별호·별칭을 얻었다.

김화백의 작품세계

「김중학이 그린 雪嶽의 四季」에서 김화백의 인생역정과 작품 세계를 평한 김형국 교수(서울대), 김재준 교수(국민대), 송방영 화백(동양화)의 글을 간추려 실으면서 작가와의 대담으로 대신함이다.

- 김중학의 그림 반생기-

설악을 닮으려는 사람이 있다. 풀벌레 울고, 풀꽃으로 웃는 그의 방식은 화폭을 통해서이다. 그의 화폭에는 울산바위, 천불동 같은 설악의 커다란 매스가 떡하니 자리잡는가 하면, 그 산야에 깃든 꽃과 풀 등 그리고 산세가 아름답게 수 놓여있다.

이십년이 넘게 국립공원 설악산 자락에서 펼쳐지고 있는 작업이다.

'설악의 화가', '별악산인(別嶽山人)', '또다른 설악산', '설악의 분신' 등 별호·별칭을 얻었다.

6·25 동란 참화속의 가혹함과 복구의 어려움이 점철된 당시의 환경은, 역설적으로 화가 지망생들에게 반대상황인 평화와 여유가 깃든 아름다움의 세계를 동경함을 화폭에 펼침이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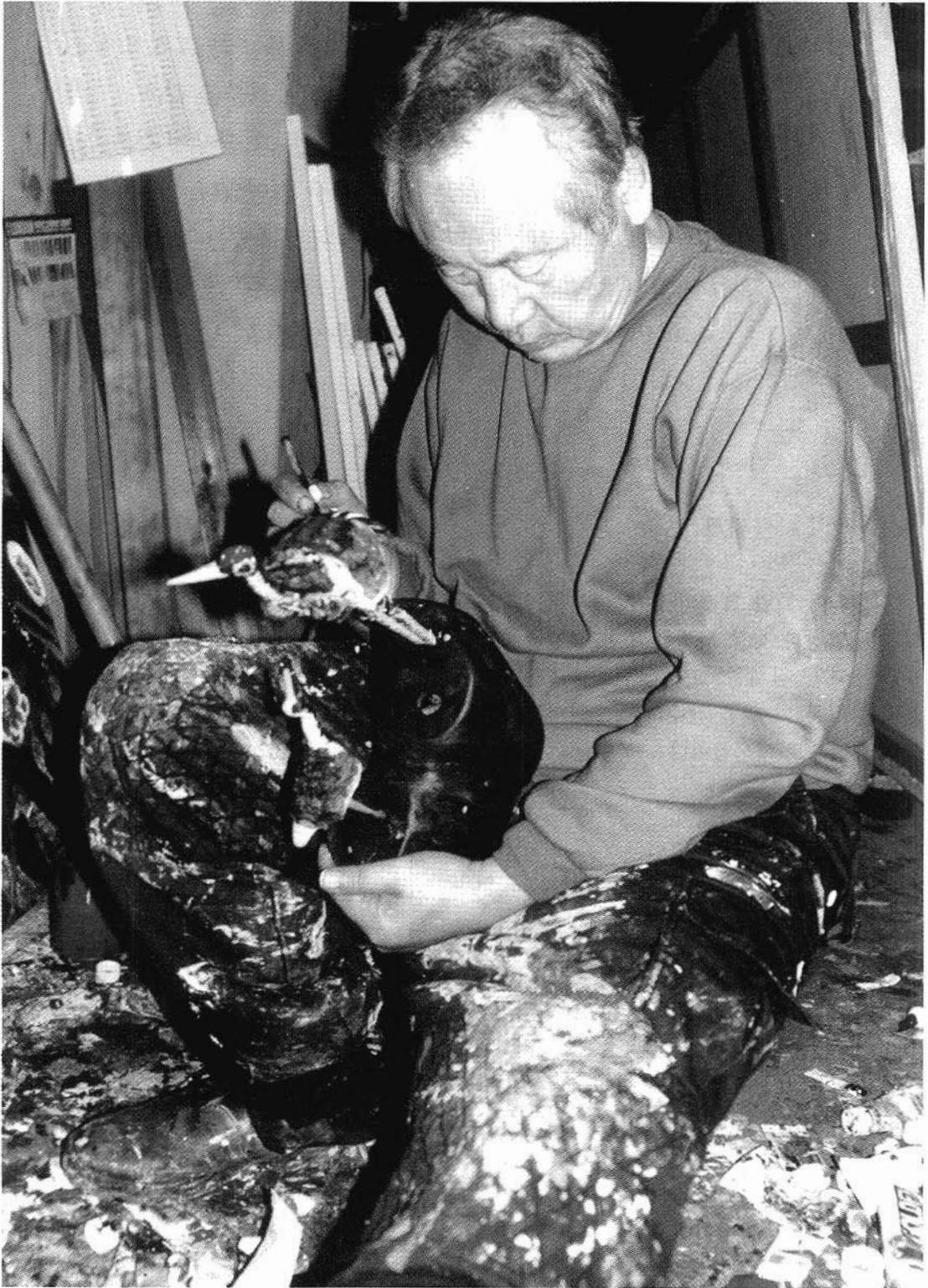
“색채를 배열해서 시를 쓴다”는 ‘반 고흐’의 확신처럼 김화백도 또한 삶의 애환, 그리고 뛰어 넘으려는 삶의 꿈을 설악산의 이름으로 화폭에 담아 보인 것이다.

설악산에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집에서 밤마다 별을 쳐다 보고 달을 보고... 설악산의 밤은 왜 그다지도 낮게 떠서 빛나고 있었는지.

하여간 열심히 밤하늘을 보며 백장의 좋은 그림을 남기고 죽자, 백장만이라도 그럴때까지 살자며 입술을 깨물고 그림을 그린 것이 오늘날 나비, 꽃그림들이 나오게 됐단다.

낮에는 그 넓은 벌판을 헤매며 열심히 꽃과 나비를 봤단다. 거기서 아빠는 대학 졸업해서 이십년 막혀 괴로워했던 그림의 방향도 전환점을 찾아왔다.

(89년 2월말 딸에게 보낸 편지)



화가 김종학을 보면 먼저 선비적인 풍모와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이 그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보다 원초적이고
소박한, 샤머니즘적인 미의 세계가 아니었던가 싶다.
'칸'에게 '로마'가 있었듯이 김종학에게는 '설악'이 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해답은 우리의 자연이 있다.

그가 통한 사랑하는 것은 전통시대에 이름 없는 부녀자들이 만든 베갯모, 조각보 등 부귀수복(富貴壽福)을 상징하는 화초들이 수놓여있음에서 구성미가 뛰어난 조각보를 사랑한 나머지 목공예품의 일급 수장가가 된 것이다. - 김형국

하지만 우리 마음에 강렬하면서도 포근한 이미지를 남긴다. '설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화상'이라는 말로 그의 그림을 요약할 수 있다 하겠다. - 김재준

- 김종학의 풍모와 그의 그림을 말한다 -

- 설악의 거울에 비친 자화상 -

화가 김종학을 보면 먼저 선비적인 풍모와 정신세계가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 속 깊이 그가 정말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보다 원초적이고 소박한, 샤머니즘적인 미의 세계가 아니었던가 싶다.

'칸'에게 '로마'가 있었듯이 김종학에게는 '설악'이 있다. 그리고 그가 찾은 해답은 우리의 자연이 있다.

산과 들, 평범한 꽃과 나무, 나비와 벌과 새들을 어린이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표현해 낸 것이다. 꽃그림은 언뜻 보기에 거칠고 심지어는 지나치게 소박해 보인다.

골동상을 쏘다니면서 민화, 민예품 또는 자수를 감상, 수집하는 그의 일상을, 일종의 작품 제작의 연장선 - 물욕이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품성과 회화 조형을 합일시키고, 박대정심(博大精深)하여 나름의 자기 창조의 개성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기에 몇 년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수십년 정성 들여 모은 목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일괄 기증했다.

동양화 전공자로서 그의 작품세계를 말한다면 그는 저절로, 그리고 스스로 생겨난 천품이 고박(古朴)하면서 청담(淸淡)한데, 운필(運筆)은 신속(迅速), 통쾌(痛快), 임리(淋漓)하다.



- 흰눈이 내려서 그런지 그렇게 캄캄한 밤이 아니구나.

아빠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단다.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다. 물론 외롭고 고달프고 때로는 겁도 나지만, 오직 자기 홀로 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는 재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거야.

-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기가 싫은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한단다. 그러다 보면 또 신나는 그림이 나올때도 있어 붓을 놓을수가 없구나. '영감은 무수한 노력의 순간에 온다'는 '로댕'의 말에 아버지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형사(刑似)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생운(生韻)만을 구한 끝에 졸박(拙朴) 가운데서 그의 흥중 영기(靈氣)가 잘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중국 제황(齊璜)선생의 말처럼 '형태를 닮은 것과 닮지 않은 것 중간(形似而不似之間)'의 묘미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 송영방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 흰눈이 내려서 그런지 그렇게 캄캄한 밤이 아니구나. 아빠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하단다. 무엇을 창조한다는 것은 창조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갖는 특권이다. 물론 외롭고 고달프고 때로는 겁도 나지만, 오직 자기 홀로 서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만들어 가는 재미는, 다른 사람들은 모를거야.

- 새벽에 일어나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리기가 싫은 때도 있지만 억지로 한단다. 그러다 보면 또 신나는 그림이 나올때도 있어 붓을 놓을수가 없구나. '영감은 무수한 노력의 순간에 온다'는 '로댕'의 말에 아버지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 별을 보며 달을 보며 캄캄한 밤하늘 그 넓은 설악산 들판을 성난 들소마냥 헤매며 생각하고 생각했단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아낌없이 나를 던지고 죽자. 아낌없이 버리고 크게 죽자.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하네."

고려말 대 큰스님 나옹의 시다. 내마음에 위우고 있단다. 나도 그렇게 살다가 가련다.

- 제1회 「60년 미술가협회전」, 「아튀엘(Actuel) 미협전」 출품을 시작으로
- 64년 신문회관 화랑에서 첫 개인전
- 67년 제5회 「국제판화비엔날레」(일본 도쿄) 장려상 수상, 한국작가로써는 처음
- 68년 「한국현대미술전」(도쿄근대미술관)에 출품을 계기로 도쿄미술학교 판화과에서 수학
- 70년 도쿄 무라마쓰 화랑에서 개인전

김화백 연보(年譜)의 개략

1937년 평북 신의주에서 출생. 해방후 월남하여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미대 회화과를 졸업(1962년)하였다.

- 제1회 「60년 미술가협회전」, 「아튀엘(Actuel) 미협전」 출품을 시작으로
- 64년 신문회관 화랑에서 첫 개인전
- 67년 제5회 「국제판화비엔날레」(일본 도쿄) 장려상 수상, 한국작가로써는 처음
- 68년 「한국현대미술전」(도쿄근대미술관)에 출품을 계기로 도쿄미술학교 판화과에서 수학
- 70년 도쿄 무라마쓰 화랑에서 개인전
- 73년 제12회 「상파울루 비엔날레」(브라질) 입체미술작품 출품
- 74년 릴리프 수채화를 중심으로 현대화랑, 일본 무라마쓰 화랑, 로스엔젤스일본계 화랑에서 개인전
- 75년 제24회 「국전」 추천 작가로 뽑힌 후 제25회, 26회 연임

- 77년 뉴욕 프랫그래픽 센터에서 연수
- 79년 뉴욕 아트엑스포에 출품, 10월 설악산에 입산
- 83년 원화랑에서 꽃과 나비를 그린 수채화 중심으로 개인전, 교육자 체질이 아님을 깨닫고 교수직 물러남
- 86년 예화랑에서 「김중학·김용 2인전」 개최, 이때 설악산 시대 화풍을 첫선보임.
- 87년 선화랑, 서울미술관 개인전. 국립중앙미술관에 수집 목기(木器) 300여점 기증
- 88년 박여숙 화랑에 이어 연예화랑, 선화랑, 서울미술관 등에서 개인전
- 93년 박여숙 화랑을 통해 일본 국제아트페어(NICAF)에 참가
- 01년 대구광역시 제정 제2회 '이인성상' 수상
- 04년 6월 열화랑에서 작품집 「김중학이 그린 雪嶽의 四季」를 출간하고, 갤러리 현대에서 회고전을 가지면서 동시에 금호미술관에서 그림작업에 많은 영감을 받았던 그 간의 수집품 목기와 도자기 전시회를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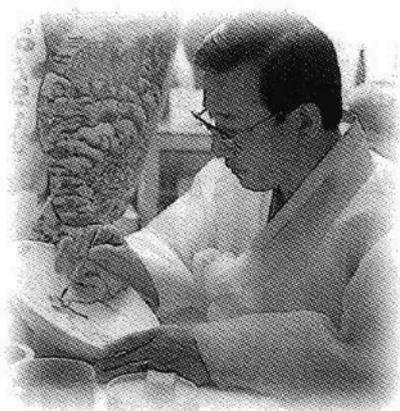
정리 -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도자기 미술의 의의

〈영동 북부지방(속초)의 도자기 문화 고찰〉



도예가 석봉
조 무 호



도예가 석봉 조무호 선생

6.25전쟁이 끝나고 우리사회의 재건의 바람이 한참 이던 1960년, 나는 도자기와 인연을 맺어 어언 반세기에 접어들었다. 당시 무지그릇에 꽃무늬장식을 하여 찻그릇으로 출시하던 때가 생각난다. 지금은 서양문화의 척후병이었던 다방도 옛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도자기도 세월 따라 고운 옷으로 갈아입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1960년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 70년대 산업 중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도예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보여 진다.

고급스런 커피세트와 서양식기 홈세트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도자기가 국가 문화재로 등록되는 와중에 인사동 골동품가게에서는 흙친 물건(옛 골동품)을 팔러 다니는 도굴꾼들과 이를 사서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는 일본인들이 들끓으면서 때 아닌 호황(?)을 누렸던 때도 엇그제 같다. 우리 도자기는 시대에 따라, 정치적이념에 따라 형태나 색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신라토기가 불교적 이미지의 고려청자로 또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이념의 백색 도자기로 바뀌었고 이와 같이 수많은 격변과 파란을 겪으면서 또 한번 일제 침략의 수모를 당해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장 도요도미 히데요시는 전승기념물이라는 미명으로 우리 문화재급 도자기와 도공(이참평, 심수관 일행 약 120명)들을 한꺼번에 일본으로 끌고 가 일본(규슈, 아리따, 가코시마 등지)에서 도자기를 만들도록 하였다.



청화백자사군자용충매병

그리고 빼앗아간 수많은 그릇(유물)들은 일본의 문화재 내지 일본 국보로 지정하고 조선 도공들에 의해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 산업을 일본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져 지금의 일본 특유의 도자기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 후 일본인들은 매년 5월초에 약 10일간 아리따(有田) 지방에서 도조제(陶祖祭, 도지끼 마쓰리)를 열어 조선 도공 이참평씨를 추모하고 일본 도자기 발전을 축하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전통 등요(登窯) 모형 (석봉미술관 소장)

또한 일본인들은 지역에 따라 도자기 형태와 문양도 각기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그로 인해 후일 우리 도자기 문화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바 있다고 본다.

즉 우리는 70년대까지도 발로 물레를 돌리며 재래식 가마(등요)에 장작불로 며칠씩 구어 내는 도자기를 그들은 이미 가스 가마로 단시간에 만들어 구어내고, 그래서 규격화되고 생산성 높은 제품으로 세계시장을 넓혀 가고 있었다.

문화와 DNA는 섞일수록 우수해진다는 말이 있다.

중국의 송·원대 음각청자문화가 고려 상감청자로 발전하였고 조선백자 또한 일본으로 빼앗겼다가 일본문화에 섞여 다시 한번 허

물을 벗고 재창조 되지 않았는가.

그러는 동안 전자, 컴퓨터, IT산업이 전략 산업으로 등장하고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느니, 문화전쟁시대에 돌입했다느니 하지만 이제 우리 도자기문화도 시대 변천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하고 문화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겠다.

나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여주문화원장에 재직하면서 문화민족은 주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문화도 지방화로, 관객을 찾아가는 문화로!”를 구호처럼 외쳐 온지 오래다.

지금 석봉도자기미술관의 속초 이전은 평소 내 신념에 일환으로 결행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이는 속초시에서 지향하는 미래상과 부합이 됨으로서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속초 석봉도자기박물관전경

속초는 맑은 동해 바다와 국립공원 설악산이 있고 거기에 전통도자기 문화와 역사의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마른땅의 단비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속초에 자리 잡고 잠자고 있는 속초의 도예문화를 일깨우고자 한다.

이로써 아름다운 속초의 이미지를 역사와 문화가 곁들인 문화,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석봉도자기미술관은 그 속에서 미래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동 북부지역(속초)의 과거 도자기 문화의 흔적을 살펴보자!!

영동 지역의 도자기 문화는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도자기(용기문토기, 기원전 5500년-6000년)가 발견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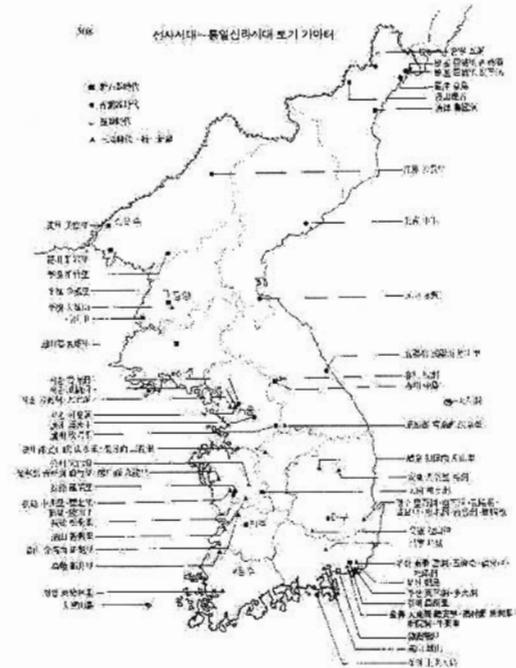
용기문토기 사진

을 시작으로, 속초시 조양동 선사유적지(신석기시대)에서 출토된 굽손잡이 그릇, 신라시대 화랑들이 동해안을 따라 수련하면서 설악산 달마봉 아래 도요지에서 구어 낸 그릇으로 차를 마셨다는 기록 등에서 연유한다.

지금의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일대에는 고려 초기부터 조선조 초기 가마터가 있고 그 일대에는 수많은 사기 파편들이 과거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주변에는 양질 백토가 있기 때문에 질 좋은 원료 공급과 풍부한 땀감 그리고 셋녕(間嶺)¹⁾ 국도 변에 자리 잡고 있어 영동(속초)지역의 도자기 문화를 주도 했으리라 본다.

또한 주변에는 용기 점토가 산재해 있음으로써 조선 후기 고성군 토성면 학야리(용기말)와 속초시 설악동 도문리 일대에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피해 모인 천주교인들이 용

기를 구어 가며 생활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고, 그 후손 중 한분은 속초시 설악동 중도문리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선사시대-통일신라시대 토기 가마터

남쪽으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에 사기장터라는 옛 지명이 있고 실제로 답사한 바에 의하면 조선 중·후기 막그릇을 굽던 백자가 가마터와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우리나라 도자기 분포도를 보면 대개 강변 내지는 서남 해안지방에 자리하고 있다.

1) 셋녕(間嶺) :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인제군 용대리 창바위로 넘나들던 당시의 유일한 영동, 영북 지역 국도로서, 셋녕 정상에는 마장터(당시 말을 쉬게 하고 거러하던 곳)가 현재에도 남아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 지방에서 관요(분원사기)를 운영하였는데 그 도자기 원료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싸리산 백토를 뗏목으로 운반하여 그릇을 구어 한양으로 운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또 그 양질의 백토는 지금도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지역 도자기는 과거의 도자문화를 이어가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반드시 백토 산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했고 찻감과 소비처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가마터를 보면 인구 밀집지역 부근에 많이 분포함을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의 경기도 광주 지방에서 관요(분원사기)를 운영하였는데 그 도자기 원료는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싸리산 백토를 뗏목으로 운반하여 그릇을 구어 한양으로 운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또 그 양질의 백토는 지금도 도자기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경기도 여주, 이천, 광주 지역 도자기는 과거의 도자문화를 이어가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강원도 속초 지방의 도자기 문화는 양구지방의 방산사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과거 속초 부근에서 생산된 그릇은 전 영동지역에도 공급되었지만 보부꾼들에 의해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인제군 용대리 창바위로 넘어가는 샛녇을 통해 내륙지방으로 공급이 되면서 지금의 양구

군 방산면 방산사기 그릇에 기술 이전도 활발하였으리라고 보여 진다.

그 이유는 고성 도원리에서 출토된 그릇 형태와 양구군 방산사기 그릇이 형태나 굽 모양이 같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속초를 중심으로 영동 지역의 도자기문화는 시대를 넘나들며 매우 활발하고 끈기 있게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옛 도요지 분포도에 영동지역의 도자기 기록이 미흡했던 큰 이유는 자연이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부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되어지고, 열악한 소비성 때문에 도자기 제작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탓으로 보여 진다.

오늘날 문화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그 뿌리에 더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때 영동, 북부 지역의 도자기문화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재조명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4. 8.

석봉도자기미술관장

작 가 약 력

성 명 : 조 무 호(趙懋鎬) 아호, 석봉(石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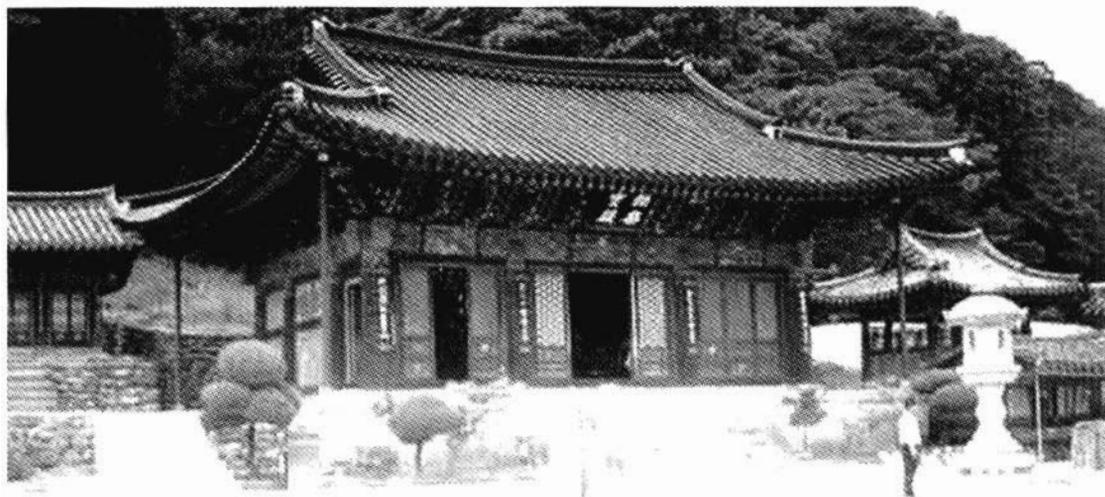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8-57번지

- | | | | |
|------------|------------------------------|----------|-------------------------------|
| ○ 學 歷 | | 1977. | 日本 北九州市長 感謝狀 受賞 |
| 1955. | 五山中高等學校 | 1979. | 日本 東京 "SUNSHINE60" |
| 1957. | 釜山 東亞大學校 應用美術學科 | | 文化館個人展 開催 |
| 1980. | 慶熙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 1979. | 商工部 土產品業體 指定
(第79-11-11號) |
| ○ 社會經歷 | | 1977~80. | 全國 土產品競進大會 特選 |
| 1983. | 韓國 民藝品 競進大會 本選 審査委員 | 1980. | 商工部 民藝品生產業體 指定
(第80-20號) |
| 1990 | 現在. 社團法人 韓國
陶磁器文化振興協會 理事 | 1980. | 大韓佛教美術展覽會 · 勳賞 및 特選 |
| 1991 | 現在. 財團法人 世宗 · 學會 理事 | 1981. | 日本 아리마 石峰陶磁器展示館 設立 |
| 1994. | 驪州郡 文化賞(藝術部分) 受賞 | 1981. | 日本 長崎市 招待展 |
| 1995~99. | 驪州文化院 院長 歷任 | 1981. | 日本 西日本新聞社 感謝狀 受賞 |
| 1998 | 現在. 驪州大學 陶磁器工藝科
待遇教授 | 1982~84. | KBS 陶磁器祝祭 主管 |
| 2000 | 現在. 京畿大學校 造型大學院 講師 | 1983. | LOTTE 百貨店 展示會 |
| 2000~2003.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發起人 겸 理事 | 1983. | 全國 民藝品競進大會 優秀賞 受賞 |
| | | 1984~86. | 올림픽 記念品競進大會 · 勳賞,
特選 受賞 |
| ○ 著 作 | | 1987. | 全國 工藝品競進大會 特選 |
| 1990. | 石峰 陶畫圖錄 發刊 | 1989. | 京畿道 優秀工藝 技能人 指定
(京畿84-3號) |
| 1996. | 靑華白磁大皿(지름 110cm) 기네스북 登載 | 1993. | 國際 美術 展覽會 (SIART 서울展) |
| 1998. | 도자기 벽화, 世宗大王 御眞 및 위업도 完成 | 1995. | 서울 갤러리아 아트홀 個人展
(石峰陶畫展) |
| ○ 作 歷 | | 1995. | 濟州觀光公社 中文美術館
韓日美術交流大展 |
| 1965. | 디즈니 美術院 設立 | 1995. | 서울 世宗文化會館 BESETO
美術展 招請展 |
| 1968. | 石峰陶藝(서울窯) 設立 | | |
| 1971. | 全國 民俗工藝品競進大會 特選 | 1997. | 러시아 韓國傳承陶磁展 招待展 |
| 1972. | 全國 觀光民藝品競進大會 特選 | 1997.10. | 石峰陶磁器美術館 設立 登錄
(文體部 第110號) |
| 1973. | 文化財管理局 指定業體
(第2-1838-26號) | 1999.11. | EBS 교육방송 "다큐 이사람" 프로 방영 |
| 1974. | 全國 土產品競進大會 · 勳賞 | 2000. 6. | 東洋陶磁展 招待作家展 |
| 1974. | 大韓佛教美術展覽會 · 勳賞 | 2001.10. | 세계도자기엑스포 招待作家展 |
| 1976. | 日本 廣島市 SOGO 百貨店
個人展 開催 | 2002. 3. | 石峰陶磁器美術館 속초 이전 개관 |
| 1977. | 日本 北九州市 第15週年記念
招待展示會 開催 | 2002.12. | EBS 교육방송 "이시대의 명장"
프로 방영 |

속초가 극락이다



대한불교조계종제3교구 본사
마 근 신홍사 주지



설악산 신홍사 큰법당의 이름은 극락보전(極樂寶殿)이다. 보통의 다른 절은 큰 법당을 대웅보전(大雄寶殿)이라 하는데 신홍사는 큰 법당을 극락보전으로 현판한 것은 까닭이 있다. 속초지방을 모두 극락세계로 만들겠다는 서원이 이 법당에 서려 있는 것이다.

극락이란 불교의 이상을 가장 구상적으로 묘사한 세계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의 범어(梵語) 수카바티(Sukhavati)를 번역한 이 말은 다르게는 '안락(安樂)' 또는 '安養'이라고 옮긴다. 경기도에 있는 위성도시 안양

은 여기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불교의 대승경전의 하나인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미타불이 교주로 있는 극락세계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娑婆世界 : 참으면서 살아야하는 세상이라는 뜻)에서 서쪽으로 10만억이나 되는 많은 세계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10만억 세계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도덕적 거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극락이란 불교의 이상을

가장 구상적으로 묘사한 세계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란 뜻의 범어(梵語)

수카바티(Sukhavati)를 번역한 이 말은

다르게는 '안락(安樂)' 또는 '安養'이라고 옮긴다.

이 경전의 극락에 대한 묘사는 매우 화려하다. 극락세계는 온갖 보물로 장식돼 있으며 연못에는 언제나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다.

거리는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음악이 넘친다. 여기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극락에 사는 사람들에 관한 묘사다. 그들은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만 하기 때문에 불화와 투쟁이 없고 사랑과 화해가 얼굴 가득하다고 이 경전은 쓰고 있다.

경전의 이 같은 묘사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세계의 모습에 닮아있다.

문제는 그 같은 이상세계를 어떻게 현전화(現前化)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불교의 선사들은 매우 간명직절한 가르침을 베푼다. 옛날 일본의 어느 선사에게 어느날 젊은 무사가 찾아왔다. 그는 선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극락과 지옥이 있느냐'고 물었다. 질문을 받은 선사는 이런저런 비유로 설명을 했으나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선사는 말뜻을 못 알아듣는 무사를 깨우치기 위해 그의 뺨을 한대 후려쳤다. 화가 난 무사는 칼을 빼들고 스님을 찌르려 했다. 그 순간 노스님의 벽력같은 한 말씀.

"잠깐,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젊은 무사는 그 순간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무사는 칼을 내던지고 노선사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

자 노스님이 다시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극락일세."

극락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 한번 바꾸는데 있다는 말씀이다.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극락과 지옥을 수십 번씩 오가면서 살고 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극락에 온 것 같지만 조그만 안되면 곧 지옥에 떨어진 느낌이 든다. 이런 세상에서 한순간이라도 지옥보다는 극락에서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답은 하나 뿐이다. 지옥에 있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다.

이세상은 괴롭다고 얼굴 찡그리고 죽겠다고 아우성친다고 누가 대신 괴로워 해주지 않는다. 하루 24시간 중 지옥에 사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보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렇다면 괴롭다고 찡그리기보다는 내일의 희망을 믿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남는 장사다.

강원도 속초는 전국에서 '희망의 태양'을 가장 먼저 보는 곳이다.

사람들은 그 희망의 아침해를 보기 위해 멀리 서울에서 몇시간씩 차를 타고 내려오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눈뜨고 일어나면 언제나 새로운 태양을 볼 수 있다. 이것만해도 얼마나 다행인가, 속초가 곧 극락이다. 그렇게 믿고 즐겁게 살 일이다. ●

님의 뉘 백담사에서 '부활'

2004 만해축전 성료 - 입적 60주기 행사

사무국

한국불교사상사, 민족운동사, 문예예술사에 불후의 업적을 남긴 만해 한용운(亶海 韓龍雲 · 1879. 8. 19~1944. 6. 29) 선생의 만해 정신이 선생의 정신적 고향인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부활됐다.

'2004 만해축전'이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동안 인제 백담사(百潭寺) 만해 마을에서 열렸다. 만해선생 입적 60주기를 맞아 만해실천선양회(총재 법장 불교조계종 총무원장)와 강원도 등이 주최한 만해 축전에는 만해대상, 제2회 유심작품 시상식, 제2회 님의 침묵 서예전 입상 작품전, 축전시인학교를 비롯해 만해사상을 재조명하는 다양한 심포지엄 등이 열렸다.

첫날 만해축전 개막을 알리는 입재식은 정념 봉정암 주지스님의 만해 평화지중 타종, 신흥사, 낙산사, 백담사 합창단의 삼귀의례, 내빈들의 헌화, 민영시인의 축시 낭송, 마근 신흥사 주지의 고불문, 대화사, 축사, 신흥사 합창단의 님의 침묵 합창으로 진행됐다.

입재식에 이어 제8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열려 벨슨 만델라(전 남아공 대통령 · 평화부문), 신법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장 · 실천부문), 황석영(작가 · 문화부문), 데이비드 맥

켄(미 하버드대교수 · 학술부문), 임권택(영화감독 · 예술부문)씨 등이 수상했다.

한편 '2004 제2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대상(대통령상)은 장지훈씨(서울)의 한문횡서 '등선방후원'이 차지했다.

축전에서 법장 총무원장은 범어를 통해 "만해선사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우리 민족이 고통에 빠져있는 시점에서 죽는 순간까지 일제에 부화뇌통 하지 않고 오로지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라고 강조하고 "우리가 만해의 이름으로 축제를 여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때일수록 당당하고, 목전의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진리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용기를 배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말자"고 했다. 학술부문 대상 수상자인 맥켄교수는 만해의 시 '나룻배와 행인'을 인용하고, "세계의 모든 언어를 넘나들 수 있는 무선 통신 수단을 통해 앞으로 세계의 독자들이 만해의 시를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을 꿈꾸고 있다"고 수상 소감에서 말했다.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장지훈 씨는 "님의 침묵 서예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무대였다"고 소감을 읽으면서 그동안 서예전문 잡지인 월간 '까마' 편집장 등의



노하우를 주최측에 전달, 전국 최고의 대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축제행사에는 축전전야제, 대동제, 시인학교, 고교생 백일장, 유심작품상 시상식, 서예대전, 학술세미나, 문예전시회 등이 함께 펼쳐졌다.

이밖에 일오점등의 밤, 일마라의 밤, 물현금의 밤, 해곡 노태증서에 초대전, 2004 통일시전, 만해를 주제로 한 시서화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한 여름밤 추억의 세계로 안내하였다.

축전 회양식 - 대단원 막 내려

한국불교사상사와 문화예술사에 찬연한 업적을 남긴 한용운 선생의 정신을 기린 제6회 만해축전이 축전시인학교 입교식을 시작으로 개막, 15일 무산 조오현 회주, 이근배 시인학교장, 이상국 운영위원장, 효림스님(실천승가회 대표), 김재홍 만해박물관장, 손흥기 만해마을 문화과장, 박종현 민족문화작가회의 도지회장, 시인학교 수료생과 관람객 등 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전 회양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내년 북한 학자 초청 계획

이상국 만해축전 운영위원장은 “올 축전을 계기로 만해 한용운 선생 선양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를 기대하며, 만해 선생은 남과 북에서 모두 존경하는 인물인 만큼 내년에는 북한학자들도 초청해 만해의 업적을 새롭게 조명해 볼 계획이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도움으로 성황리에 끝나 감사한다고” 했다.

평화·사랑·철학 고양·계승의 계기

정남영 교수(경희대·문학평론가)는 ‘2004 만해축전’(불교시대사 발간)에서 만해기념관과 선양사업이 오늘날 격변하는 국제정세·국내정세 특히 분단 상황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모순과 갈등 및 부조리들이 만해의 자유사상·평등사상·민주사상 그리고 평화사상과



사랑의 철학을 오늘에 되살림으로써 차원높게 고양·계승되는 계기를 더욱 본격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큰 의의라고 결론하였다.

만해마을 문예메카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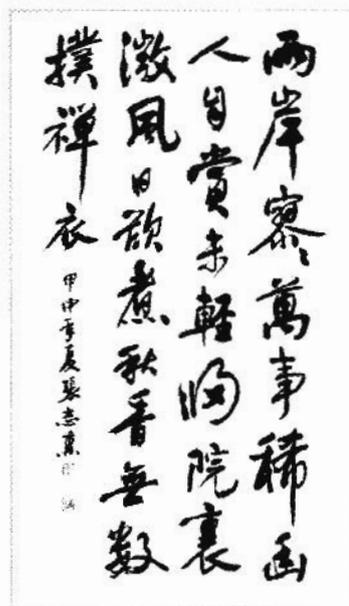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사 마을이 전국적인 문예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만해문학박물관과 만해사 문인의 집에는 문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각종 문예행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줄을 잇고 있다.

올 6월부터 11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토요일문학강좌를 열어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 이경자, 김형경, 김원일, 서석제씨와 시인 신경림, 정희성, 황지우씨 등이 참여해 예비작가 대학생, 청소년 등에게 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연례행사로 이를 계획이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는 문인의 집은 최신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십이선녀탕, 황태촌 등 관광지가 즐비해 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선생의 얼이 서려있는 백

담사는 주변 경관이 워낙 뛰어나 수학여행단과 가족단위 관광객 등 연간 30여만명이 찾고 있어 인제 지역 최대 관광지로 우뚝 서고 있다. ●

제2회 님의 침묵 서예대전 대통령상 '등성방후원' - 장지훈



속초 계를 먹다

- 松齋 李堦 선생의 詩



경동대학교 교수, 시인
李堦 이 만 식

예로부터 수많은 문객의 시재(詩材)로 늘 사랑 받아온 설악의 둘레, 이 곳 영북 지역의 문예사에 또 하나의 절편으로 남을 옛 시를 소개한다.

특히 이 고장을 전아하고도 정교하게 그리고 정분 있는 시정으로 노래한 송재 선생의 시를 더하니 한결 넉넉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영상의 세계에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그리 많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송재 선생의 관동 작시에서 우선 이 고장과 밀접한 양양 관련 소재의 시 7편을 소개한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고성(간성) 관련 10여 편의 것은 후일에 다시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1. 속초가 보고 싶다

출타했다가 미시령이나 물치 정도에 오면 내가 속초를 그리워했음을 안다. 사람도 사람 이려니와 이 고장의 이곳저곳 경이로움이 이제는 제법 향수로 자리 잡았는가 보다.

어디 한 곳 흥취를 지니지 않은 풍광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영동의 풍취만한 곳을 쉬 만나기 어렵다.

십년 가까이 살다보니 명소 곳곳은 다 탐하여 틈틈이 구석구석 둘러보는 게 요사이 또

달리 사는 맛이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 설악의 둘레에 와 본 시인치고 시를 읊조리지 않은 이는 없으리라 여기고 그 향취를 찾는 게 또 하나의 연찬이자 낙이기도 하다.

건성으로 다녀간 이가 아니라면 산과 바다와 그리고 하늘까지 그윽한 삼재의 조화를 필시 느꼈을 테이고, 시인이라면 한껏 들뜬 심상을 펼쳐 놓았으리라.

특히 우리 조상들은 이 곳에서 물아일체의 순간에 신선이 된 듯 도취하였으니 간혹 서책에서 관동 그것도 영북에 관한 시를 만나면 더없이 행복하다.

그런데 이 천혜의 고장에서 나는 꽤 안타까

운 것을 여러 지인들에게 말하고 제안한 바도 있다. 수 천편의 가작을 남긴 시객들을 한자리에 모은 일을 이 고장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이 곳을 노래하고 아름답게 형용한 시를 모두 모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뜻을 두면 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다.

많은 문화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김삿갓 문학관, 토지문학관, 그리고 이효석, 김유정 문학관 등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소재가 이곳에는 있다. 예로부터 이 고장은 모든 음유 시인의 고장이요 자연에 대한 감흥의 산실이었다. 그러므로 수많은 절편이 있는 만큼 이를 엮은 단행본이나 시리즈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이런 생각에 톡톡이 시를 모으면서, 이 고장에 사는 나보다도 더 섬세한 촉수로 그려놓은 시를 만나면 감탄과 더불어 그 시상을 흠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리한데 더 실망스러운 것은 이곳 명소에서 만나는 인공물에서의 시편들이다.

돌비석이나 현판에 또는 관광 상품의 인쇄품에서 보면 졸작도 이만저만 아닌 시를 실어 놓거나 새겨두고 있으니 풍광이 눈을 돌릴까 조마조마 하다.

설악을 노래한 이는 설악을 그리워 한다.

동해를 노래한 이는 동해를 꿈꾼다. 이러한 모든 이들은 속초를 늘 다시 보고 싶어 한다.

2. 송재와 관동

예나 지금이나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영북은 자연에 대한 송찬의 시적 영감을 주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불박이로 사는 사람들

제외하고 송재 선생과 같이 수 십 편의 시를 남긴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송재(松齋) 이우(李隅)는 1469(예종1)~1517(중종 12)의 조선 중기 문신이자 시인이다.

선생은 강원도 관찰사와 여러 번 어사를 지낸 바 있어 영동을 드나든 인연이 있다.

그리고 그의 조카가 퇴계 이황이며, 퇴계는 어릴 적 양친을 모두 여원지라 숙부인 송재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12세에 《논어》를 배웠다. 딱히 스승의 문하를 갖지 못했던 퇴계로서는 늘 은혜를 깊게 간직하고 있었다.

송재 선생은 1469년 경상도 안동부(安東府) 예안현(禮安縣) 온계리(溫溪里), 지금은 경상북도 안동군 도산면 온혜동 집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진성(眞城-眞寶에서 개칭)이며 자는 명중(明仲)이며 송재(松齋)는 호이다.

1492년(성종 23) 24세에 생원이 되고, 1498년(연산군 4)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 정자에 임명된다.

이어 예문관검열·대교·봉교를 거쳐 1501년 성균관전직에 올라 사간원정언·이조좌랑·사헌부헌납·병조정랑 겸 지제교·사헌부장령 겸 춘추관기주관·봉상시첨정·사간·군기시부정 등을 역임하였다.

1506년 동부승지에 임명되어 지제교와 춘추관수찬관을 겸하였다가 입직하던 날 중종 반정이 일어나 이에 협력하였다.

그 공로로 정국공신(靖國功臣)4등에 녹훈, 청해군(靑海君)에 봉해지고 우부승지로 벼슬이 승진되어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을 겸하였다.

1508년(중종 3) 부모 봉양을 위하여 외직을 희망, 진주목사로 부임하여 청렴하고도 검소하게 살면서,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 왕으로

부터 특별히 표리(表裏)를 하사받았고, 이듬해 동지중추부사로 전임,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부총관·형조참판을 거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고 임기를 마치고 양친봉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그 뒤 안동부사, 경상도 관찰사 등을 지내기도 하였으나 여러 번 병과 아버지 봉양을 이유로 사직한다.

문장이 맑고 전아(典雅)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시에 뛰어나 산천의 명승을 읊은 시편들이 《관동록 關東行錄》·《귀전록 歸田錄》에 실려 있다. 최숙생(崔淑生) 등의 사류(士類)와 친하였다. 예안의 청계서원(淸溪書院)에 제향되었다.

송재 선생과 강원도의 인연은 36세(1504년, 연산10)에 강원도 적간(摘奸)어사(御使)로 차견되고부터 시작된다. 두루 친숙하기는 42세(1510년, 중종5)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고서다. 이 때 중종실록에 실린 중종의 교시는 이러하였다.

“민생의 편안과 걱정은 수령에게 달려 있고 수령을 올리고 물리침은 관찰사에게 달려 있으니 경은 마땅히 마음을 다할지어다. 강원도는 땅이 메마르고 백성들이 가난한데 이것에 더하여 흉년이 들었으니 힘껏 무휼하라”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로 가기까지 약 1년 3개월간 강원도를 시찰하면서 틈틈이 글을 써 남긴 저서가 《關東行錄》이다. 짧은 기간임에도 110편의 빼어난 시를 남기고 있으며 이 중 영북의 시가 20여편이 된다.

이 관동록의 발문을 쓴 이는 신숙주의 손자였던 이락정(二樂亭·성명은 申用漑이며 중종 때 좌의정을 지냄)선생인데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 난 곳과 고적은 오직 관동을 첫째로 치는데, 내 젊어서부터 한 번 놀기를 원했으나 하지 못하고 지금 늙었다.

사람들이 좋은 경치를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은 늘 영동에 있었는데. 명중의 보행록을 얻어서 남김없이 다 정돈한 것을 즐기고, 그 울격이 정교하고 예스러움을 아껴서, 늘 책상 위에 펴두고 읊어서 그 맛을 완상하니, 비록 아직 그 곳에 가보지는 못했으나 마음과 눈이 함께 열려 이미 그 경치를 다 알 수가 있다.

어찌하여 이 행록이 능히 나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는가. 고금의 시를 짓는 사람을 보건대 모두 그 말을 공교롭게 꾸미는 사람도 그 실재를 궁구하지 못하고, 바깥을 꾸미는 사람은 안을 놓쳤으니, 바다를 말하면서 강하와 혼동하고, 뱀새와 매추리를 읊으면서 또한 이것을 독수리와 봉새에 비기니, 어찌 능히 사람이 그 진실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행록은 빛나고도 실질이 있고, 법에 맞으면서 아담하여 문자의 바깥에 힘들이지 아니하고 읽어, 이를 맛보면 문 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바다와 산의 진상을 천리의 먼 곳에서 얻을 수 있으니 동해가 소매 속에 있다고 할 만하다.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 돌 수가 없다. 그러니 내 마음에 무엇을 잃은 것 같다.

훗날 조카인 퇴계는 묘갈지에 다음과 같이 애도의 글을 쓰고 있다.

문장을 지으시면 조출하고 넉넉하면서도 법칙에 맞아 아담하였으며, 더욱 시에 뛰어나셔서 당대에 이름 난 선비와 만나시면 반드시 술을 시키고 시를 읊어 유쾌하고 즐거워서 무아경에 빠지시니 쇠를 두드리고 돌을 치는 풍악도 이보다 더 즐겁지 아니하였다.

3. 양양(속초)에 관한 시

食蟹 속초 게를 먹다

草泥風味昔曾嘗
초이(속초)의 풍미는
예전에 일찍이 맛봤으나
十載持杯右手空
십년 세월 실어 잔 잡으니
빈손으로 살아왔네.
誰道關東無好客
관동 길 좋은 객이 없다할지라도
樽前今對內黃公
술동이 앞에 놓고
내황공(게)를 대했도다.

이 시에서 흥미로운 것은 '草泥(초이, 초니)' 라는 지명이다.

속초를 일컬었던 것으로 송재집에서는 주석을 달고 있어 속초가 '수풀, 떨, 갈대, 질흙' 의 토양이었음을 잘 말해준다.

지금의 노학리가 된 '노리(蘆里)'에서 보듯 갈대가 무성하였고, 500여 년 전의 속초는 상상 이상으로 동해에서는 보기 드문 서해 풍광을 지녔는지도 모를 일이다.

여기서 '내황공'이란 게의 별칭으로서 소동파(蘇東坡)의 매부인 황산곡(黃山谷)이 즐겨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襄陽路上 양양 가는 길

濊貊山水國
예맥은 산수 좋은 나라
遊賞多仙徒
유람한 신선 무리 많았으니
我雖非眞仙
我雖非眞仙
내 비록 참 신선이 아닐지라도
嘗爲山澤懼
嘗爲山澤懼
산 찾아 물 찾아 여위었네.
千載躡遺踪
千載躡遺踪
천년 세월 남긴 자취를 밟고
一一尋名區
一一尋名區
이름난 경계 하나하나 찾아보니
名區舊所聞
名區舊所聞
이 곳 명소 소문 들은 지 오래라
況復披輿圖
況復披輿圖
다시 지도를 열어 보네.
目與耳先詣
目與耳先詣
귀에 먼저 익은 곳 바라보니
不甚驚睢眙
不甚驚睢眙
눈 부릅뜨고 놀라도 지나치지 않고
時於幽隱處
時於幽隱處
때로 그윽하니 숨은 곳은
耳目會所無
耳目會所無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漁鳥不駭人
漁鳥不駭人
고기와 새는 사람보고 놀라지 않고
花竹集榛蕪
花竹集榛蕪
꽃나무 대나무는 수풀 한데 뒤섞였으니
入眼卽爲新
入眼卽爲新
보는 것마다 새로워라.
暗與心相娛
暗與心相娛
내 마음 몰래 마냥 즐거워라.

乃知嶺海間

알겠노라, 산봉우리와 바다 사이

奇勝不會孤

그 절경 외따로이 아님을.

一拳與一勺

한 줌의 들, 한 구기 물에도

處處堪携壺

곳곳마다 술 한 병 청할 만 하구나.

如游合浦裏

합포 안을 노니는 것처럼

所得皆明珠

얻은 것은 모두 밝은 구슬

浪迹任累繭

유람길 누건처럼 밭 부르터도

萬事視樛蒲

많은 경치 건성으로 보고 말았네.

欲將吟頌略

훗날 대강 읊으려 하여도

詩不與景謨

시는 경치를 다 못 담으려니

若信身可化

만약 변신술이 정말이라면

更作畫師來東隅

화가 되어 다시 와 관동 한 녀를

磨]功數幅鵝溪中

정성스레 닳아 벼루와 먹으로 몇 폭 담아

一掛松齋

한 폭은 내 집 '송재'에 걸어 두고

相對終吾軀

이 한 몸 다하도록 마주 하리라.

예맥은 고대의 부족국가로서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에 있었다. 특히 동예(東濊)는 고대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종족으로 금강, 설악권

일대가 그 본거지가 추정된다.

실제로 의복만 약간 달랐을 뿐, 풍속과 언어는 고구려와 같아 고구려와 같은 족속이라고 생각하였고, 2세기 후반 이후 동예는 고구려 지배하에 들어가, 광개토대왕 대에 완전히 고구려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사학계에서는 대체로 보고 있다.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였고, 마포(麻布)와 양잠(養蠶) 기술이 발달하였고 한다.

동예인은 별자리를 관찰하여 그해 농사의 풍흉을 예고하였고, 매년 10월에는 하늘에 제사지내고 밤낮으로 음식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제천행사를 행하였는데, 이를 무천(舞天)이라 한다.

특산물로는 반어피(班魚皮)·표범가죽·과하마(果下馬)·단궁(檀弓) 등이 알려졌다.

이러한 예(濊)의 땅은 산수가 좋아 신선이 자주 노닐 곳으로 즐겨 시문에 묘사되고 있는데, 비단 신선 뿐 아니라 신라 화랑을 신선에 비유한 많은 시도 오늘날 전해지고 있음을 볼 때, 은거 생활 또는 신선놀음 같은 유희자극한 유람 이외에 도 심신 수양을 위한 적지였음을 말해준다.

송재 선생도 이러한 곳에 대한 소문만 들어 오다가 실제 와보고서야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운 풍광에 매료되어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감당치 흥분을 시로도 다하지 못하여 화폭에 담아두고자 하는 그의 발상은, 나도 언젠가 설악에 들면서 사진 작가가 되었으면 더 나았으리라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문우들도 그러했으리라 본다.

襄陽東軒韻 양양동헌

嶺控於西海控前
 한계령은 서쪽에 둘러서고
 바다는 앞자락에 펼쳤으니
 樓臺歌吹度長年
 누대는 노래와 짓대소리로 오랜 세월 지냈다.
 臘深風檣五峯雪
 선달 깊어 바람은 오봉산 눈발을 날리고
 炊晚村橫百里烟
 저물 녘 밥 짓는 연기,
 마을을 질러 백리에 뻗었구나.
 鯨浪北來坤動軸
 북에서 밀어닥친 고래등 물결
 지축을 흔들더니
 瘴雲東捲月生天
 동쪽에 먹구름 걷히니 하늘에 달이 뜬다.
 洛山紺宇宸游處
 낙산사 감색 처마, 임금님 노닐던 곳
 滿壑松濤殷石泉
 골짜기 가득 소나무 물결, 돌샘도 많구나.

次襄陽東軒韻 양양 동헌 두 번째 시
(첫 번째 시에서 운을 빌음)

人曾探討幾吾前
 일찍이 나보다 먼저 와 구경한 이 몇일까?
 自笑來遊已暮年
 늙어가는 나이에 와서 유람하니
 스스로 우습기도하다.
 架海樓臺噓有振
 누대는 신기루인양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하고

近簾山翠滴爲煙
 발 가까이 푸른 산빛이
 방울져서 연기가 된다.
 春磨凹石猶初劫
 오목하니 닳은 돌은
 아직도 새벽의 긴 시간 중에 있고
 偷負沈碑半夜天
 물에 잠긴 빗돌 한밤중에 훔쳐 지고 왔지.
 病後枯喉思雪乳
 병후에 마른 목 신선주 간절하니
 中泠一煮五峯泉
 오봉산 맑은 샘 끓여 술을 내려 빚자.

양양 동헌을 읊은 시로서 평화롭고 고적한 양양 고을 풍경과 낙산 일대의 전경이 그림같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낙산사 일대의 풍광과 더불어 임금(조선시대 세조가 오대산 상원사를 참배하고 나서 낙산사에 들렀으며 이 때 홍예문과 삼층 석탑 등 크게 확장 조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이 머문 사실도 언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오봉산 샘물이 유명했음을 드러내고 있어 흥미롭다.

襄陽東軒菊 양양 동헌의 국화

我不如陶令
 나는 도연명이 아니니
 採汝東籬下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너를 따라.
 峴山非南山
 현산은 남산이 아니니

悠然眞趣寡

유유로이 보는 참 멋 나는 모르겠네.

客窓尙幽靜

객지살이가 오히려 그윽히 고요하여

頗可敵山野

산야와 자못 견줄 만하고

興來病不禦

병세도 흥겨움을 막지 않으니

青樽堪一把

술 한 두루미 잡을 만하다.

屈汝隱逸姿

숨어 사는 네 자태에 허리 굽혔으나

我豈眞苟且

내 어찌 실로 구차하리오.

相逢官道中

벼슬살이 길에서 서로 만났으니

汝亦非靜者

너도 또한 고요한 자 아니로다.

簫簫風雨夕

쓸쓸하게 비바람 치는 밤에

依依不相舍

서로 서로 의지하여 버리지 말자꾸나.

降仙驛 강선역

雪後剛風動海堧

눈 온 뒤 세찬 바람 바닷가 몰아치니

琪花開遍洞中天

구슬 눈꽃 두루 피어 온 마을 환하다.

樵翁踏作瓊瑤迹

나뭇짐 늙은이 발자국마다 옥구슬이 생기니

疑是華陽謫老仙

화양에서 귀양 온 늙은 신선이 아닐는지

‘양양동헌국(襄陽東軒菊)은 병들고 쓸쓸하지만 고적한 산천 흥취에 위안을 삼으면서 국화에 의탁해 절의를 노래하고 있는 서정적 관념성이 돋보인다.

이에 비해 강선역(降仙驛)은 상상력과 회화성이 돋보이는 서정시의 경지를 보여준다.

설악산은 산이 높은 만큼 그 계곡도 깊다. 더구나 기암으로 이루어진 천길 절벽이 즐비한 심심유곡은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을 풍광일 것이다.

송재 선생도 이러한 설악산을 회고컨대 특히 기암의 계곡에 대한 영상이 가시질 않았던 모양이다.

많은 설악산의 전경을 묘사한 시들이 있지만 다음의 한계산(寒溪山)은 특히 빼어난 묘사로 설악산의 면면을 잘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하고 싶다.

寒溪山 설악 한계산

我從嶺東來

영동에서부터 오고 보니

奇觀所歷遠

기이한 경관 저 멀리 다 지났구나.

巖岬而浩洋

숫구쳐 오른 산, 드넓은 바다

牢籠一詩圈

한데 어우러져 시집 한 권에 담겨 있네.

寒溪雖在西

한계산은 비록 영서에 있으나

川源山脈相連混

강의 근원, 산의 맥은 서로 이어 있다네.

周遭毀堞何代城

둘러진 낡은 성터 어느 대에 쌓았을까

一條白練穿重巖
 흰 비단 한 줄기 물 암능 뚫고 흘러와
 散爲百虹飲萬壑
 흩어지며 온갖 무지개 되어
 水漫 구렁에 내리니
 兩邊晴雷殷半巖
 양편 계곡가 우레 소리 산허리까지 차오르네.
 左右翠壁挾一水
 좌우 푸른 절벽 물 한줄기 끼고 있는데
 三十六渡巧往返
 서른여섯 나무 이리저리
 公교로이 건너게 하네.
 樹木森聳傍無枝
 나무숲은 곁가지도 없이 곧게 솟아
 上戛雲霄爭僂蹇
 하늘 위로 긴 창 겨루듯 거만하고
 千仞南峯獨
 천 길 남쪽 봉우리 홀로 서있어라.
 一泓巖作巖
 바위에 일렁이는 깊은 소 맑은 물
 清泉生仄罅
 갈라져 기울어진 틈새 맑은 샘이 솟고
 坡陀石爲阪
 비탈진 돌은 언덕길이 되었네.
 緣崖細蟻曲復斜
 벼랑가 좁은 길, 뱀 같이 휘어지고
 呀然窅穴迷混沌
 입 벌린 동굴은 텅 비어
 昏돈처럼 미혹하누나.
 我行漸盡景不盡
 내 갈 길 끝나는데 경치는 끝이 없어
 西與江流同衰衰
 서편으로 흐르는 강물
 더불어 점점 작아지네.

欲待東嶺月全吐
 동쪽 산마루 휘영청 달이 떠오르면
 却向清冷騎赤魚
 신선인양 청령포로 가 붉은 잉어를 타고
 隨波上下恣幽討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그윽한 곳 찾으면
 局促不效窮途阮
 아무리 곤궁해도 완적처럼
 통곡하며 돌아서지는 않으리.

죽림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이 홀로 수레를
 몰고 가다가 앞서 지나간 자취가 없자 울며
 돌아섰다는 진서(晉書) 완적(阮籍)의 고사가
 마지막 행에 나타난다. 설악의 한 곳곳이 송
 재 선생에게는 무릉도원임을 완적에 빗대 자
 신은 아무리 궁하여도 돌아 서지 않고 정착하
 리라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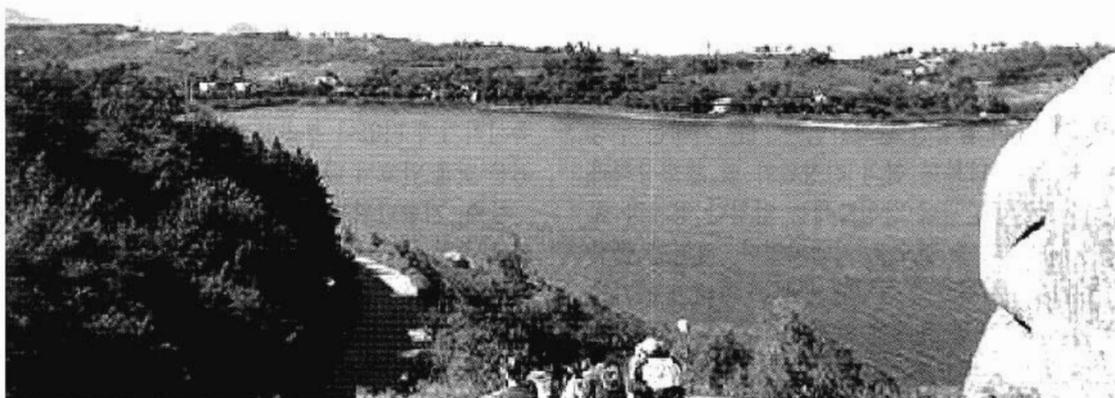
이 시는 특히 앞서 이락정이 평한 대로 품
 격이 있으면서도 실질이 담겨 있다. 읽어 이
 를 맛보면 문 밖에 나가지 않고서도 산의 진
 상을 천리의 먼 곳에서 얻을 수 있으니 그 풍
 광이 소매 속에 있다고 할 만하다 고한 뜻이
 헤아려지는 시이다.

4. 덧붙인 말

송재 선생의 관동 작시에서 우선 이 고장과
 밀접한 양양 관련 소재의 시 7편을 소개하였
 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고성(간성) 관련 10
 여 편의 것은 후일에 다시 기회가 있으리라
 본다.

번역의 근간은 송재 선생이 외조상이라고
 밝히고 있는 당대의 박학 김형진에 의존한 바

예맥은 고대의 부족국가로서 강원도와 함경도 일대에 있었다.
 특히 동예(東濊)는 고대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종족으로
 금강, 설악권 일대가 그 본거지가 추정된다.



이를 참조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대 국어로 번역하였으나 시역이 어눌하다. 이 고장에 살면서 익히 이 시편들이 묘사하는 풍경을 내 나름대로 물아경으로 접한 바가 더러 있어 서인지 번역이라기보다 다시 승경을 탐하는 기분이다.

그리하여 부족하나마 가능한 시흥을 살려 시역하려 애썼다. 어긋나는 점은 제현의 가르침을 구한다.

문객들의 시재(詩材)로 늘 사랑 받아온 영북 지역의 문예사에 특히 이 고장을 전아하고도 정교하게 그리고 정분 어린 시정으로 노래한 송재 선생의 시를 더하니 한결 넉넉한 느낌이 든다.

우리들의 선조가 또 동시대의 많은 시인 묵객들이 그리고 이제는 디지털 영상의 세계에 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천혜의 자연을 그리 많은 발품을 팔지 않더라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일상 한가운데에서도 내 나름대로의 관찰법을 가지고 여유롭게 설악산과 바다를 바라보기를 스스로에게는 물론 모두에게 권하고 싶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교훈을 얻을 수도 있을 것ियो, 위안과 평화를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만의 미학적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를 오래 간직하며 늘 되새기는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설악-금강의 共存 : 문제와 과제



정 문 현
국회의원

오는 11월이면 금강산 관광사업이 6주년 을 맞이한다.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의 동해항 출항으로 관광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들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거는 기대는 무척이나 컸다.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과 함께 금강산관광이 강원도에는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시작으로 설악권 관광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유람선 관광에 이은 육로 관광 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기회가 생겼지만 얼마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다시금 우리는 금강산 관광 6년을 되짚어보고 설악권 관광 활성화에 대해 고민과 함께, 설악-금강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설악권 관광의 문제점 : 천편일률적인 관광 아이템

금강산개발의 본격화로 설악산 관광이 타격을 입었다고는 하나 그동안 설악권이 변화에 둔감했고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우선 설악권 관광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자.

첫째, 타지역과 차별화된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양한 관광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설악산과 해변을 둘러본 후 콘도미니엄이나 여관 등의 숙박시설에서 시간을 보내는 매우 단조로운 관광형태를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이다.

산과 바다를 동시에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관람, 등산 등의 관광활동에 이어서 설악산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기에는 부

족하고, 바닷가에서 회를 먹는 것 이외에는 해변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활동이 거의 없다. 이러한 관광형태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관광객들은 뭔가 아쉬운 맛을 안고서 다녀가고 있다.

둘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시설과 이벤트가 부족하다.

주5일제와 함께 가족관광객을 잡는 것은 우리 관광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규모 콘도 시설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위한 시설과 이벤트를 특화시킨 아이템이 부족한 실정이다. 결국 가족단위 관광객의 감소가 설악관광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수용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하지 못했으며 홍보 노력이 많이 부족하였다. 이 점은 설악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지난해 강원도를 찾은 관광객이 약 7천만명에 달하지만, 외국인은 약 102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하고 준비하고, 또 어떤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개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관광개발과 도시계획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원화되어 관광지로서의 색깔을 살리지 못했다. 설악산에 기반한 산악형 관광과 동해를 살린 해안형 관광자원을 상호 접목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울러 남북 관광교류의 거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설악권 관광의 잠재력 :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프라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설악권은 발전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광 인구면에서 절대적으로 타지역보다 우위에 있다. 설악산국립공원만하더라도 연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이며, 금강산관광과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방문객을 고려하면, 분명 설악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관광지임과 동시에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에 틀림없다. 둘째, 한반도의 대표적 자연자원으로 북방관광의 거점이다. 설악권 관광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형 관광자원과 청정동해의 동해안 관광벨트의 해안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또한 금강산 관광으로 설악-금강 연계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 중국 등과의 교류 기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셋째, 접근성의 발달로 관광인구의 유입이 용이해졌다. 비록 탑승객의 부족으로 인해 운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기는 하나 양양국제공항이 있고, 영동고속도의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아졌다. 이에 더해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수도권과 해외로부터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개발여건의 성숙이다.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전 국민이 관광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아졌으며 성수기 비수기의 구분 없이 사시사철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설악지역은 휴양 및 휴식을 추구하는 관광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설악권의 개발여건은 계속 성숙되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진다.

설악-금강 연계관광의 필요성 :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설악산의 위와 같은 발전가능성은 금강산 관광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더욱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연계관광의 개념은 '서로 다른 부

문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관광'이다. 하지만 설악-금강 연계관광은 단순히 개념차원에서의 다른 부문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의미 그 이상이다.

설악-금강 연계관광은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는 관광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를 전제로 한다면 설악-금강 연계관광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을 가진다.

첫째, 설악-금강 연계관광이 주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크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설악권 관광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남북분단에 기인해 설악과 금강지역이 서로 고립적이면서도 관광사업에서 경쟁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금강과 설악이 이런 경쟁적이면서도 고립적인 관계를 탈피하고 상호연계된 관광권역을 형성할 경우 관광자원의 극대화와 함께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증대될 것이다.

둘째, 백두대간으로 연결된 금강-설악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연계관광이 더욱 요구된다.

두 지역은 남북 분단의 접경지역으로 접경지역의 환경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금강-설악 연계관광이 필요한 것이다. 연계관광을 통한 설악산과 금강산의 종합적 관리는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무분별하고 환경파괴적 개발보다 환경의 보전과 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 이익으로 분단된 남북강원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계관광은 이루어져야 한다. 설악산 지역은 해안경제철조망 등 군사시설로 인해 개발의 제약을 받아왔으며 특히 최근의 발표된 백두대간보호법은 지역 개발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물론 규제는 금강산 지역이 더 심할 것이다. 따라서 설악-금강 지역의 연계를 통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만 지역경제발전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계관광을 통해 지역 발전에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시키고 친환경적개발을 통해 관광특구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투자는 확대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 경제에 커다란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설악-금강 연계관광의 방향 : 지역경제와 남북교류협력

지금까지 설악-금강 연계관광에 대한 당위성의 강조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들이 당위성 강조의 수준에만 그치고 현실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원한 답변을 제시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설악-금강 연계관광은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고 강원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복합적이면서 특별한 의미를 지지고 있다. 특히, 연계관광을 통해 남과 북의 우리 강산의 멋과 정취를 비교도 해보고, 분단이 주는 교훈을 젊은이들에게도 제공해 주면서, 새로운 국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계관광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분단된 한반도와 강원도의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복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관광사업의 연결이라는 단순 의미보다 분단된 백두대간을 잇고 자연과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상징적이면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연계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커다란 흐름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6년 동안 이루어져온 금강산 관광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그 시작이고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남북관계, 주변정세의 정치·외교적,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추진되어야만 지속적이면서도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설악-금강 연계관광이 단순한 남북접경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지의 관광수요를 겨냥한 국

제관광도시육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계관광의 마지막 방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이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 국가차원의 사업이기는 하나 해당지역인 강원 지역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지역 개발에 따른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수익이 지역민에게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계관광을 위한 우리의 과제 : 수요창출을 위한 관광서비스의 기반 구축

설악-금강 연계관광은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금강산 관광의 시작과 함께 우리는 '설악관광의 공동화(空洞化)'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금강산 관광 역시 1998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6년간의 관광객 수는 약 60만 명에 그치고 있다. 자칫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설악관광 모두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악-금강은 연계관광을 통해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연계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적·물리적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관광객이 없다」, 「수요가 없다」라는 점을 논하기 전에 일단 우리는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공급차원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접근성의 증대와 함께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금강-설악이 남북협력지원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에서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는 관광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함께 설악-금강 연계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설악권 - 금강권 연계개발 추진방향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
김희철

▶ 문제의 제기

그동안의 남북경협은 그 일방적 시혜 성격과, 그 시혜에 대해 핵무기 개발로 응수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해 부정적인 비판을 스스로 불러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의 상징적 의미와 그로 인해서 비롯된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변화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남북 교류의 규모와 양의 확대는 언젠가 북한내부의 질적 변화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희망이 남북교류를 떠받치고 있는 철학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은 협력과 교류를 토대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강산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인 참가인원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육로를 열고 폭넓게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사업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여 금강권 개발의 활성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경험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통일지향적경협]을 추진하는데 반해 북한은 경험을 통해서 체제를 확고

히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체제수호적경협]을 지향하고 있다.

사실 '금강산 관광사업'은 체제와 관습이 너무나 다른 북한이 사업 파트너라는 점에서 엄청난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만약,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남북관계 전반이 경색 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고, 우리 대북 화해 협력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대북 포용정책의 추진력을 떨어뜨리게 되어 한반도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지난 '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오는 2004년 11월 18일로 6주년을 맞게 되고, 지난 2003년 12월 2일 380여명이 첫 육로 관광에 나서는 등 2004년 4월~7월 관광 최성수기에는 하루 1,000여명 이상이 육로 관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중단없는 금강산 관광'을 환영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설악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이며 급부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설악권 일원의 관광객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현재로서는 육로관광이 설악권 지역에는 아무런 경제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 설악권 관광의 현주소와 문제점

‘금강산 특구’를 세계적인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실행 될 경우 우리 설악권 관광은 날로 추락하여 누가 설악산 흔들바위에 올라가 탄성을 지르고, 설악산을 매력적이라고 할 것인가?

강원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설악권~금강권 연계개발’을 지상과제로 외쳐왔다.

금강산 개발이 활성화되면 설악권도 잘 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강권의 ‘신비성’과 자연 경관의 경쟁력이 뛰어나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국내·외 관광객을 금강권으로 빼앗기는 웃지 못할 비극적이고, 현실적인 위기의 도래를 이 지역 주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금강산 육로 관광의 실익을 챙기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 ‘금강산 육로관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환경 부담금 징수’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현대아산 등 중앙 관계 요로에 건의하였으나 1박 2일의 관광 상품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본격화되면 육로관광과 연계해 설악권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지역에 실익은 커녕 행정지원 부담만 가중되고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실익은 고사하고 교통 혼잡만 가중되어 쾌적한 관광지 보전을 위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설악권 지역을 최근 3차례에 걸친 태풍으로 인하여 도처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접근도로망이 훼손되어 자연경관이 날로 황폐해지고 있어, 관광지의 완전 정비에 나서고 있으나 영구적인 복구사업이 사실상 지연되고 있어 자연으로서의 관광 상품의 가치가 크게 추락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전체면적의 83%정도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어 높고 아름다운 산과 숲을 모체로 맑은 물, 신선한 공기, 그리고 212km의 해안선으로 이어지는 청정 동해 등 자연관광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서 우리도 전역을 국민여가 지대로 계획하고 보존위주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서 우리지역 개발이나 주민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단일 국가로는 드문 반만년의 역사와 그 토착문화에서 문어나는 향기와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삶의 모습, 단아하면서도 섬세한 문화유적과 고품격의 전통예술 등이 ‘벨기에의 오줌싸개 동상’이나 ‘텐마크의 인어상’ 등과 같이 포장되어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남아 있다.

주5일 근무가 본격화되면 무엇보다 직장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필연적으로 주말을 이용한 레저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나, 주말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문화, 레저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금년도 해수욕장이 개장된 후 지난 8월 16일까지 동해안 99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2,300여만명, 지난해 같은 기간 2,000만명보다 약 15% 정도가 늘어 올해 목표 2,300만명을 달성하였지만, 연중 최대 대목이라는 피서철 동해안 상경기는 밑바닥을 헤맸다.

▶ 대응방안

정부가 강원도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국가 자원을 보존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휴식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여가지대로 지정한 만큼 국가 계획 구현이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아래의 몇가지 방법을 실천에 옮기고, 강원도내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 '강원관광지원법(또는 관광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길 촉구한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설악권과 금강권 공히 정부 자금 지원을 계기로 '설악권~금강권 연계 개발사업'이 동시에, 그리고 조기에 공공적 성격을 갖는 관광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원-원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금강산 산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관광객들은 금강산 산행을 하되, 금강산에서 머물 여행객은 머물게 하고 설악권에서 마무리를 할 여행객은 설악권으로 이동하는 식의 금강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해안과 설악산을 연계해서 관광권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설악권에도 금강산관광특구와 같은 면세점을 개설하고, 북한 상품도 함께 취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산과 물, 그리고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필요한 민·관의 환경사업이나 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시설·확충과 사업 추진을 촉진시켜 나가는 한편 관리비용도 경감시켜 줌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보면 국토 종합개발계획에서 계획한 다른 사업들에 대하여 모든 여건이 충

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많은 투자를 하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설악권도 이와 동일한 정부의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관광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제조업과 건설업을 관광산업의 연관 및 지원 산업으로 병행 발전시키는 산업정책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포구를 끼고 있으면서 바다와 근접한 반월형의 아담한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은 바다 내음을 맡으면서 조망할 수 있는 횃집단지 조성이 시급하며, 대형 '오션 마켓'을 조성하여 맛을 즐기며 구입해 갈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시급하다.

관광산업을 통해 제고된 국가 이미지는 그 나라의 상품 수출에 카펫을 깔아주는 역할을 한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간접자본 구축 등 다른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특성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면서 관광단지 숙박·교통 등 기반시설 확충에 가속이 붙어야 한다.

관광수용을 위한 중저가숙소확대, 식당 및 화장실 개선, 관광표지판 정비 등 기초 편의 시설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지방축제와 농어촌 체험 관광 등 지역별 특징을 감안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중앙정부가 컨설팅이나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설악권~금강권 연계개발'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때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참여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통일로 가는 설악

- 금강의 뜨거운 몸짓



통일부 통일교육 전문위원
허 춘 권

2004년 여름... 강원도 속초!

설악 금강의 통일을 위한 몸짓은 속초의 “2004년 평화의 도시” 선포식에 이어 제1회 대한민국 음악축제 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다.

분단 대한민국, 그 뼈절인 통한의 고통이 언젠가는 기억 속에 잊혀지겠지만 현재 정부의 평화 변영 정책과 아울러 한 몸짓으로 진행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가 식을 줄 모르는 열기 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돼 빛줄기 속에서도, 흑독한 추위 속에서도, 만나서 부둥켜 안아보자는 사랑으로 승화시켜 한겨레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선다.

정부의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그 말뜻 속에 소중하게 풀어내려는 깊은 뜻은 미처 헤아리질 못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속에 1000만 실향민 가족에게 분단의 아픔이 역사적 정리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더 만나 남북 대화의 장과 이산가족의 가슴속 절절한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풀어주고자 하는 고귀한 뜻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듯 소중한 의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전제된 말뜻 속에 꼼꼼이 되새기며 지나는 세월을 정리해 줄 필요는 없는지 참으로 의미깊게 짚어보아야 한다. 분단의 역사가 시간의 긴 수레바퀴속에 그대로 묻혀 버린다면 이또한 우리의 커다란 실책이 아닐까 우려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6·25동란 이후 분단과 아픔의 역사 속에 남측, 북측에서 실향민으로 살아 지내오며 오늘날인가, 내일인가 통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그들, 그들은 가슴속 깊은 그 시절, 그 기억을 잊지 못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온 걸음이었다. 그들과 함께 이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재조명 해서 잘 정리해 놓아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시대적 증언들과 많은 국내외 학자들의 관련된 문헌들, 시대적 아픔을 간직한 사진을 비롯한 자료들, 실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향민 2세들의 삶의 모습들...

전부는 아닐지라도 통계적으로 정리하고 묶어 놓고 찾을 수 있는대로 발굴하고 보존해야 옳지 않겠는가?

실향민으로서 헛된 삶이 아니라 값진 걸음으로 오늘의 조국을 만들어 냈듯이 우리는 이

러한 아픔이 더 이상 세상의 수레속에 묻어지기 전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미래를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립된 실향의 역사는 8개 시·군 지역이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강원도! 그중 38이북지역 영북지역의 장으로 이끌어 보존되어야 한다.

실향민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사료집을 발표(속초문화원, 피난민 정착사 2000 외)하고 실향민촌이 있고 남·북 이산가족찾기 행사가 열리는 장소이며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호흡을 같이해 “평화의 도시”를 선포한 속초시의 몸짓은 시대적 부흥이며 소명이라 생각된다. 설악과 금강의 평화, 그속에 이산의 아픔을 달래는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의 몸짓, 그러나 이러한 몸짓으로만 우리의 노력은 그쳐야 하는가? 이 또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2005년 말이면 금강산 관광이 철도가 이어져 유람선으로, 자동차로, 기차로 여행되어지는 의미있는 시점이 된다.

북측의 온정리에서 남측 고성역의 저진까지 철도가 이어지면 남·북이 하나였음을 더욱더 가깝게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철로는 더욱더 길게 이어져야 한다. 현재 강원도의 철도를 조사해보면 어디 하나라도 제대로 이어져 있는 게 있는가? 여기서 끊어지고 저기서 단절되어진 철도는 강원도의 맥을 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마저 흥미하게 하고 정부의 통일을 위한 그간의 노력한 모습도 이해가 잘 되질 않는다. 저진에서 속초까지...

그 철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 비공식적이지만 정부의 건설교통부 도로국에 알아

보면 그 필요성과 계획성은 있지만 정작 해당 시군에서의 움직임과 목소리는 중앙부처보다 못함이 실로 안타깝게 느껴지며 그로인해 설계비 예산조차 받질 못했다는 내용에 긴 한숨만 몰아 쉴 뿐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속초·양양·고성의 철마가 이어지는 인접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협의체를 만들어 한목소리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조사하여 관련된 자료들을 내놓고 설득력있게 함께 움직여야 한다.

방법적인 것이 문제라면 그들이 원하는 접근 방식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것 또한 설악-금강을 겨안을 인접 시·군의 상생의 방법이요 윈-윈의 전략이 아닌가 싶다. 저진에서 속초간 그 길다란 철로는 많은 금액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구간구간 나누어서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함께 목소리를 내어 조금씩 조금씩 끊임없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2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하루라도 앞당겨 우리 지역의 현실, 통일에 대한 지역의 의지를 실현시켜 설악-금강이 함께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좋은 사례를 보여줌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

설악-금강 연계 개발...

항간의 많은 이들은 이를 위한 대안에 “글썸?”라며 고개를 젓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한결같이 “금강이 개발되면 관광객들이 설악에 오겠는가?”, “설악은 그동안 너무 같은 모습으로 식상해 있어. 조금 더 일찍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으로 개발했어야 했다.”며 걱정으로 앞서는 많은 지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래도 이대로 또한 멈출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통일의 길목에 실향민의 아픔을 간직한 속초!

6·25동란 이후 분단과 아픔의 역사 속에 남측, 북측에서
 실향민으로 살아 지내오며 오늘인가, 내일인가 통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그들, 그들은 가슴속 깊은 그 시절, 그 기억을 잊지 못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온 걸음이었다.

속초는 근간 실향민 박물관을 준비하고 있으며 열심히 틀을 짜고 있다. 여기서 많은 실향의 역사가 정리되고 발굴되어 소중한 역사의 한 장으로 보존되면 1000만 실향 가족의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리라 기대가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금강으로 향하는 1000만 실향 가족의 세월과 살아생전 금강을 가보고자하는 수많은 조국 동포의 사랑이 금강으로 끝나기 전에 그들을 머무르게 하고 그들을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적극적 수용하여 시대적 아픔의 역사적 사실로 이끌어내야 평화의 도시에 걸맞는 몸짓이 아닌가 싶다.

실향민 박물관 그 주변에 이쪽은 평안도 거리, 저쪽은 함경도 거리, 황해도 거리 등등...

조금씩 조금씩 공간을 내어 실향민 박물관 주변거리를 조성해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 그 시절 그 거리의 모습을 일부분이지만 재현시키고 사료들을 정리해놓고 그 시절 그 간판을 내걸고 음식이며 사진, 사료들을 게시해 놓을 수 있다면 세월이 더 이상 흐르기 전에 1000만 실향 가족들이 통일이 되지 않아 북측 고향으로 가볼수는 없지만 남측에 살아있는 자식 친지들에게 아픈 역사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에 대한 염원을 실현시켜 줄 소중한 역사적 교육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 믿어마지 않는다.

1000만 실향민 가족뿐만 아니라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한겨레의 가족들이 손에 손

을 잡고 실향민 거리와 박물관 그리고 금강산 관광, 통일 전망대, 설악산 등을 방문하고 머무를 수 있는 관광으로 거듭나야 하며 그 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 수 일 것이다.

또한 평화의 도시에 걸맞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함께 노래하는 대한민국 음악축제...

그 속에 보여주는 '평화의 도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한다.

속초는 관광도시이다. 이러한 관광도시에서 기본적인 산·바다·호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앞서말한 1000만 실향민 가족과 설악-금강의 통일의 장도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켜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한다.

정동진에서 일출과, 모래시계란 드라마가 열차로 관광객을 실어 날랐다면 단순한 볼거리였을 것이다. 그러나 속초-고성으로 이어지는 열차는 실향민촌과 박물관, 그리고 설악-금강이 있는 통일열차가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여름이면 속초에서 베풀어지는 대한민국 음악축제! 장르별로 다양한 음악을 제시하고, 때로는 북한 음악인들도 초청하여 남과 북이 하나되는 평화도시 속초의 축제! 작은 도시 속초에서 발한 빛으로 전국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축제!

이러한 음악제전은 또다른 모습으로 관광객을 이끌고 설악에서 금강에서 하나됨을 이끌어야 그야말로 설악-금강이 하나가 된 몸짓일 것이다. 잠시 사색에 잠겨 그날을 그려 본다. ●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박금옥

그녀는 육이오때 아버지가 북으로 갔다.
소위 북피(北避) 가족이다. 그러기에 더욱 힘든 지난 반세기 삶이었다.
코흘리개 이딸은 이제 환갑을 눈앞에 두었다. 남북이 화해의 물결이라지만 80을 넘은 아버지는 영영 무소식이다.
아버지가 구천에 계신다면 이 한가위 추석날 영전에 향이라도 피워 올리려만, 아니야 살아계실꺼야. 지난 그 서럽고 힘들었던 세월을 푸념이라도 해야겠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서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전쟁이요, 또 전쟁이 나면 안됩니다. 우리같은 이산가족이 또 생기라고요. 정말 전쟁은 다시는 아니됩니다. 하염없이 내리는 이 자식의 눈물을 보시나요. 거두어주소서-”

그녀는 저 북을 향해 절규한다. 이 어찌 그녀만의 사연이며 절규이겠는가.
6·25의 상흔, 삭풍은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 휘몰아친다.
그녀의 한 맺힌 지난 얘기는 우리 모두의 사연으로 여기에 담아본다.(편집자 주)

아버지! 어린 꼬마들의 함성이 들리시나이
까. 거기에는 당신의 딸 금옥이가 보이시나요.
어느날 아버지는

“아마 우리 식구 중 둘은 헤어져야 살을래나봐.
꿈에 밭에서 한 바구니 가득 따온 토마토 중
2개가 강물에 떠내려 가는 걸 줘지 않았어.”

그런 며칠 후 아버지는 우리 곁을 훌쩍 떠
나가 버렸답니다.

우리 네 식구가 오순도순 살뜰히 살던 곳은
앞산 밑에 청대리, 이웃에 되덕이 있는 배나
물꼴이란 이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가 그렇게 전쟁통
에 피난길을 따라 북으로 떠나버리시고 스물
다섯의 우리 엄마는 북피가족이란 오명 아래
숨 죽여 사시다가 몇 년 후 우리 남매를 데리
고 속초시내의 외할아버지댁에 얹혀 사는 신
세가 되었습니다.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가 떠나신 후 금옥이가 언니들께서
배워 불렀던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나네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 총소리 나는 곳
에 저는 갑니다 / 삼팔선 돌파하여 태극기를 날
리며 / 죽어서 백골이나 돌아 오리라 / 대판령
상살봉에 진달래는 피었건만 / 우리 고향 무궁
화는 언제나 피나

그때 누구나 힘겨웠듯이 어머니와 우리 남
매의 처절했던 그 삶이 지금 추억속에 아련합
니다.

아버지가 “금옥이가 다닐 학교마당 터 뒹고
오는 길이야.” 하시던 그 도문 초등학교 운동
장은 밟아도 보지 못하고 외가가 있는 속초국
민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일학년 때의 어느 날이었어요.

건너편 중학교 운동장에서 연기가 나면서
'평'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들 말에 의
하면 어느 인민군 시체를 불태우는데 창자가
터지는 소리였대요. 또 크리스마스 이브의 며
칠전에 선생님이 영어 공부를 하랍시고 “땡
큐베리머취”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미군 트럭이 와서 선물을 주었는
데 우리는 연발 '땡큐베리머취'를 외쳐 댔습
니다. 얼마전 TV에서 본 에치오피아의 난민
이나 북한 아이들의 그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50여년전 우리의 자화상이 되어 눈물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나 학교 보내주세요 / 저 건너 학생들
바라보세요 / 감장치마 흰저고리 책보끼고 / 학
교로 가는 것이 나는 부러워요 / ----,

애들새에 유행한 노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매일 아침 조회시간마다 학
생회장인 6학년 오빠가 단상에 올라서 선창
을 하면 따라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맹세! / 일,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딸
죽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이,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을 쳐부수자 / 삼,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 날리고 남북통일 완수하자.

아버지, 그 어려움속에 나 1학년때 「단기
4287년 3월 23일, 속초국민학교 교장 김기
형」이란 수기 상장을 받은 걸 지금도 가보같
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속
초 3구 수복탑이 서있는 길 건너쪽에 폐허가
되다 싶이한 커다란 건물에서 우리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같이 세수 안한 학생, 이
뒹지 않는 학생, 머리에 이검사, 복장검사였
는데 그리고는 서로 이 잡아주기와 세수, 이
뒹이는 맞은편 바닷물과 모래로 하라고 쫓아
냈습니다.

거의가 때거리가 없는 형편에 학교에 다니
는 것만도 감지덕지였지요.

집에서 동생 봐주기, 강통 등 양키물건 줘
기, 아이스케키 장사, 슈산보이생활이 다분인
것에 비하면 말입니다.

또 아침마다 선생님들은 “밥먹고 온 사람,
죽먹고 온 사람, 죽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느
냐, 굶은 학생 손들어...” 하던 시절이었으니
까요. 우리는 매일 같이 등교 때 삼, 곡괭이,
세숫대야를 가지고 가 운동장 터뒹기, 넓히기
에 반나절이었지요.

어느 가을날 친구 춘자랑 몇 이 산에 가서
침뿌리를 캐어 먹고는 바닷가에서 먹을 감

있는데 오한기가 나서 쇠미역을 나일론 이불이라고 덮고 잠자다가 어른들이 찾아와 혼란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놀이터 수복탑 백사장을 뒹굴다가 바닷물에 풍덩, 조개를 파서 허기를 채우고

해야 해야 둥근해야 부뚜막에 앉아서 / 김치국에
밥 말아 먹고 / 부지깽이로 장구치며 / 뚝뚝
나오나라 --- /

이렇게 하루해가 저물어 갑니다.

외할머니가 모아둔 빈 병은 이모와 내 것이었습니다. 옛을 바꿔 배를 채우는 날은 생일 날이었습니다.

아~ 아~ 옛장수 왔어유 옛장수 / 울릉도 호박엿 /
양양 강릉에 꽃감엿 / 후추양념에 참깨엿 /
울릉도 호박엿이요, 호박엿 / 고물 삼니다 고물 /
고무신 떨어진 것 / 운동화 떨어진 것 / 현냄비
떨어진 것 / 총각 떨어진 것 / 처녀 떨어진 것 /
고물 삼니다, 고물요--- /

또 이런 일은 어떠하구요. 영양실조로 조회 시간에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인민군의 죽은 귀신이 씌었다는 소문을 선생님들이 단속하느라 애를 먹은가 하면, 주변 오빠들이 여학생들의 공기놀이가 하늘을 향해 눈을 흘기면 비온다고 쫓아내던 것이 엇그세 같습니다.

공기놀이를 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해의 국민정신은 자유의 정 그날로 국민은
새 결심으로 다같이 투표를 합시다!'

이승만 대통령의 생신도 생각납니다. 3월 26일 읍사무소 마당에 모여서 식을 하고 만세 삼창으로 이대통령 생신 축하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노여워 마세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개가를 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길이 달리 없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아들 국만이는 고성 공현진 큰 아버지댁에 양자로 가구요.

흐르는 눈물을 어찌 감당하리오.

6·25의 상흔은 이토록 참혹하였습니다.

큰아버지도 의부도 우리 남매를 친자처럼 사랑하고 곱게 키워 주었습니다.

국만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조신한 규수와 결혼하여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딸 금옥은요, 저도 성실한 남편을 만나 자식 사남매를 두었습니다.

약사로, 간호사로, 목회자로 모두가 성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이상 다복함이 어디 더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이가 이제 81세군요. 만나뵈을 수 있을까요. 이 귀여운 손자들을 안아 보실 수 있으실까요.

당신의 아들,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다고 자랑해 보일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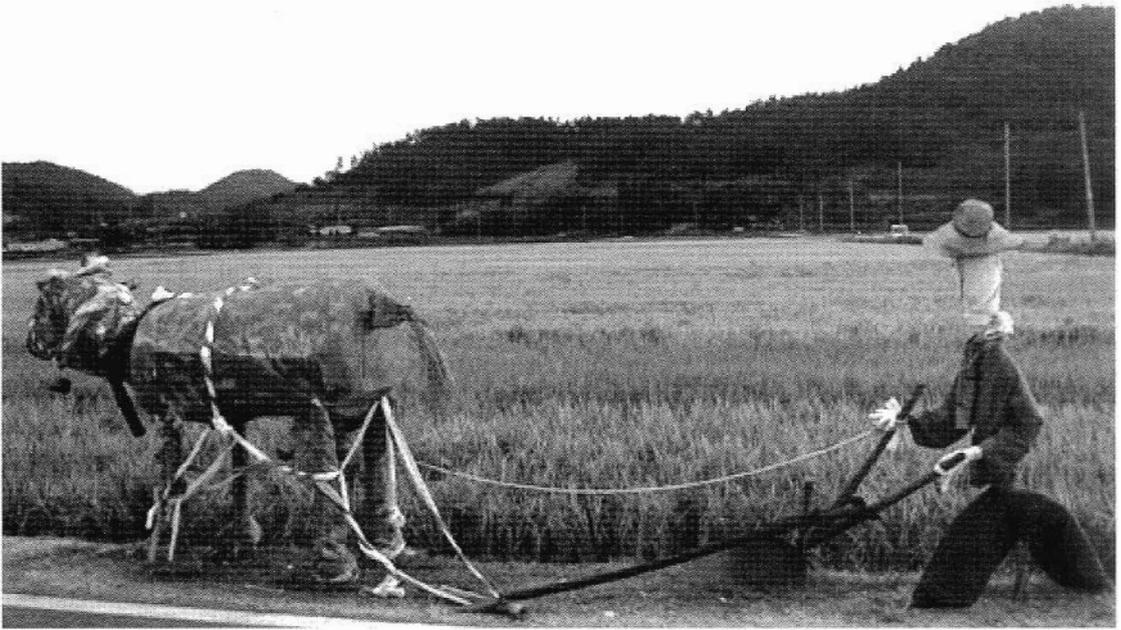
아버지 싫더라도 한 말씀만 더 할게요.

나 실은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그 고비를 넘긴 것이 아버지를 만나고 죽으라고는 신의 계시가 아니었나하고 감사합니다.

78년 3월 23일였어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는데 당뇨병을 너무 오래 방치한 것이였대요. 그때의 어려운 살림에 나의 병치료는 소홀할 수 밖에요.

그때 큰 애 나이가 11살 때였습니다.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에 4년 7개월이란 기나긴 투병으로 살아났습니다.



89년 9월 30일에는 또 된장 뜨러 옥상 올라 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골절되어 2년여 고생 끝에 목발을 면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기하시나이다(시편 23편)」

성령의 음성이 내내 나를 지켰습니다.

아버지, 복피가족의 기나긴 슬픔을 아십니까. 그 얼마나 냉혹한 삶이였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였습니다.

언 땅에서라도 생명이 살아있는 것처럼, 변함없는 상록수로 살아온 것을 자부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내결을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여전히 그들의 손길이 따스하게 되짚어지는 감사합니다.

6·25가 발발한지도 벌써 54돌이라니 정말 꿈만 같이 흘러간 세월에 당신의 딸 금옥이도 이제 제 나이 58살 반백이네요.

아버지 끝내 못 뵈오실까요. 복년 겨울 땅에도 봄소식이 찾아온다는데 어찌도 우리의 가슴은 이리도 녹을 줄 모릅니까.

아버지 당신의 딸 금옥이 큰 절 올립니다.

2004년 5월 어버이날에

홍문표 교사 박사학위 취득

논문 '설악산 산림식생의 생태학적 연구'로



설악산의 식물과 함께 한 홍문표 교사(53, 사진, 고성 동광농공고)가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홍교사는 20년간 설악산을

오르며 자연생태계를 조사, 설악산의 식생을 총망라해 분석한 '설악산 산림식생의 생태학적 연구'라는 논문으로 8월 건국대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논문은 설악의 식생에 대한 이렇다 할 자료가 없던 학계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그의 연구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생물권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있는 만큼 정부나 학계 차원에서 반드시 했어야 하는 설악산 생태계와 식물 조사작업을 정작 지역의 평범한 교사가 20년간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대신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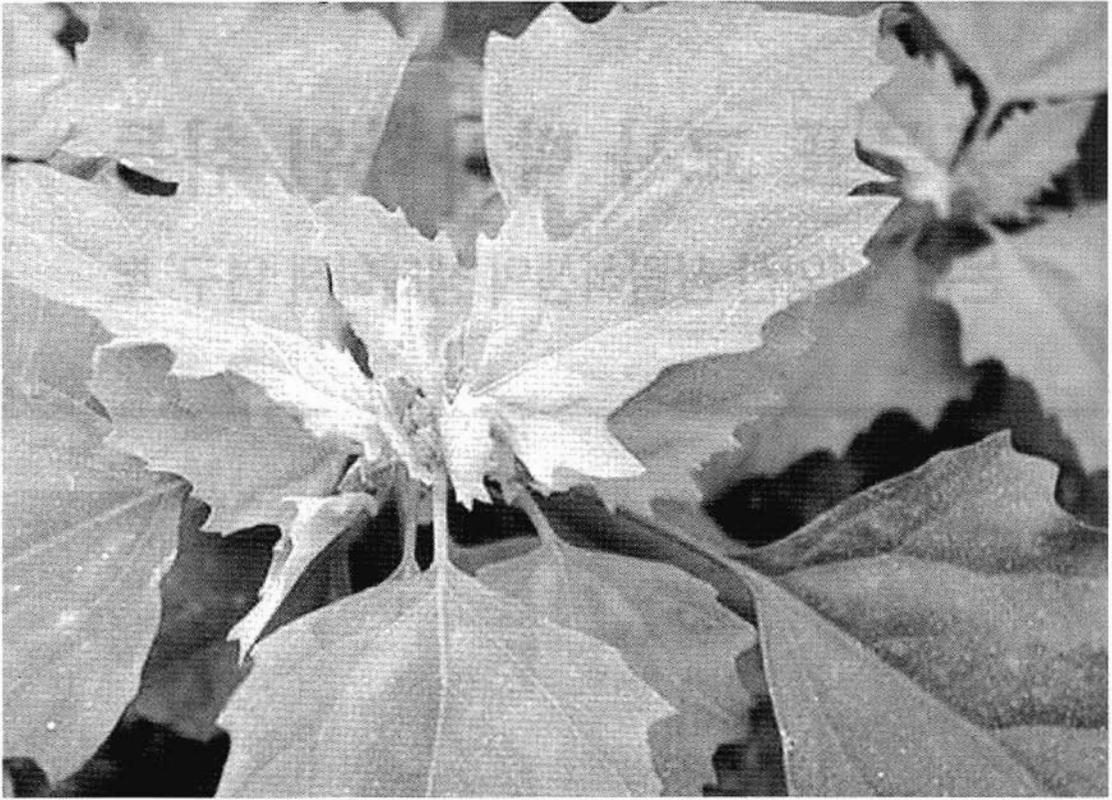
유독 식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고성군 거진에서 고교를 마치고 건국대 생물학과를



진학해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지난 75년 거진중학교에서 첫 교편을 잡고 후학양성에 힘썼다.

지난 84년 속초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국자연보존협회의 설악산 식물조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는 설악산 자연생태계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운 학문이 현실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설악의 식물종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설악산에 올라 이골 저골을 누비며 모든 식물들을 정리해 나간 지 20년. 그는 누구의 도움없이 박봉의 월급을 털어 연



구하는 등 가난한 연구가의 신세를 면치 못했지만, 설악산에 사는 모든 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는 학문적 성과를 이뤘다.

또 그동안 설악산을 다니며 앵글에 담은 사진만 8백여종 1만여점에 달할 정도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설악산 생태계에 관한 국내 학계의 모든 연구 자료를 검토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 지난 96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주최한 자연포럼에서는 노란만병초, 흰칼잎용담, 털개불알꽃 등 지금까지 미기록된 식물 54종류를 포함해 설악산의 전체 식물종류를 발표해 주위의 감탄을 사기도 했다.

“학문적 성과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빙하시대때부터 이어온 식물의 발자취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현재 설악산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지만 중요한 식물종들이 서식하는 1천5백m 이상의 고산지대 자연 환경은 훼손상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홍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아고산대식생을 가지고 있는 설악산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설악산의 학술적 가치가 사라져 일반 산처럼 변해 버릴까 안타까워했다.

“우선 등산로의 휴식년제를 제대로 운영하면 훼손된 생태계가 상당히 빨리 복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이나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식물채집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현재 설악산국립공원자원 모니터링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식물들의 분포변화 관찰과 보호를 위해 주말이면 어김없이 설악산을 찾는다.

홍교사는 앞으로 자신이 20년간 해온 설악산 식생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모든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책과 식물사진도감으로 묶어 발간할 계획이다. ●

[설악신문 이용수 기자]



2004 국제문화탐방

- 중국 · 태산 · 곡부 · 암록강

최 용 문 속초문화원장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지회장 ·李大根 춘천문화원장) 금년도 국제문화탐방은 중국의 제남, 곡부, 심양, 단둥 등이었다.

회원 17명이 8월 20일부터 5박6일의 일정으로 첫날 산둥성의 성도 제남(濟南)에 도착, 이백 · 두보가 시작(詩作)을 했다는 남풍사당, 영하정 등 명승고적을 함께 안고 있는 대명호(46 · 5ha)에 이어 황하를 구경하고,

이튿날 태안으로 이동, 케이블카를 타고 태산(太山 · 해발 1,545m) 등정을 하였다. 제왕들이 태산을 오르기 전에 제사를 지냈다는 대묘와 남천문, 천거, 옥황정, 태산기도, 공자사당 등을 견학하였다.

사흘째날 곡부(曲阜)로 이동, 기원전 478년에 건조하여 역대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 온 공묘와 역대 연성공의 관가와 저택인 공부를 돌아보았다. 공부의 면적은 16ha에 정대누각이 463간이다. 많은 역사문화재를 수장하고 있는데 그 중 청고종이 하사한 상주의 열가지 기명이 유명하며, 그 외 원나라이래의 수천가지의 의관, 신, 점, 기물 등이 보관되어 역사연구에 대단한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어 제남의 천성을 견학하였다.

나흘째날 동북지방 최대의 도시인 요령성의 성도 심양(瀋陽-옛이름 봉천 ·奉天)에 도착, 고궁을 견학하였다.

산동성의 성도 제남(濟南)에 도착, 이백·두보가 시작(詩作)을 했다는
 남풍사당, 영하정 등 명승고적을 함께 안고 있는
 대명호(46·5ha)에 이어 황하를 구경하고,

70여척의 건물이 한쪽에 동화되기전의 건
 강하고 토착적인 분위기로 압권이였으며, 당
 시의 궁정생활을 그대로 알아볼 수 있는 수많
 은 보물이 안에 진열되어 있었다.

다음은 수백년동안 형성된 대형적인 종류석
 굴인 본계 수동굴(本溪水洞窟)을 관광하였다.

수동의 동굴안은 총길이가 2,800m, 너비
 가 50m이고 평균 수심 1.5m, 사철섭씨 10
 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마선(거룻배)을 타
 고 하는 관광에서 고명 '구곡은하'의 양안은
 석순림협하고, 천자백대는 우리들을 황홀지
 경케 했다.

다섯째날이다. 북한의 신의주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국경도시 단동(丹東)으
 로 갔다. 단동시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위
 치한 호산정성을 구경하였는데 이성은 명나
 라 만력황제때 축조된 성으로 만리장성의 최
 동단이라 한다. 이어서 압록강 대교를 옆에
 하고 단교(斷橋)를 거닐어 보았다. 우리가 현
 지에 도착하였을 때가 오전 11시경(현지시
 간)였는데 대교에는 수십대의 화물차가 짐을
 가득 싣고 일렬로 북한을 건너가는 모습이 보
 였다(건너오는 것은 보이지 못했음). 단교는
 6·25때 아군의 폭격으로 끊어진(중간부분)
 다리로 중국쪽 철다리만 살려두어 관광시켜
 주고 있었다(북쪽은 교각만 있음). 다리의 난
 간 곳곳에 피폭 당시의 장면 사진들을 게시하
 여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리 구경을 한 다음 유람선을 타고 압록강에
 몸을 띄웠는데 저편 북한쪽 강변에서는 아이
 들이 물장난하고 곁에는 폐선같은 낡은 배들
 이 덩그러니 내동맹이 쳐져 있는 그 을시년스
 러운 모습은 우리들을 또 한번 슬프게 하는
 순간이었다. 오후에 심양에 다시와서 서탑거
 리를 구경하고 다음날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
 으로 끝났다. 이번의 문화탐방은 물론 짧은
 일정이었지만 많은 것을 본 느낌이였다. 내
 나름대로의 한 두가지만 적어 보면서 탐방기
 를 마쳐본다.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
 오르고 또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 /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저 유명한 태산을 가봄의 영광은 어린애 걸
 음마의 나의 몸동아리로서는 케이블카의 덕
 이였는데(더욱 짜여진 여행시간내에) 우리
 설악산에도 케이블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
 움이었다. 그리고 유학가파의 창시자 공자를
 현지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짐은 오늘의 우
 리의 도덕관을 새삼 되돌아 보는 어쩌면 반성
 의 기회가 아니었나이다. 다음으로 압록강 공
 원, 대교, 단교에 이어 본 저북한의 황량한
 모습 그리고 손에 잡힐 듯 지척에 두고도 건
 너지 못하는 나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보다 빨
 리 통일을 희망하는 피끓는 순간이었다. ●



◇ 태산은 세계문화 자연유산으로 등록 보호되어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거뜰히 올라 구경하였다.



◇ 개울 건너 옥수수밭이 북한땅이다. 한걸음 넘어 갈 듯 지척이다. (암록강변 단동에서)



◇ 압록강 대교와 단교(북한은 교각만)가 나란히 보인다.(유람선이 한가롭다)



◇ 북한의 압록강변에 기름이 없어서인지 선박들이 폐선같이 묶여져 있다.

한국연극 세계에 알린 ‘극단 굴렁쇠’

루마니아 세계연극제 “한씨연대기” 최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루마니아 르고시에서 열린 제7회 루마니아 세계연극제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극단 “굴렁쇠(대표 김귀선)” 12명과 함께 동행, 다녀왔다.

국제 무대의 첫 출전이라 걱정도 많이 하고, 그 동안의 단원들간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연습장에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한 결과 세계적인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뜻을 전해 그 의미는 더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루마니아 세계연극제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아마추어 국제연극제로 전세계의 다양한 언어와 예술양식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회로 2년마다 국제 경연제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개최국인 루마니아, 그리스, 헝가리, 프랑스,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등 7개국에서 11개팀이 참가하였다.

세계연극제에 한국대표로 출전한 극단 굴렁쇠의 ‘한씨연대기’ 작품은 영화처럼 흘러가는 독특한 기법의 장면 연출과 연극을 통해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인물에 대한 깊은 인상을 주며 한국의 아픈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연극으로 편성하여 7개국 심사위원들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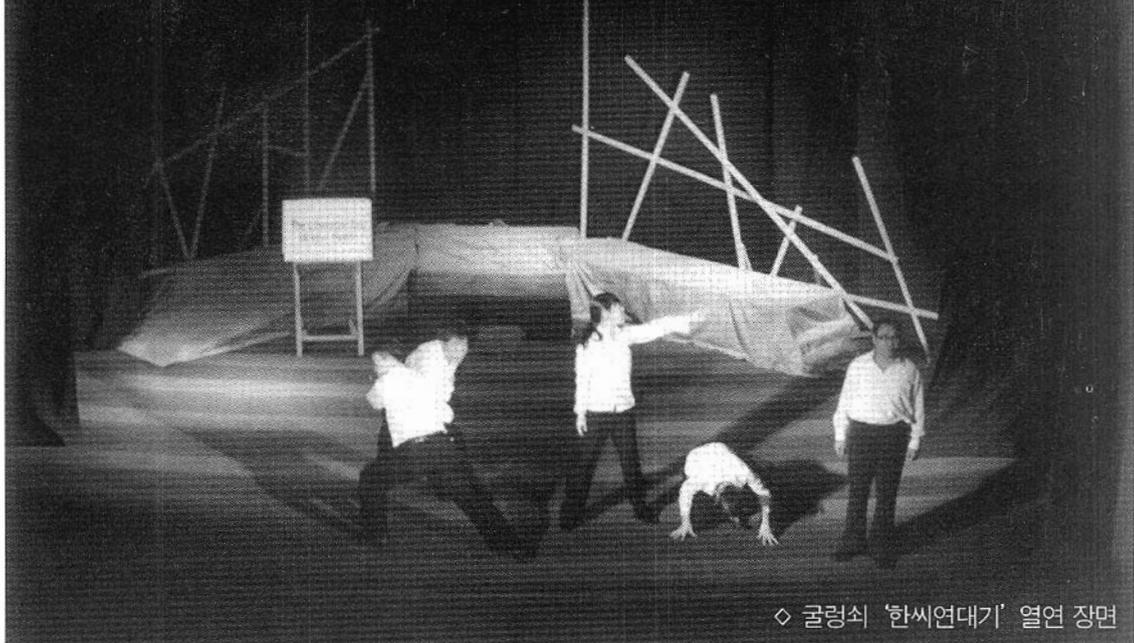
한국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루마니아에 도착해서부터 호텔식당을 빌려 밤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단원들의 모습에 현지인들도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며 개인가정까지 초청되어 식사도 하는 기회를 접하기도 했다. 더하여 루마니아 르고시에 아시아계 외국인인 처음 방문한 터라 르고시 시민들은 우리 한국의 외국인들을 보기위해 목을 빼며 구경하기 일쑤였다.

극단 굴렁쇠는 루마니아 국제연극제에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초대되었고, 유럽인들은 동양연극을 접할 기회가 없었기에 아시아에서 온 굴렁쇠 연극에 특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며 공연장을 가득 매웠다.

극중 고문 장면 등 한 무대에서 두가지 설정을 함께 연출한 무대 연출기법을 높이 평가해 줘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연극이 막을 내리자 전 관중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자 루마니아와 같이 참여한 다른 공연팀도 안내 팜플렛을 들고 우리 배우와 스텝진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줄서기하는 모



◇ 굴렁쇠 '한씨연대기' 열연 장면

습은 그만큼 인상이 깊었다는 얘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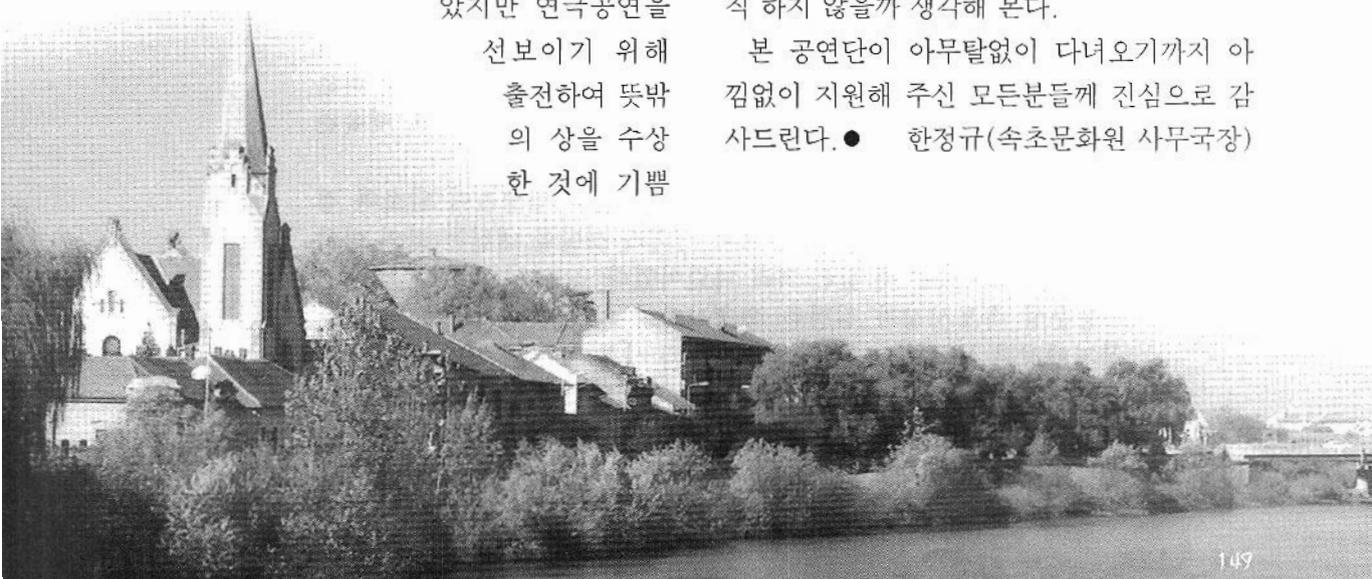
또한 일정 중 대회 출전이 없는 날은 속초 시에서 준비해 준 속초 홍보용 CD와 소형관광(영문) 책자, 그리고 지인이 후원해준 하회탈 열쇠고리를 함께 나눠주며 세계속의 관광 1번지 속초를 알리며 대한민국 관광홍보도우미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여 한국인이란 자긍심과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전해 주기도 하여 홍보사절단의 몫도 톡톡히 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는 않았지만 연극공연을 선보이기 위해 출전하여 뜻밖의 상을 수상한 것에 기쁨

을 함께 나누며 세계문화는 하나라는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연극뿐만이 아닌 전통문화 공연팀까지 함께 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출발하기 전날 르고시 시장 면담에서 2005년 르고시에서는 세계민속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그 축제기간중에 초청장을 보낸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한국 속의 속초 문화공연팀을 참가시켜 유럽속에 한국문화를 전파시켜 관광문화 도시의 면모를 보여줌이 바람직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본 공연단이 아무탈없이 다녀오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한정규(속초문화원 사무국장)



◇ 드미쉬르강이 흐르는 르고시 전경



2004 졸업생을 위한 특강

“친구랑 함께 하는 문화 한마당”

속초문화원(원장 최용문)과 속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홍래)이 공동 주관한 2004 졸업생을 위한 특강 및 공연 ‘친구랑 함께 하는 문화 한마당’이 12월 2월 10일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 실내 체육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본 행사는 10년째로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담소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대학 진학 진로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삶의 방향을 제시,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 마련이었다.

동문성 속초시장과 김정한 속초시의회 의장의 인사말씀, 동우대 복지행정과 사득환 교수의 ‘대학진학과 사회 첫걸음’이란 주제의 특강에 이어 신명나는 놀이마당 갯마당 굿, 힙합댄스, R&B가수 ‘더 맥’, 락그룹 ‘내 귀의 도청장치’가 공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이해, 정서 함양의 기회도 가졌다.



사 득 환

동우대학 복지행정학부 교수

젊은이여!

세계를 배우러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는 미국에서 줄곧 보냈다. 초빙을 받아 간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었다.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생활을 한 첫 한달 동안은 토론, 발표 등 거의 기계적인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나중의 한달은 매우 재미있는 가족여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방학을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에 휩싸이게 되었다.

비록 미국방문이 네 번째였지만 왠지 우리와 자꾸만 비교가 되는,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그 무엇(?)이 나를 괴롭혔다.

그것은 다름아닌 미국인들의 삶의 양식!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미국인들의 사고, 생각, 생활양식은 분명 다른 나라와도 달랐고(비록 필자가 지구상의 20여개국 정도만 다녔지만), 분명 우리와도 달랐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여타 국가에 비해 발전해 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필자가 경험해 본 미국은 축복받은 나라임이 분명하였다. 거대한 영토, 깨끗한 환경, 성숙한 시민의식, 꿈과 야망의 젊은이들,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 등이 그러하였다. 여기서 미국을 칭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긴 역사를 통해 축적시켜 온 선진국의 좋은 점들을 짧은 시간안에 받아들여 그 만큼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줄인다면 보다 우리의 역사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우리 사이의 다른 점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인들의 시민의식 중에서 그 첫 번째는 인간존중 의식이다. 미국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이미 익숙해져 있다.

항상 상대편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습관은 미국인들의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았다. 말 한마디 불손하게 하는 법이 없고, 항상 상대를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은 과연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자동차는 사람들보다 먼저 갈 수 없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어김없이 멈춰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인권존중 의식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가? 상대편의 인격은 아랑곳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습관들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자동차 우선으로 되어 있는 교통체계, 그 속에서 인명은 경시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미국인들의 시민정신으로 정직성과 신뢰성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정직하지 않고,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삶이 허락되지 않는 사회이다. 즉,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일상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조차 상대방을 속이는 데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은 급기야 수능부정이란 모습으로 태동하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멋모르고(?) 감옥으로 가지 않았던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미국인들의 몸에 밴 친절성과 책임성이다.

미국인들은 어딜가나 전혀 낯선 사람들에게조차 최선의 친절을 베푼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시간까지 소비해가면서 길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미국인의 친절성은 자신의 일에 최

선을 다하려는 미국인들의 자기책임성에서 비롯된 듯하다.

미국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남의 일에 친절하고 자신의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미국인들의 삶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풍토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부터 반성할 일이다. 다시 우리를 설계하자.

우리는 미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미국이라고 해서 모두 우리보다 나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범죄도 많고, 게다가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 아직까지 세계경찰국가를 자임하는 오만함 등은 미국(인)이 갖는 단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도 많다. 남의 좋은 점을 배우는 벤치마킹이 보다 우리를 살찌게 하지 않을까?

우리는 미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정신-인권존중의식, 정직성과 신뢰성, 친절과 책임성-은 꼭 배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발대

자유총연맹 여성회원으로 구성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지부장 권득수)는 지부 여성 회원 160여 명으로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단장 맹현숙)'을 발대, 자율 방법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과 여성 문

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지역 실정에 맞는 부과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과 수시 협조 체계를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 글령쇠 '한씨연대기' 열연 장면

실향민 함상합동위령제

8월 1일 북방 한계선

속초지구 함남청년회(회장 김강석)는 8월 1일 동해 북방한계선 근해인 고성군 현내면 저도 해상에서 실향민 함상합동위령제를 가졌다. 속초지구 함남도민회 박필일 회장, 동문성 속초시장, 최용문 속초문화원장, 정문헌 국회의원, 이병선 도의원 등과 실향민 150여

명이 속초해경함 2척에 타고 북의 산하를 향해 선령들의 명복과 통일을 비는 위령 및 망향제를 올렸다.

김강석 회장은 위령제를 마치고 해경함장에게 위문금을 전달하고 바다 수호의 노고를 위로했다. ●



속초시 장애인 후원회 사무실 현판식

속초시장애인 후원봉사회(회장 김상복, 속초문화원 이사)가 8월 12일 사무실(노학동 929-3)을 개소,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동문성 속초시장, 김정한 시의회의장, 김남욱 속초 교육장 등 많은 관계관과 후원인, 장애인들이 참석, 축하했다.

봉사회는 올해 사업으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시설 지원(2개 단체 및 3개 시설에 총7회-140만원 상당) △저소득장애인 지원(2회-쌀 20포, 라면 240상자) △외식 지원(2회-30명) △재가복지(반찬 서비스, 미용, 외식 제공 등 월 1회) △무료급식(사무실 식당-주5회) △자원봉사자 교육(월1회) △무료혼례식(설악문화제-전통 궁중 혼례식) △봉사

자 및 후원인 감사행사(표창, 위로공연) 등을 하였다.

속초시 관내에는 현재 장애인 총3,154명(지체 1,829명, 시각 311명, 뇌병변 301명, 청각 274명, 정신지체 171명, 신장 85명, 정신 79명)이 등록되어 있다. ●



제4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종별축구선수권대회



2004. 9. 1~9. 7

▶개막식: 1일 오후 1시 속초종합운동장

주 최 : 江原日報社, 대한축구협회
주 관 : 강원도축구협회, 속초시축구협회
후 원 :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속초시
한국여자축구연맹

공인구 : STAR

초등부 - 육군일출부대구장
중등부 - 한화콘도구장
속초중학교구장
고등부 - 속초종합운동장
대학부 - "
일반부 - "

협찬

Kangwon Land

강원농협

조흥은행

INI STEEL

대교

한국마사회

하이트맥주

DOOSAN/주/독산

한화리조트

제4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종별 축구선수권대회

38개팀 출전 - 속초에서 열전

제4회 통일대기 전국여자 종합축구선수권 대회가 9월 1일~7일 속초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주최·대한축구협회, 강원일보사 / 주관·강원도축구협회, 속초시 축구협회 / 후원·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속초시로 초등부 15개팀, 중등부 16개팀, 대학·일반부 9개팀이 7일간 열전. 올 시즌 추계연맹저 우승의 여주대는 춘계연맹전 우승의 울산 과학대를 맞아 전반 34분 대학부 지존을 확정짓는 강일여고 출신 홍경숙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통일대기 대학부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강릉 성덕초 강일여고 오주 중 여주대 서울 시청이 제4회 통일대기 전국여자종별축구 선수권대회 각 부별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 선수상은 최소미(성덕초) 박옥영(강일여고) 이지윤(오주중) 홍경숙(여주대) 이명화(서울시청)이 각각 수상했다.

대회 마지막 날인 7일 열린 각 부별 결승전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수증전으로 치러졌다.

강릉 성덕초는 이날 경기 심원초와 연장까지 가는 접전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으나 승부차기에서 골키퍼 권미연의 선방으로 3대 0으로 승리하며 2년만에 대회 초등부 정상에 다시 등극했다. 올시즌 4관왕 서울 오주중은

예선전에서 3대 1로 이겼던 경남 대방중을 후반 지소연 박희영 신민아의 골로 3대 0으로 다시 제압하며 이 대회 첫 중등부 정상과 함께 올 시즌 5관악에 올랐다.

강일여고는 올시즌 2차례 대결에서 패한 오산정보여고를 맞아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를 펼치며 후반 10분 전은애의 귀중한 결승골로 1대0으로 누르고, 1, 2회에 이어 이 대회 고등부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추계연맹저 우승의 여주대는 춘계연맹전 우승의 울산과학대를 맞아 전반 34분 대학부 지존을 확정짓는 강일여고 출신 홍경숙의 천금같은 결승골로 통일대기 대학부 첫 우승을 차지했다. ●

제1기 영랑호 산책로 걷기 교실 발대식



○ 일 시 : 2004년 11월 9일 (오전 10:30)

○ 장 소 : 속초시 노인건강관리센터 (2층 회의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사랑 나눔의 시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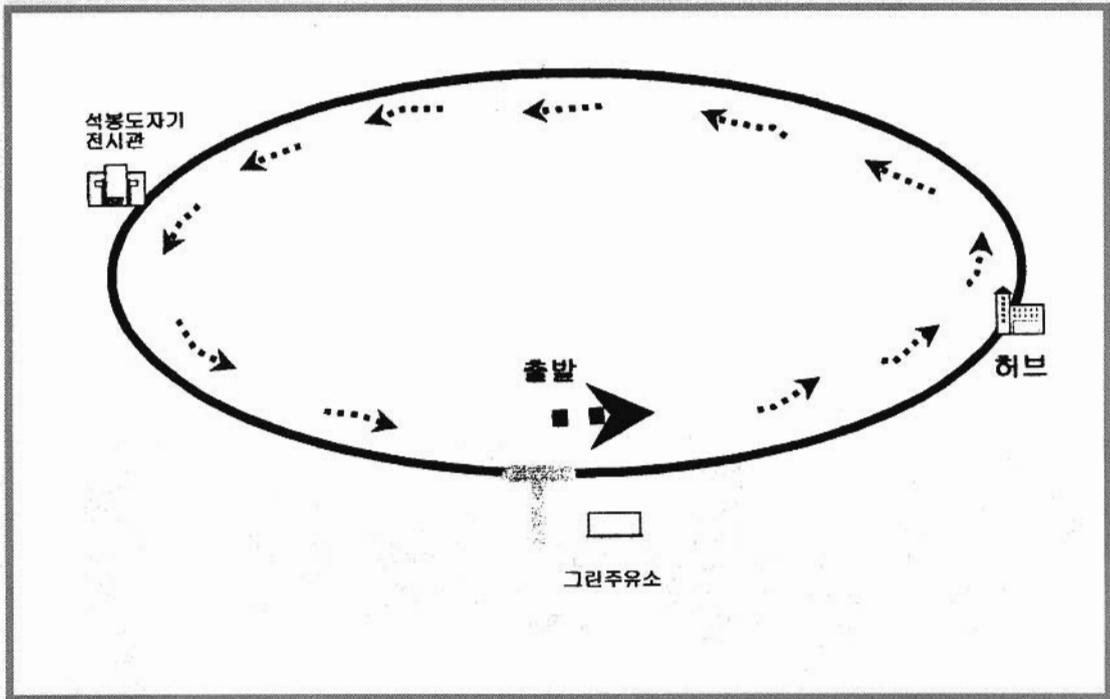
- 후원신청 : 전화, 방문상담
- 후원회비납입방법 : 후원회비는 기관방문, 아래 은행계좌로 송금 (자동이체) 하시면 됩니다.
 - 은행명 : 농협(교동점)
 - 계좌번호 : 331058-51-100401
 -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문의처 : (033) 636-5516
- 기타 : 후원인이 되시면 먼저 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속초지회

☎ 033-636-5516

엑스포 산책로 걷는 방향 ▶▶▶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1.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한 다음, 악수를 청하면 더 친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었을 때,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여기”, “저기”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오른쪽 5m을 간 다음, 다시 왼쪽으로 10m 정도 가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시각 장애인에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3.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는 편이 좋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눈과 닮지 않기 때문에 지팡이를 든 손을 만지거나, 잡아끌거나, 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4.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식기의 위치와 내용물을 작은 소리로 설명하고,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5. 시각장애인은 영화나 텔레비전 시청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면 일반인과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6.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대고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7.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지폐의 경우는 한장 한장 단위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동전을 건네줄 때에는 일일이 그 단위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 속초시 장애인 합창단 「해오름」이 열창하고 있다.

제3회 강원 장애인 합창 경연

- 속초시 「해오름」 대상 수상

속초시 장애인연합회(회장 김용한·시각장애인 협회장) 합창단이 '제3회 강원장애인 하나되기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11월 3일 원주 치악예술관에서 도내 18개 시·군팀이 열전을 벌였는데 속초시는 지체 10명, 시각 9명, 정신 6명, 농아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해오름」 합창단(단장 이정팔, 지휘 최봉하, 반주 송미나)이 자유곡 「바위섬」과 지정곡 「희망의 나라로」를 가지고 열창, 대상을 수상한 것이다.



속초시립 합창단 정기연주회

속초시립합창단(단장. 정현래 부시장) 2004 정기연주회가 12월 2일 밤, 속초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성대히 치뤄졌다.

김명원 지휘, 정영철 피아노 반주에 40명 단원이 'Ave Maria', '남촌', '울산아가씨', 소프라노 김민정 'Lascia ch'io pianga(올게 하소서/Opera "Rinaldo" 中)' 등을 열창하였다.

교동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 출연하여 '아이들이 그리는 세상' 등을 불러 1천명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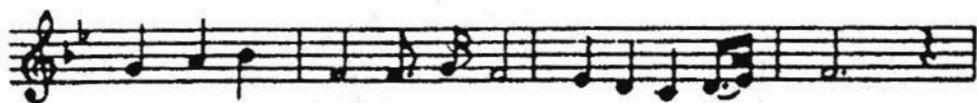
강원도의 노래

씩씩하게

이 은 삼 작사
임 원 식 작곡



1. 새밖-의 예-나라 정 든내고 장
2. 바다-엔 산호진주 수 없는어 죽



아 침해 먼저받은 우리강원- 도
산 마다 언덕마다 보배의곳-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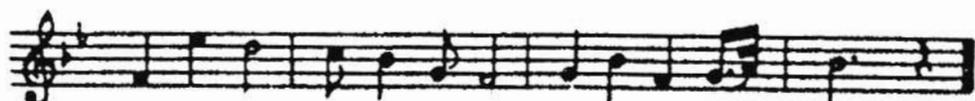
눈 부-신 금강설악 관동의 팔 경
창 해역사 이울곡만 해일까 보 냐



신비 한 대- 자연을 여 기와보- 라
새시 대 새- 일꾼들 여 기와보- 라



[후렴]광명-과 회- 망은 용솨음친 다



동해의 푸른물결 부딪는곳- 에

내 고향 속초항 노래 모음

속초의 노래

김정우 작사

1. 동해의 아침 햇살 물결 위에 빛나고
고기잡이 나간 배 만선 깃발 돌아오네
대대로 이어받은 아름다운 내 고향
맘흘려 이루어 온 오늘의 우리 속초
힘모아 가꾸세 뜻모아 지키세
손모아 받으세 마음모아 이루세
2. 태백준령 우뚝 솟은 설악의 대청봉
웅비의 우리 기상 온 누리에 퍼져가네
영랑호 청초호가 자리잡은 내고장
조상의 얼이 서린 빛나는 우리 속초
손모아 받으세 마음모아 이루세
힘모아 가꾸세 뜻모아 지키세

속초시가 1991년도에 공모한 속초의 노래 당선작

내 고향 속초항

기획 김건기

작사 김정우

작곡 박남춘

노래 정인섭

1. 설악산 정기 받아 자라온 우리
그리워라 어린시절 초원의 목동 친구
눈앞에 맑은 호수 영랑호 재첩
은물결 넘실대는 동해바다엔
언제나 푸른 꿈이 넘치는 속초 항구
어머님 품속 같은 내 고향 속초항
2. 대청봉 뭉개 구름 하늘에 흐르고
병풍같은 울산 바위 우리를 감싸주네
대포항 어부들의 풍어에 노래
아바이 명든 가슴 달래여 주며
청초호 갯배 위에 통일의 꿈을 실고
넘치는 인정 속에 빛나는 속초항

내 고향 속초항

기획 김건우
 작사 김정은
 작곡 박남인
 노래 인선



설악-산 정기 받아 자 라 온 - 우 --- 리
 대청-봉 뭉게 구름 하 늘 에 - 흐-르-고



그 리-위 라 어 린시 --- 절 초 원 에-목 동친-구
 병 풍-같 은 울 산바 --- 위 우 리 를-감 싸주-네



눈앞에 맑 은 호수 영랑 호 재첩 은 물결 넘실 대는 동해바다 언 -
 대포항어 부들에 풍어 에 노래 아 바이 멎든 가슴 달래여 주며 청 -



제 나 푸른 꿈 - 이 념 - 치 는 속 초 항 -- 구
 초 호 갯배 위 - 에 통 일 에 꿈 을 - 신 -- 고



어 -- 머 님 품 속 같 --- 은 내 고향-속 초 -- 항
 념 -- 치 는 인정 속 --- 에 빛 나 는-속 초 -- 항

속초의 노래

김정우 작사 김명원 작곡 김우순 노래

1. 동해의 아침 햇살 물결 위에 빛나고
고기잡이 나간 배 만선 깃발 돌아오네
대대로 이어받은 아름다운 내 고향
땀흘려 이루어 온 오늘의 우리 속초
2. 태백준령 우뚝 솟은 설악의 대청봉
옹비의 우리 기상 온 누리에 퍼져가네
영랑호 청초호가 자리잡은 내고장
조상의 얼이 서린 빛나는 우리 속초

〈후렴〉 힘모아 가꾸세 뜻모아 받드세
손모아 받드세 마음모아 이루세

속초에 심은 사랑

김명연 작사 고봉산 작곡 황영승 노래

- 배 들어온다 청초호에 배 들어온다
만선깃발 필력이며 우리 임운다
1. 흥겨운 뱃노래가 자장가라면
미소띤 설악산은 어머님 품속
바닷가 백사장에 해당화 피면
정들은 이 항구를 내고향 삼아
당신과 나 사이를 청실로 묶어
천년만년 변치말고
천년만년 변치말고
 2. 다시 찾은 내고향에 풍년이 오면
영랑호 잠긴 달을 고이 떠다가
설악에 걸어놓고 행복을 빌자
지나가던 나그네도 인정에 젖어
너무너무 정이 들어 고향을 심는
살기좋은 속초에다
살기좋은 속초에다
에헤아테에야 사랑을 심자

설악산

최명길 시 임수철 작곡 이대우 노래

1. 나 - 오늘도 설악산을 만났네
눈을 뜨니 그 산이 거기 있었네
구름은 걷히고 태양은 불끈 솟아
잠든 산을 흔들어 깨웠네
2. 나 - 오늘도 설악산을 보았네
동해에 몸을 씻고 산뜻이 일어나
이 티끌 세상 울음소리로 깨웠네

〈후렴〉 설악산은 커다란 한 마리 새로그나
오, 날아라 날아라 설악산아

설악산 메아리

김령인 작사 고봉산 작곡 황영승 노래

1. 흰구름 덮인 설악산으로 그대와 손잡고
휘파람을 불면서 하이킹 가자
진달래 철쭉꽃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류 레이 레이류
레이 레이 레이호
산메아리 들려온다 사랑노래 들린다
시원한 폭포수가 노래를 합창하면
오색의 무지개 진다 그대와 손잡고
설악산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 하이킹
2. 형제봉으로 마등령으로 즐거운 하이킹
꽃노래도 흥겨운 설악산 가자
에텔바이스가 우리들을 부른다
레이 레이류 레이 레이류
레이 레이 레이호
산새들이 노래한다 흰구름이 떠있다
금강산 찾아가다 설악산 봉우리된
전설의 울산바위다 발걸음 가벼웁게
비선대 찾아가는 즐거운 청춘 하이킹

제15회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제39회 설악문화제 개막식전
2004년도 문화상

2인의 PROFILE

문화예술 부문 / 신원하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권득수

수상후보자 공적사항

【 문화예술 】

수상후보자	신 원 하(辛元夏)	
주민등록번호	430609 - 1279314	
본 적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9번지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906호	
소 속	한국예총 속초지부	
직 위(직급)	부회장	
추 천 사 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 교사로 부임하면서 선진적 기법의 연극예술을 최초로 선보임 ○ 1971년부터 35년간 연극무대를 지켜왔으며, 전인교육과 향토연극인 배양 ○ 1970년대 중반 “청년문화연구회” 결성하고 고문으로 활동 ○ 속초연극의 효시인 “청봉극회”를 설치 1977년 창단공연을 시작으로 15편의 성인극을 무대에 올림 ○ 1984년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의 중앙인준을 받는데 기여하고, 초대지부장의 중책을 수행하였으며, ○ 1988년 전국연극제 장려상 수상, 1991년 전국연극제 단체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속초시를 널리 선양하는 계기 마련 ○ 1991년 예총속초지부의 탄생에 기여하고, 제1회 강원도청소년연극제 초대 운영위원장을 역임, 2004년 13회 대회를 개최하면서 고교청소년 연극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는데 이바지 ○ 초창기 속초연극의 기초를 다졌으며, 연극창작활동을 묵묵히 실천하여 향토연극인 권익신장과 화합을 도모하는 등 속초시 연극예술발전 및 문예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혁혁함.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9. 12 : 양양 현남중학교 부임 ○ 85 : 한국연극협회속초지부 초대지부장 ○ 99. 9. 1 : 속초중학교 교감 부임 ○ 02. 9. 1 : 강현중학교 교장 부임 ○ 03. 9. 1 : 설악여자중학교 교장 발령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4년 : 강원도 연출가상 ○ 85년 : 강원연극 예술인상 ○ 91년 : 연극지도교사상 	

수상후보자 공적사항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

수상후보자	권득수(權得壽)	
주민등록번호	420103 - 1279318	
본적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81-1	
주소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81-1	
소속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	
직위(직급)	지부장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주요공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6년부터 89년까지 속초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개발은 물론 회원간 화합과 권익증진사업에 전력함. ○ 사)음식업중앙회속초시지부장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역임하면서, "모범음식점",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을 통해 화장실문화개선및 쓰레기줄이기 운동 추진 ○ 1995년부터 방역사업, 특별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보건향상에 기여 ○ 1996년부터 속초지청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청소년선도활동 전개 ○ 1999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장을 역임하면서 민주시민교육, 안보정세 설명회, 안보현장견학 등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수성 홍보 ○ 2003년부터 보훈재녀돕기행사를 실시하여 이웃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추진 ○ 2004년 "어머니포순이봉사단"을 발대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 2000년부터 속초시 화장실문화협의회회장 역임하여 깨끗한 속초, 아름다운 속초 가꾸기에 일조함. <p>2. 주요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 ~ 85 : 속초청년회의소 회장 ○ 82 ~ 86 : 속초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 91~현재 : 사)한국음식업중앙회속초시지부장 ○ 91~현재 : 춘천지방경찰청 속초지청 범죄예방위원 ○ 99~현재 : 한국자유총연맹 속초시지부장 ○ 00~현재 : 속초시 화장실문화협의회회장 <p>3. 수상경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 :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 02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02년 : 법무부장관 표창 	



행심 / 이계남

不寐夜長度倦道長愚生死長莫知正法
 學無多類不得善友寧獨守善不與愚偕
 有子有財愚唯汲汲我且非我何有子財
 暑當止此寒當止此愚多預慮莫知來變

행심 / 이계남의 글씨. 글씨 내용은 '不寐夜長度倦道長愚生死長莫知正法 學無多類不得善友寧獨守善不與愚偕 有子有財愚唯汲汲我且非我何有子財 暑當止此寒當止此愚多預慮莫知來變'이다. 글씨 옆에는 작자명 '행심 / 이계남'과 '속초문화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상보 / 이상락

秀懷貞敏早悟三空之心長契神情先芑
四忍之行松風水月未足比其清華仙露明
珠詎能方其朗潤故以智通無累神測未
形超六塵而迥出使千古而無對凝心內境
悲正怯之陵遲栖憲玄門慨深久之訖

東華文化院 恐出李村洛



춘원 / 정 병옥

象用畧空端四八之相於是激言
廣被極含類於三途遺訓遐宣導羣
生於十地然而真教難仰莫能一其
旨歸曲學易遵耶正於焉紛紜之論
習俗所以空有而是非春原 鄭東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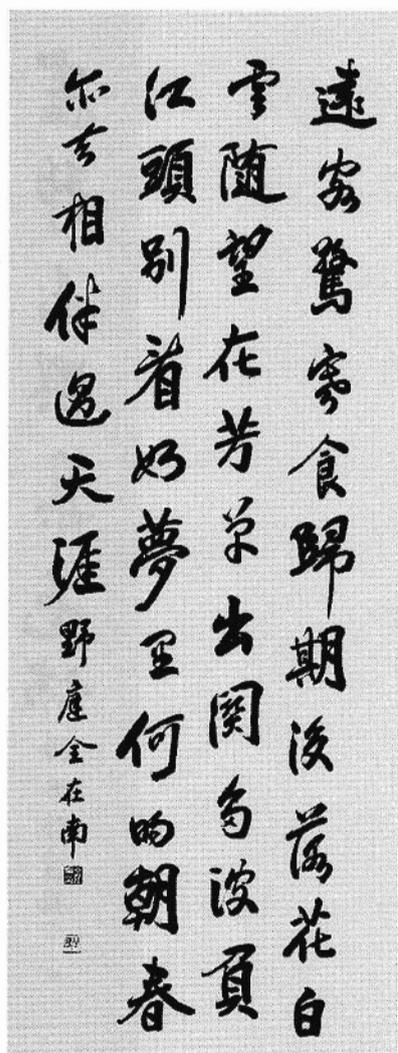
회운 / 한 정희

千峰映碧湘
眞叟此中藏
舒不着石啣
箸
應任髮長
楓裡楮酒甕
鶴風落琴床
強
致忘機者
斯人尚未忘
萬里萋苔地
不見馳
蹤唯開文字
總時

甲申立冬 喜雲韓真極



三峰先生詩(70×200)



遠客驚寒食(70×200)



野情/全在南

東洋書友會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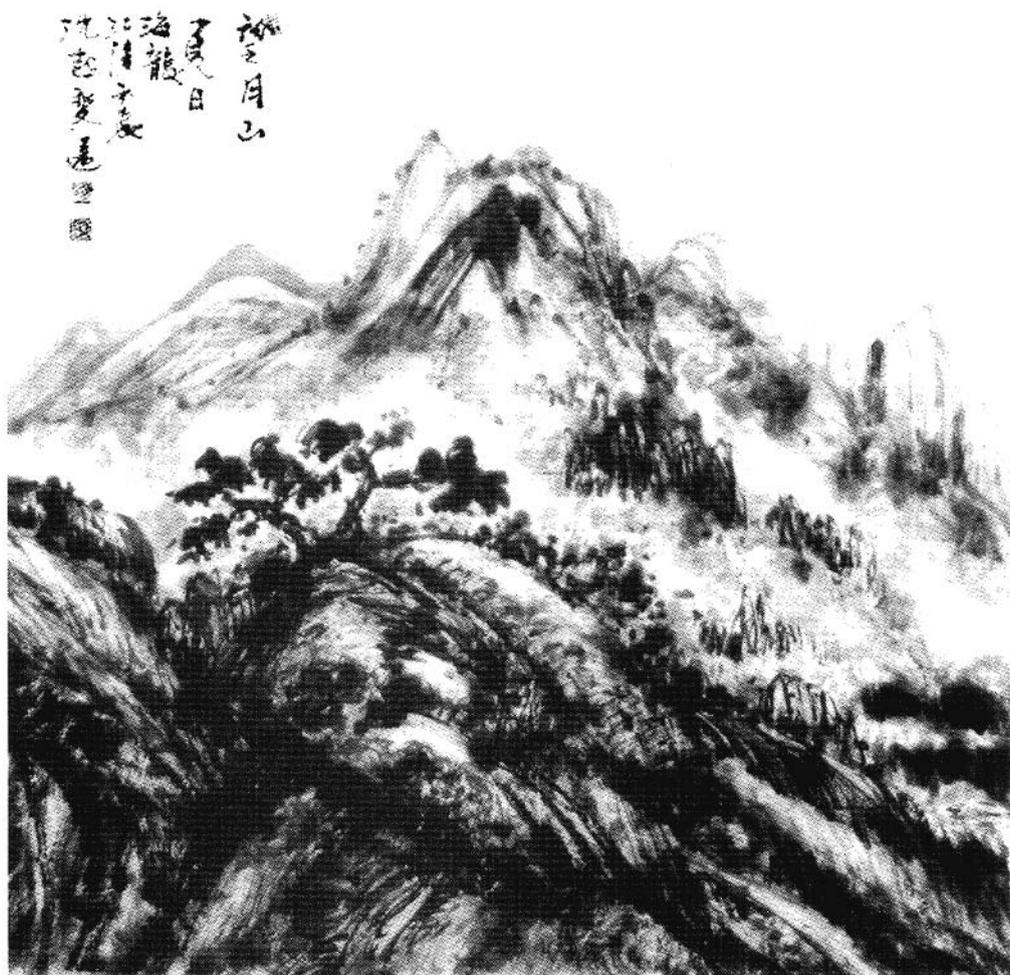
清
泉
坐
處
舟
秋
聲
木
樹
間
水
明
山
影
落
月
上
露
華
溽
怪
鳥
啼
涼
野
潛
魚
過
別
灣
六
時
虛
盧
靜
玉
興
集
毫
端

海林朴贊鎬

梅溪先生永興客館(70×200)



海林/朴贊鎬



海龍 沈起變

· 강릉시장

床頭禪味澹如水吹
起香灰夜欲闌萬葉
梧桐秋雨急虛窻殘
夢不勝寒

星坡金炳澤 題

萬海의 秋夜雨(70×140)

秋天生薄陰華嶽影沉
蕪菜他鄉淚孤燈此夜心
流螢亂隱草踈雨落長林
懷侶不能寐隔窓啼怪禽

錄萬里先生秋日詩
星坡金炳澤 題

萬里先生秋日詩(70×200)



星坡 金炳澤

·속초시 주민자치과

2004년 속초예총 주요사업

▶ 사상철 속초예총 명예회장 별세

속초예총 4대 회장을 지내신 시인 사상철님께서 1월 20일 향년 65세로 별세하셨다. 선생은 경기도 여주 생으로 1962년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셨고 1983년 삼립개발 관리이사직을 맡으면서 이 고장에 정착하여 그간 한국문인협회 회원, 관동문학회 자문위원, 한글문화회 이사, 예술시대 동인회 회원, 강릉신문 논설위원등 으로 활동하면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였다. 1980년에 세종문예회관에서 서예개인전 및 성남시 승격 도예개인전을 개최하였고 그해 성남시 예술회장도 역임하였다. 아울러 1990년에 우리문학·시대문학 지를 통해 등단하였으며 1989년 “그대 영혼을 위하여” 1991년 “저 하늘에 흰구름은” 1995년에 “슬픈풍경”의 시집을 출간하였다. 1995년 2월 1일부터 1996년 1월 25일까지 속초예총 4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 제9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속초사진협회 사진전

속초사진협회에서는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속초시 설악동 매표소 입구에서 제9회 설악눈꽃축제기념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협회회원 17명이 향토색 짙은 창작품을 출품하여 겨울 설악을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다.

▶ 이지숙 개인전

2월 20~2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2회 이지숙 개인전이 열렸다.

이지숙은 중국 어언대학교 및 북경대학원 미학박사 과정을 연수하였으며 속초미협회원으로 현재 경동대에 출강한다

▶ 속초예총 제15차 정기총회

속초예총 제15차 정기총회가 3월 13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개최되었다. 2003년 결산(안)승인 및 2004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승인이 결의되었다.

또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연극분야의 신원하 대의원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일본 프로젝트 연극그룹 <3.1회>초청공연

일본 프로젝트 연극그룹 <3.1회> 초청공연이 3월 25일 오후4시, 7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속초연극협회 초청으로『그날 그날에』공연이 개최하였다. 속초출신의 극작가 이반 교수의 작품으로 속초바닷가를 배경으로, 분단의 아픔을 그린 리얼리즘 드라마로 제3회 대한민국 연극제 작품상, 희곡상, 남우주연상 수상작이다. 연관람객은 70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제21회 강원연극제

제21회 강원연극제가 원주치악 예술회관에서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개최되었다. 속초 극단 굴렁쇠가 작품명『날 보러와요』로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 강원연극제 3년 연속 대상이란 기념비적인 업적을 달성하였다. 이는 또한 3년 연속 강원도를 대표하여 전국연극제에 참가하는 출전권이 주어져 2002년 전주, 2003년 공주, 그리고 올해 대구에서 열리는 전국연극제에 출전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다.

▶ 제5회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

제5회 훈춘시 가요제 예심이 연변 조선족자치주 훈춘시에서 4월 16일 개최되었다.

한기학 예총회장, 장규호 명예회장, 강종철 연예협회 지부장이 심사에 참석하였으며 본선 진출자 26명을 선발하였다. 4월 15일 속초를 출발하여 18일 동춘항운편으로 예심을 마치고 속초에 도착하였다.

▶ 속초작가 협의회 창립전

속초작가협의회 창립전이 엑스포 전시실에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되었다. 사진작가 최낙민씨가 속초작가협의회 초대 회장이며 회원은 14명으로 구성되었다.

▶ 설악엔젤스 블라디보스톡 어린이 합창제 참가

5월 3일 설악엔젤스합창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는 제3회 국제어린이 합창제에 참가하였다. "비둘기여 날아라! 란 부제로 치러진 본 국제합창제는 블라디보스톡시청 국제협력위원회, 아시아 어린이재단 프리모스키지회, 러시아 문화재단 후원하에 블라디보스톡 문



한국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한국에서는 속초와 강릉합창단이 참가하였으며 중국 러시아 등 대회참가팀은 20개팀이 참가하였다. 설악엔젤스 팀원으론 한기학 예총회장, 심연흠 엔젤스 단장, 강은희 지휘자, 김수경 반주자 등 30명이 금번 단원의 일원으로 참가하였고, 동문성 속초시장, 속초시 의회부의장 및 시청 관계자도 함께 동행하였다. 5월 5일 블라디보스톡 갈라 콘서트홀에서 설악엔젤스는 14번째로 출연하였으며 평소 같고 닦은 실력을 십분 발휘하였으며 관객 들로부터 부라보 부라보를 외치며 열광적으로 기립박수를 받은 유일한 팀이었다.

▶ 제22회 전국연극제 참가

제22회 전국연극제가 5월 14일 - 6월 2일일까지 대구광역시(대구문화예술회관 /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되어 극단 굴렁쇠의 속초극단이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여 대회 3일째인 5월 18일 대구문예 회관에서 공연하였다. 김광림작, 김귀선 연출의 작품작은 『날보러 와요』였다. 극단 굴렁쇠 대표 김귀선씨가 문예진흥원장상인 연출상을 수상하였다.

▶ 제15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제15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식 행사가 5월 21일 저녁7시 속초예총(회장: 한기학)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로비에서 개최되었다. 개막식의 단위 사업으론 미협전이었고 속초예총 7개협회 지부는 문인협회(지부장: 김춘만), 미술협회(지부장: 정봉재) 연극협회(지부장: 김인환), 연예협회(지부장: 강종철), 음악협회(지부장: 임수철) 국악협회(지부장: 권종식), 사진협회(회장: 이왕선)가 20여일에 걸쳐 14개 단일사업이 펼쳐졌다.

▶ 제29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영북지역 최고 연륜과 창작발표회의 상징인 제29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제15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 5월 21일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 연극협회 정기공연

제15회 속초종합예술제를 기념하여 연극협회 속초지부 정기공연이 5월 2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지난 4월 8일 원주시 치악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21회 강원연극제 대상 수상작이며 개인상(석경환) 및 연출상(김귀선) 수상작인 『날보러 와요』이며 본 작품은 제22회 전국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선정된 작품으로, 극단 굴렁쇠가 시민을 위해 무료 공연을 하였다.

▶ 제10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10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22일(토) 10시에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시부와 산문부 동시에 된장찌개, 열쇠가 주어졌고 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제15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5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22일 엑스포 광장(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으로는 영북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대회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 산문 부문에 각기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초등 동시(저)

장원 강현초 3-1 안은영

차상 교동초 3-7 이은빈 양양초 2-5 김수빈

차하 강현초 3-1 유민아 차하 소야초 3-2 김태현 차하 교동초 2-1 강선민

▶ 제5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22일 엑스포광장 상징탑 및 주재관 지하 세미나실에서 제5회 설악주부미술 한마당 사업이 미술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미술 저변확대와 미술발전을 도모코자 마련한 본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부문 등에 영북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 제4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사진협회 주관으로 5월 23일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제4회 설악청소년 사진촬영 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과 사진예술의 이해도 증진을 꾀하고자 마련한 대회로서 사협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하나이다.

- 대상(속초시장상)
이주노 속초고 2-2
- 금상(속초시의회의장상)
김경진 설여중 1-8, 서형곤 중앙초 6-1
- 은상(속초예총 회장상)
강민규 영랑초 3-1, 박수현 설여중 1-9, 김정연 속처중 2-2, 김도영 중앙초 3-2
- 동상(속초사진협회장상 - 이하)
박이슬 설여중 2-3, 최민희 설여중 1-9, 홍수지 속여중 2-2, 박철 청대초 5-5
최성호 교동초 6-2, 김준연 교동초 5-1

▶ 제15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지역 아동미술 발전과 현장예술 실기능력을 배양코자 마련한 제15회 설악 학생 미술 실기대회가 5월 22일(토)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 저 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1,8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성황리에 성료되었다. 수상자는 상장 및 미술용품이 상품으로 지급되었으며 (주) 신한화구에서 시상품의 일부를 협찬하였다.

▶ 국악협회 정기공연

국악협회 정기공연이 5월 23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공연은 국악협회가 결성되고 창립공연을 겸하였으며 춤으로의 초대 - 기원의춤, 장구춤, 부채춤, 소리로의 초대 - 대금산조, 사물놀이, 상모판굿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 제21회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출품회원으로는 동문성, 이왕선, 박민효, 허인순, 최상후, 홍인복, 김성호, 최홍영, 최이권, 최용철, 김형관, 고장운, 강영진, 최종화, 장무식, 김진용, 이상동 등이 40점의 작품을 출품 전시하였다.

▶ 제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29일 문화회관 대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강원도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음악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피아노부문 예선을 거친 진출자와 관현악 성악은 예·본심이 연속하여 진행되었다.

대 상 | 속초고3 허윤석(성악) :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

금 상 | 설여중3 박희민(피아노중등) : 속초시장상

금 상 | 속초중1 김요한(첼로) : 예총회장상

▶ 제15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 본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제15회 설악 청소년 가요제 및 댄스경연대회가 5월 30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2일 예심을 거친 19개 팀이 열띤 노래 및 댄스경연을 벌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대 상 | 김정이, 김경미 - 속여고 2 : 한국연예협회이사장(30만원 장학금)

금 상 | 한 산 - 속초상고 2 : 속초시장상 (20만원)

은 상 | 김효식 - 동광농고 3 : 속초예총회장상 (15만원)

▶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31부터 6월 6일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3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 “그래! 우리들의 꿈을 펼치자”란 부제로 치러진 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는 극작가 오태영, 오연수 연극협회강원도지회장, 장규호 한국연극협회 이사, 노종팔 한국연극협회 회원이 맡았다. 도내 13개 고교가 참가.

▶ 제9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9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2~6일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우수수상작 110점, 일본 요나고시 3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35점, 중국 훈춘시 30점, 대만 대동현 30점, 미국그레샴시 20점, 등 총 250점이 전시되었다.

▶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7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6월 12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5월 29일 제 12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에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평소의 기량을 발표회 형식으로 공연하였다.

▶ 제5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제5회 훈춘시 국제가요제가 6월 23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국원에서 예총이 주최하고 연예협회의 주관으로 성대히 개최되었다. 4월 16일 예심을 통과한 26명의 출연자와 1,500여명의 훈춘시 관람객이 입장한 가운데 훈춘시장 및 훈춘시 각급인사는 물론 동문성 속초시장, 배동욱 강원도예총회장, 한기학 속초예총회장, 강종철 연합지부장 등등의 국내인사가 참가하였다. 오세권 악단장 지휘하에 10인조 한·중밴드 협연과 연극인 김귀선씨의 사회로 치러진 본 대회에 영예의 대상은 타향의 달밤을 부른 마천자향에 사는 안광용 동포에게 돌아갔고 부상으로 대형 TV와 강원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다.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극공연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 연극공연이 극단 굴렁쇠 주관으로 8월 16일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에서 개최되었다.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직접 문예사업을 공연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마련한 취지로 공연은 품바공연을 마련하였다. 김귀선, 장규호 등이 출연하였다.

▶ 무대지원사업 - 연극공연

2004 무대지원사업 연극공연이 8월 30~31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총2회 공연을 개최하였다. 공연작은 황석영작 『한씨 연대기』로 본 작품은 1991년 전국연극제에서 속초극단 “과·람·불” 이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제3회 갈매 독자 초청 시낭송회

제39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제3회 갈매독자 초청 시낭송회가 문협과 설악문우회 공동 주관으로 10월 16일 아남프라자 20층 스카이 라운지 커피숍에서 개최되었다. 낭송에는 속초평생교육정보관, 문예창작반, 주문진문학회원, 강릉재능시낭송회원 소속의 독자 19명이 낭송회를 가졌다.

▶ 설악문화제 기념 속초사진협회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39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사협 주관으로 “속초사진협회 회원전”이 문화제 행사장에서 개최되었다. 협회소속 작가의 작품 50점이 몽골형 텐트내에 이젤를 이용하여 작품을 전시하였다.

▶ 2004 아동화 거리전

제39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2004 아동화 거리전이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설악문화제에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사업으로 아이들이 화이트펜으로 그림그리기, 찰흙으로 만들기(동물, 컵, 사람), 캐릭터 그리기, 풍선에 그림그리기, 수수깡으로 꾸미기, 캐릭터 그리기, 성냥으로 꾸미기, 스텐실 판화, 호일에 매직으로 그림그리기, 흙 그림 곡식으로 꾸미기 등 작품 수백점을 전시하여 많은 어린이와 부모들의 관람이 줄을 이었다. 임광미술학원, 중앙미술학원, 22세기 미술학원이 참여 하였다.



▶ 중국 훈춘시 꽃봉우리 소년 예술단 초청공연



제39회 설악문화제를 기념하여 중국 훈춘시 조선족 서광 기숙제학교 공연이 예총 주관으로 10월 16일, 17일 오후 7시에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 2004 설악가요제

속초 연예협회 주관으로 2004 설악가요제 본선 행사가 10월 16일 오후 6시에 제39회 설악문화제 특설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달 9월 22일 개최한 15명의 예심자들로 구성된 본선 대회에 지역 최고의 실력가들의 노래솜씨를 뽐내는 흥겨운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 제8회 설악서에 백일장

10월 16일 제39회 설악문화제 기념 제8회 설악 서예 백일장이 속초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150여명이 대회에 참가한 가운데 학생부 및 일반부 한문, 한글, 사군자 부분으로 나누어 사업이 전개되었다.

〈성인부〉

대 상 - 김교회(고성군여성회관)

최우수상 - 임명희(속초평생교육정보관), 황철순(속초평생교육정보관)

우 수 상 - 이희자(고성군여성회관), 김삼성(속초평생교육정보관),

박현주(속초평생교육정보관), 이금례(양양여성회관)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연극공연

2004 찾아가는 문화활동 연극공연이 10월 22일 성지복지재단 정다운 마을에서 개최되었다. 사회소의 계층에게 직접 문예사업을 공연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저변확대를 도모코자 마련한 본 사업에 품바 공연을 마련하였다. 김귀선, 장규호 등이 출연하였다.

▶ 제7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11월 3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7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리코더 앙상블 멤버는 소프라노 - 김은미, 장선영, 알토 이수미, 김이영, 김신혜, 박현정, 전효진, 이수금 테너 - 권미진, 박경우, 이은영, 이종경, 최미영, 정준교, 베이스 - 최수영, 최술, 신민걸, 최종길 등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프로그램에서 박취서곡, 영화음악 앙상블 연주의 피치카토 폴카 등이 연주되었다.

▶ 루마니아 국제 아마튜어 연극제 참가

제7회 루마니아 국제연극제가 지난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루마니아 르고시에서 7개국에 11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연을 치렀다. 한국 대표로 참가한 속초 극단 “굴렁쇠(대표 김귀선)”의 ‘한씨연대기(황석영 작, 장규호 연출)’가 First Class 1(최우수상)에, 프랑스 인형극단이 특별상, 세르비아 “로미오와 줄리엣” 2위, 루마니아 “대머리 여가수”가 입상하는 등 치열한 경연 속에서 펼쳐져 대회 열기를 더했다.

▶ 2004 극단 오름 공연

2004년 연극 피날레를 장식한 극단 오름에서 준비한 김지하 원작 마당극 “밥”이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매일 저녁7시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하였다.

▶ 2004 강원도 연극인 예술상 수상 (김태영)

2004 강원도 연극인 예술상이 11월 26일 극단 오름의 “밥” 공연장인 속초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본상에 속초연극협회의 김태영씨가 수상

▶ 한민족 통일음악축전 음악발표회

11월 27일 한민족 통일음악축전 음악발표회가 속초예총이 후원하고 속초음악아카데미 주관으로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그룹명 “속초 팝스 빅밴드”의 창단공연을 겸한 금번 공연에 속초음악인들 자력으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인 실로 연출력이 돋보인 공연이었다.

▶ 최이권 · 이왕선 사진 개인전

최이권 · 이왕선 사진 개인전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엑스포 주제관 지하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최이권 삶 이란 부제로 45점 이왕선 형상이란 부제 45점이 각각 전시되었다.

▶ 제14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4회 정기연주회가 12월 17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Piano Solo/ 유지은 Clarinet Solo/ 이재현과 특별출연 : Tenor Solo/ 허윤석 (제13회 설악 음악콩쿠르 대상수상자)가 산촌 Non Ta mo piu를 그리고 Piano trio, Horn Solo/ 최준용 색소폰 솔로/ 한기학 소프라노 솔로/ 이인순 설악엔젤스 유스콰이어 O! Holy night! - A. Adam 무르강 물결 맛있는 냉면 먹는 노란 리본 아가씨 등을 연주하였다. 정기연주회는 음협의 연중 가장 비중 있는 사업중 하나로서 송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왔다

▶ 갈피 34집 발간 및 문학축제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문학지 갈피 34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18일 아남프라자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피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화국,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김영섭, 권정남, 김종현, 최월순, 박응남, 김향숙, 최숙자, 조인화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호렬, 강호삼, 김석록, 한춘녀, 수필 이은자, 이구재, 최재도, 서미숙등의 작품으로 4×6배판 350여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문학강연 연사로는 시인 조완호(한양대 국어과 교수)주제 강연을 하였다. 제1부는 김종현 사회로 회원시 낭송회와 음악(바이올린 4중주)감상과 제2부의 독자와의 만남은 채재순 사회로 진행되었다.

▶ 속초예술지 4호발간

속초예술 제5호가 12월 31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지향하며 속초예총 7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시화, 백일장 우수작소개, 한해 동안 예총 사업 실적 등 다양한 원고를 수록하였다. 배부처는 전국예총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2004 송년 미술전

2004 송년미술전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미술여행의 부재로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디자인, 서예의 문인화 장르에 미협 회원작품 전시되었다.

- 한국화 - 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해경,
- 서양화 - 공재숙, 김영복, 김종학, 박동국, 박종칠, 박흥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조정남
- 조 소 - 김문석, 도창록, 박영근,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정봉재
- 공 예 - 고주리, 오희원, 정경연
- 서 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조성익, 최홍영, 함연호, 윤춘복, 이덕우
- 문인화 - 김길자



2004년 속초민예총 주요사업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 제18회 속초민족예술제 - 2004 예술축전

· 제18회 속초민족예술제가 속초민예총(지부장:전태극)이 주최하고 민예총 소속의 각 위원회 주관으로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1. 기 간 : 2004년 4월 25일 ~ 5월 3일

2. 내 용

1) 사진으로 보는 우리이야기

- 내용 : 사진회원들이 년중 촬영한 속초이미지의 사진을 전시함.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 일시 : 2004년 4월 24일 ~ 4월 27일

2) 재중국 동포 시화 초대전

- 내용 : 재중국 동포 시인의 작품을 시화화하여 전시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 일시 : 2004년 4월 28일 ~ 4월 30일

3)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교실

- 내용 : 다양한 미술작업들로 가족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자유로운 주제로 가족 그림대회를 개최하여 가족애를 높이고자 함
- 장소 :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광장
- 일시 : 2004년 4월 25일

순 위	성 명(가족대표자)	시 상 자	비 고
최우수상	정용석	속초시장	상장과 상금
우 수 상	고지은	민예총지부장	상장과 상금
	배수진		
특 별 상	김진영	속초시의회장	
	남경은	속초문화원장	
장 려 상	양유진	민예총 미술위원장	
	홍로미		
	최한별		
	이주용		
	이나도미 미찌꼬		
가 작	최용혁	민예총 미술위원장	
	김소희		
	강준태		
	전병진		
	강유영		
입 선	이은진 외 35	민예총 미술위원장	상 장

4) 시민을 위한 영화제

· 상영작(2003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작)

- 1회 : 4월 24일 '아카시아' - 2003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품

- 2회 : 4월 25일 '여섯 개의 시선' - 여섯 명의 감독이 인권을 주제로 만든 유니버스 영화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 가족과 함께하는 미술교실 행사 사진

▶ 인형극 초청 공연 '팔죽 할머니'

1. 일 시 : 2004년 5월 14일 ~ 15일

- 1일차 공연 : 5월 14일(금)

- 2일차 공연 : 5월 15일(토)

2. 장 소 :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3. 내 용

- 1)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빼에로인형극회(대표 : 이용문)의 전래동화를 인형극화한 '팔죽할머니' 를 공연하였으며,
- 2) 작품 내용은 꼬부랑 할머니에게 팔죽을 얻어먹은 알밤, 자라, 송곳 등이 힘을 모아 심술궂은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익살스런 이야기.



△ 인형극 '팔죽할머니'

▶ 제4회 속초민예총 한·중 해외문화교류사업 - 우리 저 고개를 넘자

- 재 중국 동포 인상사진 증정사업
- 재 중국 동포 청소년 문학백일장
- 한·중 사진 교류전
- 한·중 사진 세미나
- 훈춘 촬영가 협회 초청 사진전

1. 기 간 : 2004년 6월 14일 ~10월 17일

2. 사업내용

1) 제4회 재 중국동포 인상사진 증정사업

- 대 상 : 훈춘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조선족 노인 200여명
- 촬영장소 : 훈춘시 삼가자, 연안일대에서 6월 14일~16일 속초민예총 사진회원들이 현지촬영
- 3회(2003년)까지는 훈춘시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만을 대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조선족 동포들과 한 부락에 사는 한족, 만족을 촬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사업의 폭을 넓힘.
- 증정식 : 2004년 8월 20일 속초민예총 전태극지부장이 훈춘시를 방문 액자 전달.



△ 재 중국 동포 인상사진 증정사업

2) 한·중 사진교류전

- 재 중국동포 인상사진 촬영기간 중 속초 민예총 사진위원회 회원의 작품 전시회
- 기 간 : 6월 14일 ~ 16일
- 장 소 : 훈춘시 문화관
- 개막식
 - 6월 14일 훈춘시 문화관
 - 훈춘시 립혜영부시장을 비롯하여 문체국 관계자 및 시민등 180여명 개막식 참석

3) 한·중 사진세미나

- 6월 14일 훈춘 제2고중 대강당에서 민예총 강원지회 전지회장이며 속초민예총의 고문인 엄상빈씨의 강의로 1시간 30분 동안 훈춘촬영가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침. 연변대학 사진학과 김광영교수의 통역으로 중국(한족)인들에게도 이해의 폭을 넓힘.

4) 훈춘사진가협회 초청사진전

- 제39회 설악문화제를 맞이하여 속초시와 협력도시인 '중국훈춘시'의 '훈춘촬영가협회' 회원 및 작품을 초청 전시함으로써 한·중 문화교류의 장을 열어 자매도시간의 우의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설악문화제 위상을 높임.

5) 제2회 재 중국동포 청소년 문학백일장

- 6월 14일 오후 3시 훈춘 제2고중 대강당에서 참가학생 120명(대상:고등학생)의 학생들의 백일장에 참가하였으며, 백일장 심사는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중국 현지문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함.

○ 수상자 명단

	수 상 자	비 고
최우수상	대상자 없음	
우수상	최흥련(1학년 9반) : 까치	속초시장
	박미나(2학년 6반) : 까치	
가 작	김은희(2학년 6반) : 흙	속초시의회의장
	김해연(2학년 5반) : 흙	
	전려나(1학년 9반) : 흙	속초시문화원장
	석추영(1학년 11반) : 흙	
장려상	김예금(2학년 4반) : 흙	속초민예총지부장
	김국화(2학년 1반) : 흙	
	김명화(2학년 5반) : 까치	
	류 청(2학년 3반) : 흙	



△ 제4회 한·중 해외문화교류사업 개막식

▶ 제7회 사진워크샵

1. 기 간 : 2004년 7월 24일 ~25일
2. 장 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및 영랑호 리조트
3. 내 용
 - 1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 속에 속초민예총 사진위원회에서 준비한 '일곱번째 사진워크샵'은 강원도 영동지역의 주민들과 사진인들을 대상으로 사진특강, 포트폴리오 리뷰 등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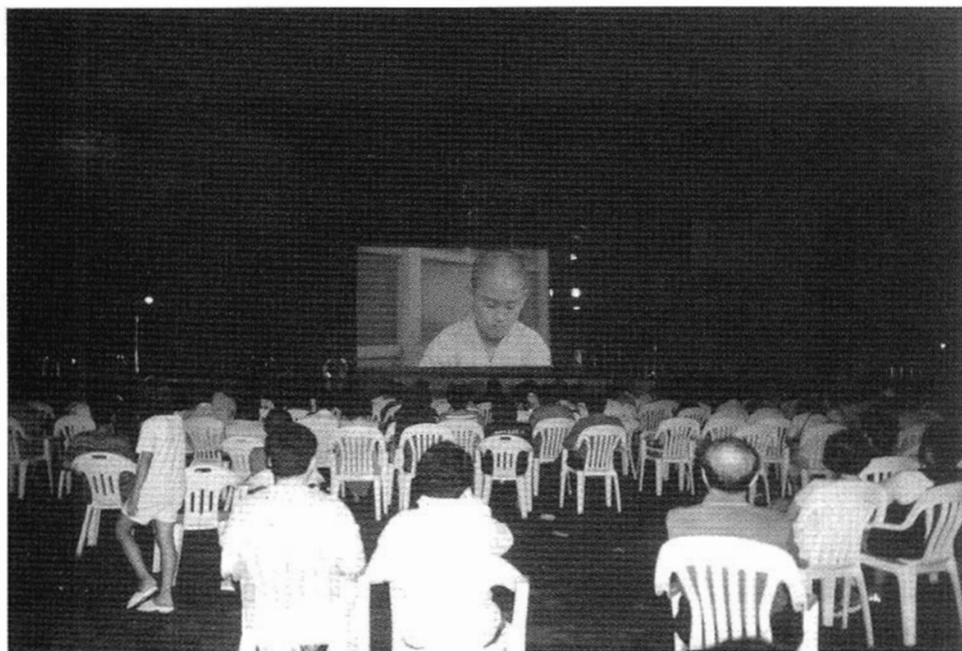
▶ 제4회 한여름밤의 영화축제

1. 상영일시 : 2004년 7월 26일 ~29일(4회)

2. 장 소 :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 상징탑 광장

3. 사업내용

-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한여름밤의 영화제는 한여름의 늦은밤 더위를 피해 공원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 및 연인들, 속초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해 확실한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으며 설악의 여름 최고의 심야행사로 자리잡았다.
- 영화팬들을 위한 다양한 장르와 포맷으로 영화 상영
- 상영프로그램
△오세암 △미션 임파서블 2 △아홉 살 인생 △로마의 휴일 △소림축구 △마리아야기
△버티칼 리미트 △송환 △인생은 아름다워 △미이라 2



△ 제4회 한여름밤의 영화 축제

▶ 제8회 통일문화제

1. 일 시 : 2004년 8월 15일

2. 장 소 : 청초호 유원지 엑스포 상징탑 광장

3. 내 용

- '우리 저 고개를 넘어' 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통일문화제는 오후 6시30분 갯마당 사물놀이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민중가수 방정경의 노래공연과 민족통일의 기대감을 담은 고사가 펼쳐졌다.
- 이어 속초민예총 김영호 문학위원장을 비롯하여 5명의 문인들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실향민의 바램을 담은 시낭송과 초청강연이 마련되었으며,
- 2부 공연은 유라예술단의 초청공연으로 지역민에게 망향의 아픔을 잊고 통일을 향해 다가가는 희망찬 공연을 펼쳤다.
- 또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청초호 산책로에는 실향민이 모여 사는 아바이 마을과 속초, 통일의 고뇌를 담은 속초민예총 문인들의 시 20편이 전시되었다.



제8회
통일문화제

우리 저 고개를 넘어

△ '유라예술단' 공연

▶ 제19회 속초민족예술제

강원민예총의 응집된 문화 역량을 보여주는 행사로 속초민예총의 모든 분과가 참여하며 속초지역 나아가 영북, 강원도의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1. 일 시 : 2004년 11월 27일 ~ 12월 2일

2. 내 용

1) 2004 속초, 그리고 사진이야기

- 내 용 : 사진위원들이 년 중 촬영한 속초이미지의 사진을 전시함.
- 장 소 :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 일 시 : 2004년 11월 27일 ~ 11월 29일

2) 제2회 열린 미술교실 - 작품속이야기

- 내 용 : 대형 스크린을 통해 명화를 감상하고 작품속 이야기를 들음으로 미술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자 함.
- 장 소 :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
- 일 시 : 2004년 11월 28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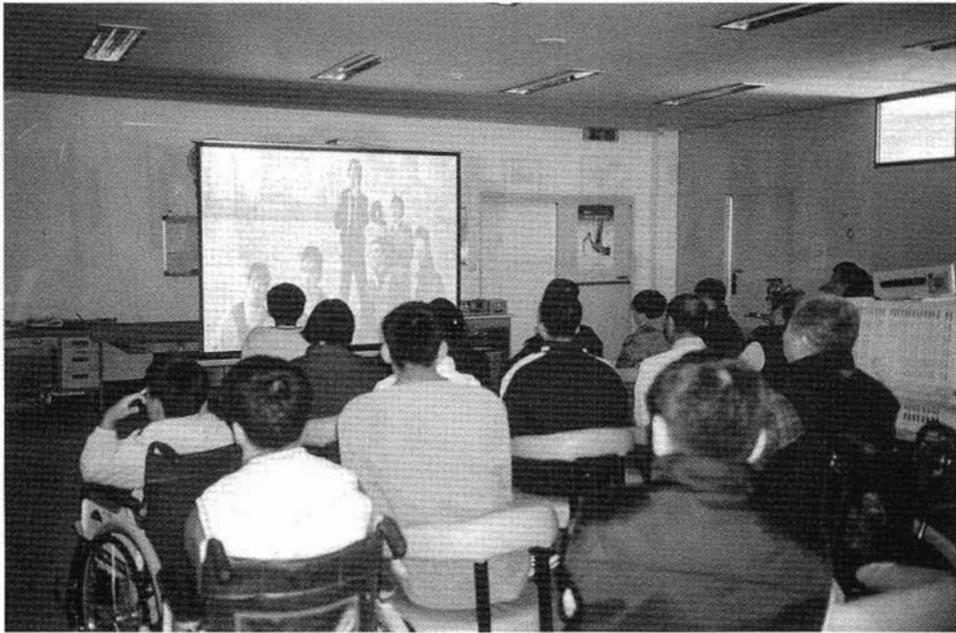
△ 사진전

3) 제2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영화제

- 내 용 :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해 장애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영화사업으로 무료 상영함.
- 장 소 : 장애인협회 강당
- 일 시 : 2004년 11월 29일 ~ 30일
- 상영작 : 반헬싱, 투가이즈

4) 환경시화전

- 내 용 : 자연을 주제로 한 시를 시화화하여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
- 장 소 :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
- 일 시 : 2004년 11월 30일 ~ 12월 2일



△ 영화제

▶ 장애인과 함께하는 미술교실

1. 기 간 : 2004년 7월 12일

2. 사업의도

- 자칫 소외되고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 장애 아동들에게 미술 교육을 통해 한층 마음의 문을 열고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어 미술을 통한 즐거움과 자아감 정서적인 안정을 주고져 하였으며,
- 미술을 하는 과정에 따른 즐거움뿐만 아니라 완성된 작품을 카렌다로 제작하여 보기도 하며 전시회를 통해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장애 아동들에게 전시회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아감과 성취감을 높이고 미술영역 뿐만이 아닌 사회 적응력을 높이며 모든 영역에 의욕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갖을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자 했다.

3. 작품전시회

- 기 간 : 2004년 12월 18일 ~ 21일
- 장 소 : 속초문화회관 전시실

▶ 다큐 '다시 찾은 청호동' 제작

분단 1세대의 청호동 아바이 마을 이주민들의 마지막일지 모를 정착지를 속초민예총 소속의 영화위원회 회원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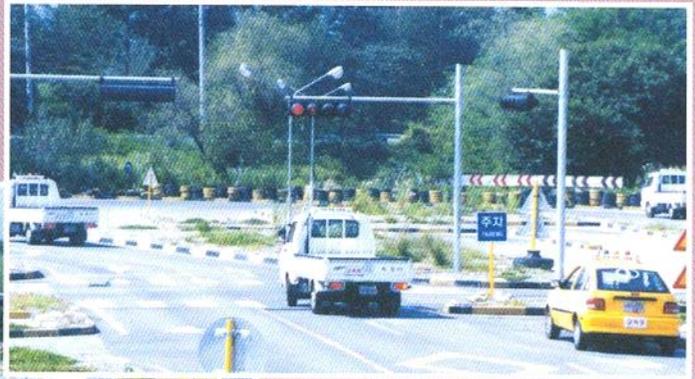
- 실향 1세대의 피난 시절 체험담
- 실향 2, 3세대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의식
- 개발 속에서의 청호동
- 청호동과 통일의 의미 등등의 내용을 1년간의 작업기간을 거쳐 영상 기록으로 남기고자 제작하였다.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무처	자 택	
원 장	최용문 崔龍文	동명동 250-5 5/4	632-1231	633-3233	
부원장	이인철 李仁鐵	교동 동부㉠ 102-1306	633-2177	633-2177	속초지구함복도민회 고문
	노광복 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 대표
이 사	고재양 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633-4931	교사(전)
	김광수 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 원장
	김길정 金吉貞	조양동 721-2 13/2	635-1878	633-4756	강원도의회 의원
	김병학 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 원장
	김상복 金相福	교동 동부㉠ 107-701	633-7733	633-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김종규 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633-4472	범죄 예방속초지역협의 회장(전)
	김창구 金昌九	교동 럭키설악타운2차 101-1106	637-1112	632-8275	東草道川로타리 회장
	박상복 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2-3888	632-3888	속초의료보험대표이사(전)
	어재석 魚在奭	중앙동 468-67	633-2069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윤근 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 대표
	윤숙자 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4014	설악유치원 원장
	이병선 李秉宣	교동 동부㉠ 107-1906	638-7005	638-6386	강원도의회 의원
	이영호 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임호성 林鎬成	조양동 부영㉠ 310-1505	633-2178	633-2178	속초시의회 의장(전)
	전복식 全福植	교동 삼환㉠ 108-1004	636-8790	631-7130	대우파크(설악산) 회장
	정래섭 鄭來燮	조양동 부영㉠ 302-501	636-1945	633-3149	설악관광(주)문화재단이사
	최경순 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 대표
	최현식 崔顯植	조양동 부영㉠ 303-604	633-2632	633-2632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허춘권 許春權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635-5767	019-376-2002	두산교육센터 원장
	감 사	박정기 朴政基	설악동 246-36	636-8244	636-7025
정연태 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764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사무국	한정규 韓晶圭	교동 966-12	632-1231	635-5933	사무국장, 국편사료조사위원
	장은선 張銀善	교동 늘푸른㉠ 105-1201	632-1231	636-4344	간사
	최봉하 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5-8827	631-5298	향토사료전시관 기사

매주 기능 검정과 도로 주행 시험 실시 통학은 셔틀 버스로 모십니다

■ 응시구비서류(응시원서)
: 속초시·속초의료원
인심의원·보건소



■ 응시구비서류(응시원서)
: 양양군·고성군
각 보건소에 비치

매주 기능 검정과 도로 주행 시험 실시

시 험 장 소 /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와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원장 김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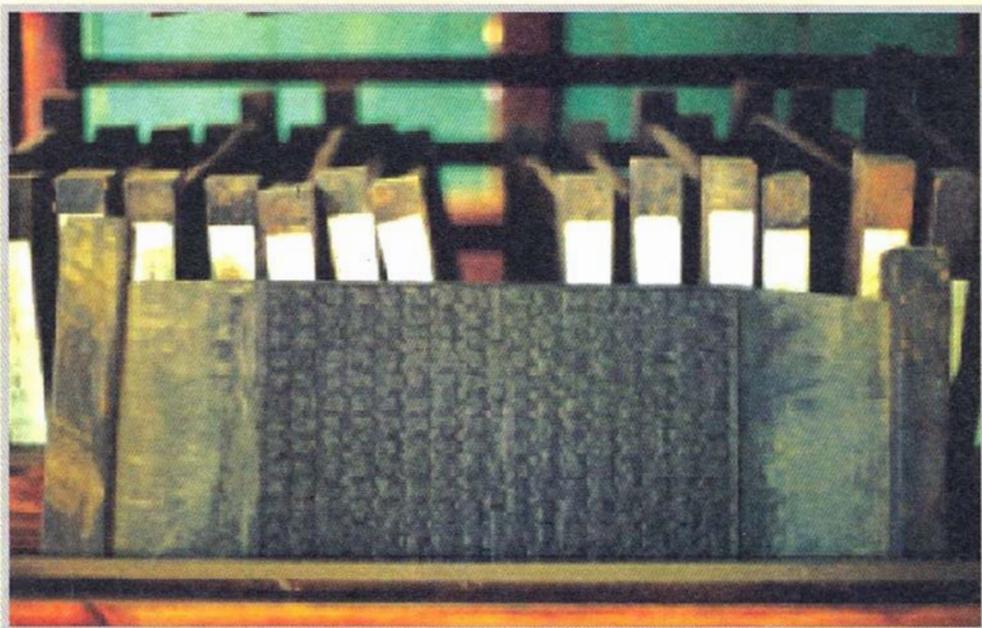
강원도경찰청지정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 635-3366 ☎ 635-3377 ☎ 635-3388 ☎ 635-3399

雪嶽山新興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 033-636-7044



설악산 신흥사 경판(經板)

- 강원도 지방 문화재 제15호

위 경판은 17세기 중반에 새긴 19종의 목판으로 한자·한글·범어(梵語)가 혼용된 희귀한 경판으로 평가되고 있다. 1661년(현종2년)에 건립한 '해장전'이라는 부속 건물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1858년 '응진전'으로 건물 이름이 바뀐 후 현재는 '보제루'에 소장되어 있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전질과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부.

《다라니경(陀羅尼經)》 1부. 기타 소실된 몇 매의 경판 등이 돌을 새김으로 대부분 양 끝에 마구리가 끼워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 기록에 보면 조선 왕조 효종 9년(1658)에 신흥사에서 직접 불경을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타 경판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이 경판 만은 효종 때 새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17세기 신흥사의 면모를 살피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